

2012

학교통일교육발전

워크숍

- 일 시 : 2012. 8. 17 (금)
- 장 소 : 경상북도 학생문화회관 대공연장



통일부 통일교육원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통일교육발전 워크숍

- 주제 : 국민적 통일준비 확산을 위해 찾아가는 통일교육
- 일시 : 2012. 8. 17(금) 13:30~17:00
- 장소 : 경북 학생문화회관 대공연장(경북 포항시 소재)

□ 세부 진행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13:30-13:55	25분	○ 등록 및 동영상 상영	○ 교육청
13:55-14:00	5분	○ 개회 및 국민의례 ○ 환영사(교육감)	○ 진행 : 김용국 장학사 ○ 환영사 : 교육감
14:00-14:50	50분	○ 특강 - 남북관계 현황과 통일정책 추진방향	○ 통일부 차관
14:50-15:00	10분	○ 휴식(동영상 상영)	○ 교육청
15:00-16:00	60분	○ 워크숍 - 발제 I, 발제 II:(30분) - 토론(30분)	○ 발표자(2명) - 전재영(신기초 교사) - 심근석(상모중 교사) ○ 토론자(3명) - 권기석(남계초 교사) - 차미경(화랑중 교사) - 김민경(경산고 교사)
16:00-17:00	60분	○ 탈북청소년 지도사례 및 탈북 학생과의 대화 -질의·응답 등	○ 한겨레중고 - 윤도화(교감) - 탈북학생 3명
17:00		○ 폐회	

목 차

1. 발제자료 I	
통일교육의 다문화적 논의와 도덕과 적용	7
전 재 영(신기초등학교 교사)	
2. 발제자료 II	
참여와 공감의 통일교육의 실천적 성찰	49
심 근 석(상모중학교 교사)	
3. 토론자료 I	
통일교육의 다문화교육적 접근과 통일교육의	
바람직한 방향	89
권 기 석(남계초등학교 교사)	
4. 토론자료 II	
참여과 공감의 통일교육의 실천적 성찰에	
대한 토론	111
차 미 경(화랑중학교 교사)	
5. 토론자료 III	
학교 통일교육에 대한 반성과 활성화 방안	125
김 민 경(경산고등학교 교사)	
6. 사례발표	
탈북청소년 이해 및 적응과제 모색	143
윤 도 화(한겨레중고등학교 교감)	

※참고자료

2012 학교통일교육발전 워크숍

국민적 통일준비 확산을 위해 찾아가는 통일교육

발제자료 I

통일교육의 다문화적 논의와 도덕과 적용

전재영 | 신기초등학교 교사

통일교육의 다문화적 논의와 도덕과 적용*

전재영(신기초등학교 교사)

- I. 서론
- II. 통일교육의 현실 진단
- III. 통일교육과 다문화교육의 관계
 - 1. 도덕(과) 교과교육과 다문화교육의 관계
 - 2. 학교 통일교육과 다문화교육의 관계
 - 3. 통일교육의 다문화적 논의
- IV. 초등 도덕과 통일교육의 다문화교육적 접근
 - 1. 통일교육에서 다문화교육적 접근의 유용성
 - 2. 초등 도덕과 통일교육에서 다문화교육적 접근의 구현 방향
- V. 다문화적 통일교육의 도덕과 적용**
 - 1. 교수·학습 계획 및 전개
 - 2. 교수·학습방법
 - 3. 교수·학습자료
 - 4. 교실 환경·분위기
- VI. 결론

I. 서론

최근 한국 사회는 국제화·개방화의 증대로 점차 다인종·다민족 사회로 변모되고 있다. 결혼 이민자, 이주 노동자, 북한이탈주민 등 새로이 유입된 구성원들

* 본 발제문은 발표자의 2011년 12월 학술논문(초등도덕교육 제37집)의 내용을 워크숍의 발표 취지에 맞게 재구성하고, 도덕과 적용의 내용을 추가하여 구성한 원고임을 미리 밝혀 드립니다.

** 이하의 내용은 발표자와 함께 공부한 양승현 선생님의 석사학위논문 중 본 발표의 의도에 맞는 내용을 소개 차원에서 발췌하여 재구성한 내용임.

은 우리 사회에 다양한 논의의 증대와 함께 다방면에 걸친 관심과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요구한다. 현재 한국 사회의 다양한 이주자는 2.7% 정도로 다문화 국가로 분류할 수 있는 국제적 기준인 5%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추세로 볼 때 5% 도달은 머지않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특히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이주자의 증대가 곧 이들 자녀들의 증가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주자 자녀의 증대는 결국 학교 현장으로의 유입이 증대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 현장에서 이들 자녀에 대한 교육적 대응 방안을 적절하게 처방해 주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된다.

먼저 이주자 증대와 관련한 주요 통계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2년 1월 법무부는 국내 등록 외국인이 1,117,481명이라 발표한 바 있고, 2011년 12월 행정안전부에서는 211,458명의 결혼이민자와 151,154명의 자녀들이 있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또한, 통일부에서는 2012년 2월 기준 북한이탈주민이 23,260명인 것으로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다문화적 요인을 지닌 인적 구성의 변모로 인해 이들 자녀들의 취학 수도 증가하고 있다. 2012년 3월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다문화가정 학생 수가 38,678명이며, 이 중 국제결혼 가정 자녀가 94.5%로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다문화교육에 대해 본격적인 관심이 대두된 2007년과 비교하여 볼 때, 불과 5년 만에 약 265% 정도 증가한 수치이다.¹⁾

이와 같은 인적 분포의 다변화는 한국 사회 내에 다양한 집단의 증가라는 현상뿐만 아니라 다양성과 동일성의 균형 잡힌 인식과 논의가 중요함을 내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각 학문 영역에 걸쳐 다문화적 관점을 투영하여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워크숍에서는 다양한 학문의 영역 중 '교육'의 영역에 한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국가 구성원의 다양성 증대로 인해 우리 사회는 단일 문화적 정통을 교육과정 속에서 배제시키는 노력을 시도해 왔다. 그 결과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는 단일 문화적

1) 우리 사회에 '다문화교육'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비롯된 것이다. 이로 인해 학교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다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시기였던 2007년 다문화가정 학생은 당시 14,654명이었다.

전통과 역사관이 삭제되고, 다양성과 보편성에 기초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대폭 수정된 바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 삭제와 현실 속에서의 인식과 논의의 대상이 적시적으로 일치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면에서 우리 사회는 여전히 단일 문화적 전통과 역사관, 통일 지향의 가치관이 다수의 국민 인식에 보편적으로 녹아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통일’이라는 국가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에 걸친 점진적 노력을 병행해 왔다. 그러한 노력은 현 정부 들어 가시적으로는 잠시 주춤하고 있는 형국이지만,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지속적인 교류·협력의 증대가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국민들은 북한을 바로 보기 위한 노력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관점이 많이 희석되었다. 2000년대 이후 증대된 북한 이해 노력은 통일교육의 발전을 가져왔고, 이는 현재까지 학문적으로 진일보해 있는 실정이다. 통일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정책 전개와는 별개로 시민 사회 단체 차원에서 이루어지던 사회 통일교육과 학교 차원의 학교 통일교육은 ‘통일교육지원법’ 제정의 결실을 맺었다. 더불어 학계의 통일교육에 대한 연구의 결과로 이제는 단일 학문적 성격으로까지 확대되었고, 어느 정도의 교과교육학적 틀을 완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통일교육은 현 정부기에 들어서 다소 간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어들었으며,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통일교육 활동 또한 정착 단계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통일교육과 관련한 연구물의 수도 감소하는 등 한국 사회 전반에서 통일교육은 ‘통일교육기’라는 시기 구분²⁾이 무색해진 실정이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도달해 있다. 기존의 통일교육과는 차별화되고, 좀 더 새로우면서도 시대적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내야 한다. 여기에서 논하는 통일교육의 다문화교육적 접근은 다문화 시대라는 현 시점에 통일교육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이 될 수 있

2) 통일교육의 시기 구분과 관련해서는 용어상의 차이가 다소 존재하지만,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현 시기를 ‘통일교육기’로 구분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다. 이러한 방향 전환을 통해 초등 도덕과에서 학습자의 흥미를 고려하고, 통일 문제를 '나'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통일교육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통일교육의 현실을 진단하고, 통일교육과 다문화교육의 관계를 살펴본 후 그 유용성과 필요성 논의를 통한 통일교육과 다문화교육의 접목을 도덕과를 중심으로 시도해 보고자 한다.

II. 통일교육의 현실 진단

한때 한국 사회에서는 '통일교육'이라는 용어가 시대적 흐름이었던 시기가 있었다. 학계에서는 이를 '통일교육기'로 구분 짓고, 연구의 외연을 확장시켜 나갔다. 이로 인해 통일교육은 학교 현장에 학생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통일 문제를 '나'의 문제로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또한, 다방면에 걸친 연구의 성과가 누적되고, 교육과정론적 체계화가 이루어지면서 통일교육의 교과 독립에 대한 논의까지 발전되었다. 물론 통일교육의 발전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토대 교과로서 도덕과가 그 중심에 있었다. 결국, 초등 도덕과의 내용 요소로서 통일교육 관련 내용은 중요한 하나의 범주로서 정착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교육과정에 따른 도덕과의 통일교육 변천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 교육과정에 따른 도덕과 통일교육의 변천

시대 구분	교수요목기 제1차교육과정 (1948-1963)	제2차 교육과정 (1963-1973)	제3차 교육과정 (1973-1981)	제4차 교육과정 (1981-1987)
내용	반공교육의 기초	반공교육의 재논의	승공통일교육의성립 반공교육과 도덕교육의 융합 국가안보교육의 강조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비판 교육과 민중 교육론 설정

시대 구분	제5차 교육과정 (1988-1992)	제6차 교육과정 (1988-1997)	제7차 교육과정 (1998-2007)	2007 개정교육과정 (2008-)
내용	통일안보교육의 지향과 비판	민족 통합적 통일교육의 모색	통일교육의 대안적 인식의 확대(남남갈등의 증폭)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와 안보 강화 및 북한 인권 문제 접근 강화

※ 출처: 박찬석(2010), “학교 통일교육의 역사-도덕과를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 도덕과 전국단위 5개학회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61.

위 표에서 제시한 도덕과 교육과정 변천에 따른 통일교육의 내용을 바탕으로 통일교육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시기를 구분하고 있다. 제 1차 교육과정~제 2차 교육과정 기 통일교육을 반공교육기, 제 3차 교육과정 기 통일교육을 승공교육기, 제 4차 교육과정 기는 멸공교육기, 제 5차~제 6차 교육과정 기는 통일안보 교육기, 제 7차 교육과정 기부터를 일반적으로 통일교육기라 칭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에 대한 시기적 구분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학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첫째, ‘통일교육지원법’을 개정(2010.4.19 시행)하여 통일교육위원 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주고, 언론의 통일 관련 심층 토론회³⁾ 연속 방송 등을 통해 국민들의 관심사를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 조사된 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당위성에 관한 여론 조사(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1, 28) 결과⁴⁾를 차용하지 않더라도 국민들의 통일 의식은 지난 정부에 비해 퇴보하였음을 체감할 수 있다.

-
- 3) KBS가 2011년 10대 기획 중 하나로 한반도의 통일 논의를 정하고, 통일을 위해 지금 이 시점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를 점검해 보기 위해 마련한 대토론회이다. 2011년 8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 연속 100분 토론의 형식으로 진행한 바 있다. 제 1편 왜 통일인가?, 제 2편 통일, 경제의 규모를 키워라, 제 3편 통일, 외교에 달려 있다. 제 4편 통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선정하였다.
 - 4) 2011년 9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가 한국 갤럽과 함께 실시한 통일의식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이 2008년 63.8%에서 시작하여 2009년 51.6%, 2010년 59.1%였던 것이 2011년 53.7%로 감소되었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통일교육이 '교육'이라는 점에서 볼 때 정치적 영향과 무관하게 학교 현장에서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논의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통일' 문제는 다분히 정치적인 수밖에 없는 국가 사안이고,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정치 문제와 별개로 논의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남북 경색 국면의 장기화는 결국 통일교육의 논의와 실천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임에 틀림없다.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경색 국면이 어떠한 형태로든 어느 정도 해결되어야 하는 것은 중요한 전제이다.

둘째, 그동안 붓물처럼 터져 나오던 통일교육에 대한 각종 연구와 교육적 실천이 주춤하고 있다는 점이다. '참여 정부'와 '국민의 정부' 기간에는 통일교육에 대한 교육적 실천 노력이 매우 강화되었다. 이는 두 정부의 통일문제에 대한 정책적 성과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통일'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희석되어 새로운 연구 영역으로 학교 현장에 정착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동안 학계에서만 이론적으로 논의되어 오던 '통일교육'이 현장으로 흡수되기 시작하였다. 동시에 교육운동의 형태로 진행되어 오던 통일교육적 노력이 '학교 통일교육'이라는 새로운 교육 영역으로 자리 잡아 좀 더 자유롭게 학생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또한, 통일교육 활동은 교사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연구의 영역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교사들은 학생들과 함께 다양한 통일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다채로운 현장 연구 결과를 도출하여 통일교육에서의 교육적 성과와 해결 과제들을 우리 사회에 제시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등장한 석·박사 학위 논문 수만 보더라도 이와 같은 경향은 한눈에 짐작할 수 있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인 1997년 이전까지 등장한 통일교육 관련 석·박사 학위논문은 박사학위 논문 4편, 석사학위 논문 97편 등 총 101편으로 연평균 10여 편 이내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1998년 25편으로 증가한 이후 1999년 36편, 2000년 38편, 2001년 44편, 2002년 57편, 2003년 78편, 2004년 62편, 2005년 51편, 2006년 41편, 2007년 47편으로 폭증하였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2008년 34편, 2009년 36편, 2010년 24편으로 감소되기 시작하였다(전재영, 2010, 73).

이는 학교 현장에서의 통일교육이 교육활동으로 전개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과거에 비해 '통일' 문제를 학교 현장에서 언급하기가 곤란한 국내 상황이 생겼고, 통일교육지침서에서도 안보교육을 더욱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찌됐건 통일교육은 그동안 교사를 중심으로 중요한 연구의 영역이었지만 이제는 그 관심사에 멀어져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

셋째, 교육과정 내용 요소 면에서 통일교육의 전반적인 퇴조를 지적해 볼 수 있다. 현행 2007·2009 개정 교육과정은 통일교육의 내용 요소 면에서 지난 7차 교육과정보다도 감소되었다. 오히려 다문화교육의 핵심 내용인 다원성과 다양성이 학교급별 교육과정 총론 목표에 비중 있게 반영되어 다문화교육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범교과 학습 영역에 다문화교육이 추가되어 기존 7차 교육과정 범교과 학습 주제였던 통일교육에 비해 새로운 영역으로 인식되어 다양한 교육적 관심이 제고되고 있기도 하다. 이로 인해 순수한 통일교육의 논의가 점차 퇴보되고 있는 추세라 할 수 있다.

넷째, 최근 통일교육은 다문화교육적 접근으로의 방향 전환을 모색하는 추세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추병완, 2009; 박명규, 2009; 정희태, 2010; 추병완, 2011; 김국현, 2011 등). 그동안 통일교육은 학생들에게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통일문제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체제접근법, 기능주의적 접근법에 이어 사회·문화적 접근법, 생활·문화적 접근법 등 다양한 변화를 시도해 왔다. 그러한 결과에 따라 통일 의식이 함양되고,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이해와 관용의 정신이 함양되어 왔다. 그러나 다문화 시대 및 북한이탈주민의 증가에 따라 최근에는 다문화적 접근법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결국 통일 한국은 현재보다 더욱 확대된 다문화 사회가 될 것이라는 예견이 밑바탕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순수한 통일교육의 연구보다는 다문화교육과의 관련성 속에서 통일교육의 발전을 모색하는 현실적인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Ⅲ. 통일교육과 다문화교육의 관계

1. 도덕(과) 교과교육과 다문화교육의 관계

학교에서의 다문화교육이 추구하는 바는 우리가 살아가는 다문화적 현실 속에는 자유 억압과 불평등, 인종차별과 편견 등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깨닫게 하고, 보다 나은 사회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모든 학생들은 이러한 다문화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다문화적 특성 - 다문화에 대한 지식과 배려 의식, 적극성을 지닌 민주적 시민을 양성하는데 교육의 초점이 있다고 하겠다.

또한, 다문화교육은 분열된 사회 혹은 국가를 통합하기 위한 교육이라 할 수 있다. 다문화교육은 '여럿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정신을 계승하며, 다양성과 통일성 간의 정교한 균형을 이루려는 시도이다(모경환 외, 2008: 16). 사회의 통합은 소수자와 그들의 문화가 주류 문화에 단순히 동화되어 통합되기보다는 그 사회 내 각 문화 주체들의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여 민족적 문화적 다양성을 구성하는 공통의 시민문화를 구축하는 것이 올바른 사회통합이라 하겠다. 이를 위해 다문화교육은 민주적 가치 - 시민적 평등, 정의, 공정, 배려, 관용 등을 중심으로 사회통합과 다양성 존중 간의 균형을 추구한다.

한편 학교의 도덕교육이 추구하는 바는 학생들이 어떠한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 처해서도 도덕교육을 통해 습득한 도덕적 지식과 도덕감을 토대로 올바른 도덕적 판단과 도덕적 신념하에 도덕적 행위를 실천하도록 교육시키는데 있다. 도덕교육이 지닌 이러한 의도는 다문화교육의 그것과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으며, 다문화교육이 지향하는 목표와는 공통의 영역이 많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문화교육과 도덕교육 모두 사회의 통합이라는 명확한 공통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다문화교육은 정치적 및 사회적 영역에서 인종, 성, 계급으로 분열되어 갈등하는 사회를 통합하려는 목표를 지니고 있다. 마찬가지로 도덕교육은 도덕적 통합성을 전제로 도덕적 사회의 건설을 목표로 하는데, 이때 문화적 통합성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특성이다(정탁준, 2007: 129-130).

또한, 방법 측면에서도 다문화교육과 도덕교육은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다. 다문화교육은 학생들을 교육해 다문화 사회에 적응시키는데 있어, 자유와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가치에 최우선을 두고서 비판적 사고력과 반성적 시민 교육을 통하여 토론과 참여를 통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려고 한다. 이러한 다문화교육의 방법은 도덕교육이 핵심요소로 간주하는 도덕적 사고력에 있어 비판의 능력 그리고 도덕적 실천력에 있어 반성적 행동 계획의 수립과 실천 등과 비교하여 거의 다르지 않다. 그리하여 도덕교육에서 추구하는 도덕적 인간을 만드는 방법에 있어,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에 요구되는 다문화교육은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특히 한국 사회 내 분열과 갈등적 현상이 급격히 표출되는 상황에서 도덕·윤리와 새 교육과정을 분석하는 틀은 한국 사회의 사회적 통합을 위해 다원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그에 따른 도덕적 판단과 행동을 요구하는 다문화교육이다 (정탁준, 2007: 130-131).⁵⁾

2. 학교 통일교육과 다문화교육의 관계

우리 민족은 5000년이라는 긴 세월을 단일 민족 및 문화적 틀 아래서 동일한 사회제도와 생활 세계를 구축해 왔다. 하지만 세계 체제의 강요와 민족적 분열에 의해 한반도는 분단되었고 분단된 60년의 세월은 우리로 하여금 남북이 전혀 다른 사회 체제 및 삶의 모습을 보이게 하였다. 그리하여 남북한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제 영역에서 서로 이해조차 할 수 없는 극도의 이질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슬픈 현실에서 남북한이 대화하고 만나며, 평화롭게 공존하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로에 대해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상호 간에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학교 통일교육에 있어서 앞서 그 특징을 설명한 다문화교육과 이를 적용한 접근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자신의 문화를 기초로 다른 사회와 문화를 재단하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다름과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점에서 상대를 이해하고자 하는 다문화 이해적 관점을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북한 사회와 통일문제를 이해시키는 교육적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오기성, 2008: 137).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학교 통일교육과 다

5) 이상의 내용은 정희태(2008), 285-287의 내용을 발췌한 것임.

문화교육 간에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먼저 교육목표 측면에서 보면, 다문화교육은 다음의 것들을 목표로 한다
(오기성, 2008:139-141).

1. 역사와 문화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함을 자각하게 한다
2. 타문화의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자기 이해를 심화시킨다
3. 인종, 민족, 문화적 소수자가 경험하는 고통과 차별을 줄이고자 한다
4. 다양한 집단 간 상호소통에 필요한 리터러시(literacy) 능력을 배양시킨다.

이와 비교하여 학교 통일교육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서로 다른 환경(남과 북)에서 자란 학생들이 서로에 대해 포용과 관용 능력을 키운다.
2. 학생들이 서로의 다름에 대해 인정하는 등 이문화(異文化) 이해 능력을 키운다.
3. 학생들이 남과 북의 문화를 객관적으로 비교하여 그 특성을 잘 이해하여 민족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족공동체 의식을 키운다.

다음으로 교육내용 측면에서 보면, 다문화교육은 다음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기성, 2008: 141-143).

1. 학생들로 하여금 문화적 '다양성'과 '평등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킨다.
2.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적 공존 속에서 협동 능력과 반편견 능력을 배양하게 한다.
3. 학생들이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소속감과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한다.
4.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 및 존중심을 갖도록 한다.

이와 비교하여, 학교 통일교육은 다음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1. 남북한이 단절된 생활세계를 형성하게 된 이유 및 배경에 대한 이해와 이질적 사회 및 삶의 형성에 대해 이해시킨다.
2. 학생들이 북한 문화에 대해 지닌 편견이나 왜곡된 인식을 수정시킨다.
3. 학생들로 하여금 남북한 문화에 대한 민족적 동질성을 함양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다문화교육과 학교 통일교육이 추구하는 목표 및 내용 간에는 상당한 유사성이 있으며, 공통의 영역을 서로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학

교 통일교육을 보다 효율적이며 내실 있게 하는데 있어 다문화교육과 그 접근법은 매우 유익하다고 할 수 있겠다.⁶⁾

3. 통일교육의 다문화적 논의

다문화 시대의 통일교육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 다문화교육과의 관계를 검토해 보는 것은 유용하다. 통일교육은 시대적 과제로서 다문화 시대의 도래에 따라 다문화교육과의 접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다문화 시대의 통일교육은 다문화교육과의 관계 속에서 유기적인 연결이 가능한 통일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다문화 시대의 통일교육은 우리 사회 내에 접증하고 있는 이질적인 사회와 문화를 수용하고, 상호 존중과 협력적 관점에서 갈등의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나아가 인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다양한 이주자 집단의 증가에 관심을 갖는 것에서 나아가 이주자 집단 안에는 뿌리 깊은 동질 의식이 자리 잡은 북한이탈주민이 함께 존재하고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들은 통일교육 뿐만 아니라 다문화교육 속에서도 공히 찾을 수 있는 원칙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통일교육은 여러 가지 면에서 교육적 의의를 가지고 있었다. 자유 민주주의, 민족 공동체주의, 평화주의에 근거하여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어 왔고, 교과 교육학적 체계화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또 하나의 교육내용으로서 접근되어 왔다. 그러나 통일교육은 정치적인 상황과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국면의 강도에 따라 교육의 정도와 실효성이 급변하는 양상을 띠고 전개되었다. 그 결과, 남북 간의 심화된 문화 이질화 현상은 시기와 국면에 따라 인식의 편차가 발생하였고,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또한 쉽게 어느 한 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헌법과 교육기본법 등 국민이 합의가능한 객관적 문서에서 평화적 통일을 최대의 민족적 과업으로 삼고 있는 한 통일교육은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

6) 이상의 내용은 정희태(2008), 287-290의 내용을 발췌한 것임.

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의식과 가치관의 통합이든 사회·문화적 통합이든 그것은 기본적으로 북한 사회의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존중하는 토대 위에서 가능하다. 다문화교육에서는 이러한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학생들에게 서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틀을 제공해 줄 것이다.

또한, 통일교육은 다양한 내용을 요소로 하여 실행되어 왔다. 황인표(2005)는 기존 분산되어 논의되던 통일교육의 내용 요소를 민족 공동체 교육, 평화교육, 정치교육으로 범주화하여 각각의 교육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통일교육 내용 요소로서의 다문화교육적 접근은 이처럼 구체화하여 제시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 기존 통일교육에서 강조하던 민족 공동체라는 개념을 다문화 시대에 맞게 국가 공동체로 전환할 것을 이후에 언급하고 있다. 또한, 정치교육은 다문화교육의 초기 내용적 측면에서 볼 때 시급한 부분이 아니므로, 자유 민주주의의 이념에 기초한 민주시민교육으로 분류하여 시행이 가능할 것이다.

결국,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통일교육 내용으로서의 평화교육을 다문화교육의 내용 요소 면에서 공통분모로 통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평화는 우리 사회 곳곳에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 때로는 가시적으로, 때로는 부지불식간에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폭력들을 없애는 데에서 출발한다(황인표, 2005, 132).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상호 이해와 존중, 배려 등의 가치들이 통용될 것으로 본다. 장차 군사적 신뢰관계가 회복된 후 북한 주민은 국제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야 할 이웃으로서, 장기적으로는 같이 살아가야 할 '우리'로서 다가올 것이다. 이런 시대에 사람들은 무엇보다 북한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그들의 시각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사회 변화상에 대응한 시민들의 능력을 남북상호 이해능력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박성혁, 2001, 136). 이러한 능력은 다문화교육적 관점을 수용한 통일교육의 실행으로 기를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평화교육적 논리의 통일교육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다문화교육적 관점의 논리를 접근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즉, 남북한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같은 민족이므로 문화적·민족적 동질성이 당연히 회복돼야 하고,

회복될 것이라는 맹목적인 민족 지상주의나 감성적 논리를 뛰어넘어야 한다. 그리고 소모적인 체제 경쟁을 하지 않으며, 서로의 체제와 문화를 인정해 주면서 차이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통일교육의 방향이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통일교육의 방향은 다양성 속의 사회 통합의 원칙 아래 형평성과 다양성의 조화를 추구하는 다문화교육적 접근으로 포섭될 수 있겠다. 이를 위해 통일교육은 구체적이면서 다양성을 추구하는 다문화교육을 수반해야 한다. 학생들이 직접 타문화를 접하고, 이해하면서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고 협동을 통하여 정체성을 형성하는 가운데 통일교육에 대한 즐거움을 찾아가는 다문화교육적 접근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전재영, 2010, 93).

IV. 초등 도덕과 통일교육의 다문화교육적 접근

1. 통일교육에서 다문화교육적 접근의 유용성

분단 반세기 동안 형성된 남과 북의 이질화는 근본적으로 치유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육에서는 그동안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인정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통일교육에서 다문화교육적 접근은 상당한 유용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정희태(2010, 287-288)는 교육목표와 교육내용 측면에서 통일교육과 다문화교육 간에 관련성이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논의와는 별개로 통일교육에서 다문화교육적 접근의 유용성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해 보고자 한다.

먼저 북한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측면에서 유용하다. 통일교육은 그동안 여러 시기의 변화 과정을 거쳐 오면서 많은 발전을 한 반면 그 과정에서 내재된 뿌리 깊은 문제점들도 적지 않다.⁷⁾ 다문화 시대의 통일교육에

7) 학교 통일교육의 일관성 결여, 지나친 정치 중심 내용으로 인한 아동의 관심과 흥미 부족, 정부의

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북한 사회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길러 주어야 한다. 이것은 북한 사회를 지배하는 가치체계와 생활 규범 속에서 북한 사회를 올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실상을 올바로 이해하면서 포용적인 자세를 지닐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음으로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다(양승현, 2007). 우리는 우리의 선택과는 관계없이 다문화 시대에 살고 있으며, 향후 다문화 상황의 진전은 회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편견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 다문화 시대의 문화적 특징은 모든 편견을 제거하고, 세계 인류와 공존하는 시대이다. 또한, 다문화교육은 우리 사회 나아가 세계에 존재하는 다양성을 수용하도록 도와주는 교육과정이기도 하다. 통일교육에서도 문화적 다양성 존중 및 인정이 중요하다고 강조되어 왔다. 통일은 다양한 사회문화적 통합작업을 수반하는 복잡한 과정이다. 또한, 사회불안과 집단간의 갈등 및 개인 정체감 위기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전재영, 2010, 86). 그동안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상이한 문화에 남북한 주민들이 적응해 가는 과정은 매우 어렵다.

베리(Berry, 1988)에 의하면 편입된 집단에서 효율적으로 통합의 기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심리적 전제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문화적 다양성을 가진 사회를 인정하고 추구해야 한다. 둘째, 상대적으로 적은 편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셋째, 상호간의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넷째, 모든 다양한 문화집단이 보다 큰 사회에 대한 애착심을 갖거나 동일시해야 한다(양승현, 2007, 19 재인용).” 따라서 서로 다른 남북한의 문화가 충돌할 때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방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상대방을 단기간에 동화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또한,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도 북한 문화에 적응하려는 자세를 길러주는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정책에 따른 내용의 잦은 변화, 남북한의 차이를 심화 시키는 교육 내용, 그리고 교사의 열정 부족이 주된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우리 학생들은 우리와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온 북한 주민들을 이해하고 수용하기 보다는 회피하거나 무시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끝으로, 민족 정체성 형성에 있어서도 유용하다.

정체성이란 개인으로서나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심리 현상이라 정의할 수 있다. 즉 변화를 겪으면서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동일시와 차별화의 두 과정이 수반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정체성은 각 개인이 지닌 여러 형태의 사회적 정체성 중의 하나로 나와 내가 속한 나라를 동일시하는 심리적 감정으로 나타나 국민정체성을 형성한다(김미숙, 2002, 48). 지금까지 통일교육에서는 이러한 정체성 중 민족 정체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분단된 우리에게 민족이라는 키워드는 통일교육의 필요성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다문화적 진전에 따라 민족 정체성과 단일 사관의 관점이 희석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다양성과 동일성의 정교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또 하나의 논쟁이 되고 있다. 현행 개정교육과정에는 다양성에 좀 더 방점을 두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것이 민족 정체성 교육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단일민족의 역사적 전통을 부정하라는 뜻은 아니다. 단지 다문화 시대의 추세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결국, 교육의 내용에서 사라진 민족 정체성은 향후 통일을 지향하는 우리 사회에 있어서 분명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간접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교육에서 강조될 수 있는 민족 정체성은 다문화교육에서 다양성의 인정이라는 측면에서 흡수가 가능하다. 다양성의 보장과 인정의 순차적인 진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즉 우리와 유사한 문화적 전통이 자리 잡고 있는 북한 지역의 문화적 다양성을 선택적으로 수용하여 공통의 정체성 형성을 통하여 점차 전 지구적인 관점의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점진적 과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로서는 각 종족 간이나 인종 간의 문제는 다문화 국가의 경우보다 심각하지 않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한반도의 상황이 다문화적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서로의 다름 속에 나타난 정체성의 차이를 존중해 주며, 하나로 통일해 나가려는 과정이 필요하다.

2. 초등 도덕과 통일교육에서 다문화교육적 접근의 구현 방향

가. '북한이탈주민'의 다문화교육 대상 범주 설정

지금까지 통일교육에서는 다양한 이름으로 북한이탈주민 및 그들의 자녀에 대한 연구가 상당 부분 진척되었다. 이들의 정착지원 문제로부터 시작하여 직업 및 진로교육, 정서 및 상담교육, 남한 사회 적응 교육을 비롯하여 이들 자녀의 교육 적응 문제, 정서발달 문제, 교우관계, 학업 성적 및 중도 탈락률 등의 연구도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이는 통일교육이 교육 대상 범주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진행해 온 결과이다. 첫째는 개념적·거시적 차원의 민족적 과제로서 '통일' 문제의 저변을 확산하기 위한 전 국민적 대상 교육이며, 또 하나는 북한이탈주민을 통일교육의 교육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흡수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교육은 어떠한 대상을 교육 대상 범주에 포함하느냐에 따라서 그 연구의 성과 및 논의의 범위가 상이하게 된다.

한편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통일교육과 다문화교육이 범교과 학습 영역 안에 각각 별도로 존재한다. 즉 새로이 반영된 다문화교육은 다문화교육의 대상을 교육의 대상으로 하고, 통일교육은 통일교육의 대상을 교육의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물론 35개의 범교과 활동 속의 다양한 영역들은 모두 우리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여타의 영역과는 달리 통일교육과 다문화교육은 엄연히 교육의 수요자가 새로이 유입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교육 대상 집단을 포함하고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이탈주민의 증가와 이들 자녀의 교육 환경으로의 유입은 통일교육의 촉진을 가져왔고, 결혼 이민자 및 이주 노동자 자녀의 유입은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을 가져왔다.

구체적으로 통일교육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과 「통일교육 지원법」을 근거로 주류 한국인에 더하여 북한이탈주민을 교육의 대상으로 명시하였다. 그러나 다문화교육의 법적 근거인 「다문화가족 지원법」과 「다문화가정자녀교육 지원계획」에는 결혼 이민자 및 이들 자녀만을 교육 대상 범주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에 다양한 이주자가 존재하는 다문화화를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본다. 즉 다문화교육을 종합적인 차원에서 검토·시행하는 체계적 노력이 아니라, 일단 결혼 이민자 및 이들 자녀들을 대상으로 실시해 본 후 법적·제도적 보완을 거쳐 시행하려는 행정 편의주의에 다르다.

통일교육과 다문화교육의 중요한 공통점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중도 포기 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이다. 통일은 민족적 숙원의 과제이며, 헌법에서도 명시하고 있고, 대통령 취임 선서에도 선포되는 중요한 아젠더인 것이다. 다문화교육도 동일하며, 한국 사회의 다문화화는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이주민 자녀들의 학교 현장 유입이 더욱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다문화교육의 교육적 해결 노력은 잠시도 멈출 수 없는 지대한 과업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을 통일교육과 다문화교육의 공통된 대상 범주로 설정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을 통일 및 북한과의 관련성에서 고려하는 교육 대상이었다면, 이제 다문화교육의 대상 범주에서 진지한 성찰과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2007 개정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에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심과 현실을 이해하도록 돕는 별도의 제재(단원)가 반영되었다.⁸⁾ 이를 통해 학생들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주자의 범주 속에는 결혼 이민자, 이주 노동자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이 존재함을 인식할 수 있다. 이는 기존 북한이탈주민을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분단된 사회, 통일을 추구하는 사회, 다문화 사회라는 현재의 슬로건에 가장 충실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나. 통일·다문화 교육과정 통합 노력

통일교육에 대한 연구는 양적·질적으로 방대하게 이루어졌으며, 그 성과를 바

8) 초등학교 5학년 도덕과 5단원 '우리는 하나'의 내용 속에는 북한이탈학생의 남한 사회 적응의 어려움, 우리 사회에서 성공한 북한이탈주민의 사례 등을 통하여 북한이탈주민 및 이들의 자녀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대시키는 내용이 새로이 반영되었다.

탕으로 최근에는 교과교육론적 체계화 노력이 병행되어 왔다. 이러한 통일교육의 체계화는 교육과정적 측면에서 고려할 때 내용적 측면의 연구를 시작으로 하여 방법 및 평가에 대한 연구로 확장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여전히 통일교육의 성격과 목표를 규정하기 위한 합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통일교육의 성격·목표·내용·방법·평가에 대한 합의가 체계화 노력의 근거로 삼기에 충분히 진척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현재 다문화교육은 초기 단계로서 통일교육 체계화의 역사와 유사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다시 말해 다문화교육도 다문화교육의 성격 및 목표 규정은 유보한 상태로, 내용과 방법적 측면에 대한 연구가 양적으로 방대히 누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대부분의 연구가 교육과 관련되어 있고, 그러한 교육의 문제와 과제는 일선 교사에 의해서 현장 연구와 병행하여 진행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어찌됐건 현재의 다문화교육도 내용과 방법상에서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상당부분 연구가 진행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각각의 개별 연구에서 드러나는 내용 요소 및 교육방법 면에서의 중복성이 문제로 지적된다는 점이다. 아래의 표는 2007 개정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이 혼용되어 있는 현재의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통일교육 및 다문화교육 관련 내용이다.

〈표 1〉 현행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의 통일교육 및 다문화교육 관련 내용⁹⁾

구분	통일교육	다문화교육
1학년	6. 사랑해요, 우리나라 - 태극기 사랑하기 - 애국가 사랑하기 - 무궁화 사랑하기 - 우리나라를 나타내는 것 사랑하기	

9) 본 내용은 현행 교육과정에 따른 학년별 교과서를 바탕으로 통일교육과 다문화교육 관련 내용을 발표자가 직접 구분한 것이다. 1~2학년은 2009 개정 통합교과(바른생활) 교과서, 3~6학년은 2009 개정 도덕과 교과서의 단원(제재)명을 바탕으로 교과서의 내용을 관련 영역으로 산출 비교한 것이다.

구분	통일교육	다문화교육
2학년	<p><2학기></p> <p>3. 아름다운 우리나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를 빛낸 위인 - 우리나라의 전통 - 우리나라의 자랑거리 - 우리나라의 자랑거리 아끼고 보존하기 	<p><1학기></p> <p>5. 함께 사는 우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려하는 생활 - 다른 사람 배려하기 - 다른 사람의 생각 존중하기 -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
2학년	<p>4. 통일을 향해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과 우리는 한민족 - 북한 어린이의 생활 - 통일이 필요한 이유 - 통일 기원 	
3학년	<p>5.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를 나타내는 상징들 - 소중한 우리나라 - 나라 사랑, 우리도 할 수 있어요 <p>10. 우리는 하나가 되고 싶어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하나였는데 - 하나가 되기 위한 노력 - 통일을 향하여 	<p>8. 함께 어울려 살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해요 - 같은 것과 다른 것이 함께해요 - 어울려 살면 모두가 행복해요
4학년	<p>5. 자랑스러운 우리나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라와 와 - 우리는 전통지킴이 - 사랑해요 대한민국 <p>10. 하나 된 나라 평화로운 세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께하는 마음 - 하나가 되기 위한 노력 - 통일을 위한 작은 실천 	<p>8. 따스한 손길 행복한 세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려하는 마음, 따뜻한 생활 - 마음을 헤아려요 - 작은 배려가 큰 기쁨을 주어요
5학년	<p>5. 우리는 하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이면서 둘 - 하나가 되기 위한 발걸음 - 더불어 살기 위한 발걸음 <p>10. 우리는 자랑스러운 한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의 뿌리는 하나 - 우리는 한 가족 - 재외동포와 함께 	<p>3. 갈등을 대화로 풀어나가는 삶</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등과 그 해결, 올바르게 알기 - 갈등을 대화로 해결하기 - 갈등을 함께 해결하기
6학년	<p>5. 통일 한국을 향하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람직한 통일의 과정 - 하나하나 차근차근 - 통일 한국, 번영의 길 <p>9. 평화로운 삶을 위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 그 소중한 이름 -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 내 손으로 만드는 평화 세상 	<p>4. 서로 배려하고 봉사하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너를 나처럼 - 서로의 마음이 되어 - 같은 마음으로 함께하기 <p>7. 다양한 문화 행복한 세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문화의 이해와 존중 - 서로 이해하기 위한 올바른 생각 -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위하여

위의 표에서 보듯 개정된 교육과정에서는 다문화교육과 관련된 배려, 다양성 존중, 이해 등의 내용 요소가 강조되어 새로이 교육내용으로 학생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통일교육과 관련한 내용 분류는 기존의 분류 방법에 따라 통일, 북한, 평화와 관련된 내용에 민족 정체성, 동포애, 국가애 등의 내용을 분류하였다. 유의할 점은 기존 통일교육의 영역에서 통일교육의 내용으로 분류하던 내용 요소 중 다문화교육에서도 함께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내용 요소 면에서 통일교육의 다문화교육적 접근이 가능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교육방법 면에 있어서도 기존 일반 교과와 통일교육의 교육방법 또는 다문화교육의 교육방법으로 동일하게 제시하는 등 관련 분야를 대변할 만한 특별한 교육방법이 제시되지 않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그나마 통일교육에서 문화이해지 수업방법이나 컴퓨터를 활용한 가상체험학습 등이 제시된 것과 다문화교육에서 중앙다문화교육센터의 추가형·보완형·대체형 교육방법이 제안된 것 등은 발전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방법들은 통일교육과 다문화교육의 교육 방법으로 공히 사용할 수 있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다시 말해 그동안 통일교육의 대표적 교육방법 중 하나로 인식되던 문화이해지 수업방법은 다문화교육의 대표적인 교육방법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결국, 중앙다문화교육센터에서 제안한 추가형·보완형·대체형 교육방법도 통일교육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교육방법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제각각 연구하는 교육과정적 접근에서 벗어나 통일·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통합 노력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통합이 어느 한 학문이 다른 학문을 흡수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교육대상 범주의 통합이 시도되면 하나의 교육과정 영역에서 이 내용은 어떤 대상을 위한 교육 내용 요소인지를 검토하여 주 교육내용과 보조 교육내용으로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유용함을 의미한다. 물론 이러한 교육과정 검토는 보다 학문적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연구, 자료들을 필요로 하는 만큼 다문화시대 통일교육의 새로운 시도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다. '국가공동체' 개념으로의 확장

통일교육의 발전은 다양한 접근 방법의 연구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다. 방법론적으로 내재적 접근과 외재적 접근, 내용적으로 사회·문화적 접근, 생활·문화적 접근, 체계론적 접근 등 명칭도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물론 그러한 접근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거시적 차원의 접근은 아니다. 오히려 대부분은 북한 및 통일에 관련된 내용들의 선정 및 조직에 관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내용 요소들을 중심으로 어떠한 것을 가르치고, 다루어야 하는지의 미시적인 부분이 더 큰 축을 담당해 왔다고 할 수 있다(황인표, 2005, 122). 그 핵심에는 바로 민족이라는 핵심 용어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문화시대의 현실에 와서 그동안 강조되어 온 '민족공동체'라는 개념에 혼란이 발생하였다. 그동안 통일교육에서는 민족공동체 교육을 강조하여 이 '민족'이라는 개념을 매우 중요시해 왔다. 그럼에도 실제로는 이중적 속성을 보유한 북한에 대해 이분법적인 관점을 견지함으로써 통일교육의 중요한 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민족공동체의 형성에 있어서 커다란 장애 요인이 되어 왔다. 우리의 통일 문제에 있어 민족공동체의 형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결과 사회 전반에 걸쳐 반통일적 의식 구조가 확산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한편 한국 사회의 다문화화는 그나마 지속적으로 강조·유지되어 왔던 단일민족 의식과 역사관에서 벗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이에 대한 포기를 선언한 상황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어디에 더 큰 방점을 두느냐의 차이로 할 수 있다. 즉 현재 우리 사회의 지대한 관심사는 바로 다문화교육에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 7차 도덕과 교육과정 하위 영역 중 하나였던 '국가·민족생활'이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국가, 민족, 지구공동체와의 관계'로 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곧 생활영역별 확장이 중심이던 도덕과의 내용을 가치관계 확장으로 변모를 꾀한 것이다. 다시 말해 생활영역의 하나로 인식되던 민족공동체 개념 또한 가치관계의 확장에 따른 국가공동체 개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민족공동체의 재개념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은 민족공동체의 포기와는 다른 것이다. 기존 국민들 사이에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한 민족공동체라는 개념은 이주자의 증가가 증대되고 있는 다문화 사회에서는 합의에 더 큰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제 통일교육은 ‘국가공동체’ 교육의 개념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본다. 기존 민족 중심의 편협한 사고와 논의에서 탈피하여 새롭게 구성되고 있는 다문화 국가로서 국가 중심의 거시적인 사고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통해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은 국가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개인의 가치와 태도, 신념 등을 조절해 나갈 수 있는 국가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V. 다문화적 통일교육의 도덕과 적용¹⁰⁾

다문화적 통일교육은 무엇보다도 일상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문화를 통하여 접근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 특히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학생들은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문화적 통일교육은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통일에 대한 안목을 길러주는데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다문화적 통일교육의 방안을 교수·학습계획 및 전개 방향, 교수·학습 방법, 교수·학습자료, 교실 환경·분위기 등을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적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1. 교수·학습 계획 및 전개

다문화교육을 전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MacNaughton & Williams(1998)은 다문화적 교육을 사회 평등교육과 관련하여 5가지 접근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10) 이하의 내용은 발표자와 함께 공부한 양승현 선생님의 석사학위논문 중 본 발표의 의도에 맞는 내용을 소개 차원에서 발췌하여 재구성한 내용임.

첫째로 자유방임적 접근이다. 이 접근법은 교사가 아동을 똑같이 취급하더라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사회적, 문화적, 능력, 성 등의 차이를 무시한다. 이 접근법은 과거에 있었으나 지금은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다.

둘째, 특별한 준비에 의한 접근이다. 전문가에 의한 교육이 차이가 있다고 확신하며 전문가에 의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법이다. 표준과는 다르다고 보이는 아동들의 기회를 균등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능력이 부족한 아동이나 비영어권 아동을 표준으로부터 분리해서 가르치는 방법은 오히려 배척의 개념을 강화할 수 있다고 믿는다.

셋째, 문화이해적 접근이다. 평등과 다양성에 기초한 접근법으로 관광객적인 접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구촌 사람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의식주를 해결하고 있으나, 결국 삶의 기본 조건은 같다는 것이다.

넷째, 인권적 접근이다. 개인의 가치에 존경심을 갖도록 지도한다. 개인은 모두 소중하므로 존중되어야 하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반차별적 접근로 아동의 다른 능력, 문화, 성을 교육과정을 통해서 보여주며 풍요로움과 다양함을 경험하게 한다. 이 접근법은 무능력, 문화, 사회적 차이, 종족과 성 등에 대하여 차별하지 않는 태도나 이해를 발달시킨다. 또한, 다양한 교육과정 경험을 통해 개성과 생활경험을 표현할 기회를 제공하고 격려한다.

이 중 반차별적 접근은 반편견적 접근과 같은 의미로 다문화교육을 위해 가장 적합한 교육방법이다. 이를 계획할 때에는 내용, 아동, 교수·학습 상호작용의 세 요인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반편견 교육을 위해 아동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자신감을 갖게 하고 신뢰하도록 하는 것이 출발점이 되므로 느낌과 감정을 존중하고 표출하도록 하며, 다양한 삶의 양식을 표현하는 자료를 접할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좀 더 나이가 든 아동들에게는 다문화적 관점을 통합시킴으로써 타인의 관점을 수용하게 하고 편견을 갖지 않도록 강조해야 하며, 발달적으로 적합한 방법을 탐색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반편견 교육을 통한 다문화 교육은 다양하고 사려 깊은 환경적 계획, 언어교류를 염두에 두고 성인과의 놀이 자료를 접할 수 있는 기회, 촉감 자료의 제공, 적절한 상황에서 느낌을 명명해 보는 일, 가족·이웃·지역사회를 대표하는 노래, 다른 사람의 느낌에 대해 듣거나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기회의 제공과 같은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즉 주의 깊은 상호작용을 통해 감정이입의 표현이 가능해지며, 자아 중심적인 특성이 극복되면서 구체적으로 편견에 반응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에 주안점을 두면서 통일교육에 있어서 다문화 인식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이를 위한 활동으로는 남북한 가족의 구성원 알아보기, 구어(북한 언어 구사하기), 북한의 전래동요의 소개, 북한 음악, 북한의 요리, 북한의 다양한 인형 소개 등이 좋은 예이다. 통일교육에 있어서 다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문화란 존재가 나라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까운 주변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 자원을 교육과정으로 만들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즉 남북한의 지방의 문화, 친숙하지 않았던 문화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와 공감대를 통해 접근해야 한다.

2. 교수·학습방법

지금까지의 학교 통일교육은 지나치게 단선적이고 주입식 위주의 강의 중심교육으로 실시되어 왔다. 강의 중심 수업은 각종 정보를 다량으로 일방적으로 전달 하는데 효과가 있겠지만 학생들에게 동기나 흥미 유발이 어려워 효과를 얻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거부감을 형성해 온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문화교육적 접근법에 의한 통일교육 교수·학습 방안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문화이해지 활용수업

문화이해지(culture assimilator)는 문화간 훈련의 대표적인 방법이다.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이 그 문화의 차이 때문에 상대방을 이해하기 어려워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다양하게 선정해 놓고, 각각의 상황마다 상대방 행동의 이유를 다각도에서 생각해보게 하고 그 행동의 이유를 문화적 배경 속에서 이해하게 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훈련을 통하여 길러지는 능력, 또는 기술 중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문화적 감수성이다. 타문화에 갔을 때, 그곳 사람들의 관점에 대한 감수성을 갖는 것은 성공적인 적응에 필수적이다. 또한, 자기조절능력과 메타인지능력이 개발되어야 한다. 즉, 자기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것, 문제를 해결하고 배우기 위해서 적절히 노력하는 것 등이다.

문화이해지는 타문화에 가서 살 예정이거나, 타문화의 사람들을 많이 만날 예정인 사람들을 위해서, 만남을 예상하고 그때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가상적 갈등 상황을 자료로 제시한 후, 상황마다 판단의 연습을 해보게 하는 것이다. 같은 문화권 안에서도 서로 다른 하위문화를 지닌 집단들 간의 상호작용을 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데, 흑인과 백인이 통합된 학교에 다니거나, 이민자들이 많이 일하는 직장에서의 심리적 화합을 위한 경험으로 활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 이전에 남북한 주민들이 만났을 때이나 통일 이후에 남북한 주민들이 사회적 통합을 이루고 살아갈 때에 타인을 이해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심리적 화합의 방법론으로서의 문화이해지(culture assimilator)는 상대방이 나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할지, 그리고 나는 상대방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를 배우는 귀인훈련의 대표적인 방법이다. 문화이해지를 통하여 사람들은 상대방이 나의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나는 상대방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를 배운다(정진경, 1999). 즉 타문화의 사람들 간에 상호작용을 할 때 서로가 행동 원인에 대하여 어떤 판단을 내리는가를 출현을 통하여 배우는 것이다. 문화이해지는 소집단 토론 상황, 대규모 교실에서의 실시상황, 자습으로 혼자서 진도를 나가는 상황 등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다(오기성, 2002).

반세기에 이르는 분단 상황 아래서 서로 다른 가치관과 생활양식에 따라 살던 사람들이 만났을 때, 도처에서 긴장과 갈등이 일어나고 크고 작은 오해가 빚어지

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통일을 준비하는 교육의 목표는 서로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 나가는 것, 다를 때는 왜 다르게 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것,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배척하지 않고 공존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남북한이 분단을 극복하고 심리적 통합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갈등을 최소화하는 통일교육이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한 것이다.

나. 협동학습

협동학습이란 학습능력이 다른 학생들이 동일한 학습목표를 향하여 소그룹 내에서 함께 활동하는 수업 방법으로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라는 태도를 형성하게 되고 집단 구성원들의 성공적이 학습을 위해 서로 격려하고 도움으로써 학습 부진을 해소하고 개선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협동학습이란 학습자 모두가 공동체 일원으로서 공동의 학습목표를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협동학습의 장점을 살린다면 통일교육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통일교육을 위한 교수학습방법으로서 협동학습이 좋은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협동학습이 추구하는 가치와 통일교육이 지향하는 가치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협동학습이 공동의 학습의 목표를 위해 각 구성원들이 협동하여 학습하는 형태라고 볼 때 통일교육이 추구하는 남북한 주민들의 공동의 민족 번영이라는 목표와 근본적으로 상통하기 때문에 협동이라는 가치는 통일교육에서의 통일이라는 가치와 상통되어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협동학습은 통일교육의 주요한 교수 학습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둘째, 협동학습이 사회 통합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때문이다. 협동학습에서의 모둠은 이질적인 집단을 원칙으로 하고 각 구성원들 간에 협동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다인종 사회에서의 효과적인 교수 학습방법으로 각광받게 되었다. 그러한 측면에서 협동학습은 통일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교수학습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통일교육에서의 협동학습은 이질적인 문화와 사고를 가진 남북 학생들이 서로 존중하고 변증법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통일 이후에 나타난 남북한의 다문화 상황에서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다름을 인정하고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교수 학습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다.

셋째, 협동학습의 다양한 구조나 기법들이 통일교육에 다양한 학습자료 개발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Kagan 박사팀이 개발한 학습구조들만 해도 100여 가지가 넘고 JISAW, STAD, TGT 등 수업 모형으로 개발된 것만 해도 60여 가지가 넘는다. 물론 모든 방법들이 현실에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협동학습은 학습구조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현실에 다양한 적용과 변용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교수 기법과 협동학습의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한다면 더욱 신나고 재미나며 유익한 통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통일은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남북한 동포들이 다시 하나를 추구하는 가치 지향적 활동이므로 통일교육에 있어서 공동체는 가장 중심적인 이슈가 되어야 하며, 남북한을 바르게 이해하여 북한과 그 주민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이 요구된다. 협동학습은 미국의 협동학습이 다인종 국가의 인종문제에 기인하였던 것으로 볼 때, 통일교육에서의 협동학습의 활용은 교실에서의 공존의 가치와 능력을 함양하는 데 효과적이며 이는 남북한 동포들간의 이해의 폭을 높이는 기초적인 작업이라 할 수 있다(박찬석 외 2000).

이러한 측면에서 협동학습은 통일교육이 평화의 실천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협동학습은 그 자체가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생 스스로 같은 모둠원끼리 협동하지 않으면 안 되며, 친구의 향상이 나의 향상으로, 친구의 실수가 나의 실수로 귀결되게 하는 수업 전략이므로 통일교육에서의 협동학습의 활용은 남북 화해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북한을 바르게 이해하고 통일의식을 함양하는데 효과적이라 볼 수 있다.

다. 일상 생활소재를 활용한 교수·학습방안

통일교육에 있어서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일상생활과 연계시키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통일교육에서 효과적인 다문화교육을 위해 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기 위하여 의·식·주를 활용한 다문화교육을 통한 통일교육, 학교생활에서 다문화교육을 통한 교육, 놀이를 통한 다문화교육적 통일교육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1) 의·식·주를 활용한 다문화교육적 통일교육

의식주 문화는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의 필요성과 특수성에 따라 혹은 산업화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특징지어진다. 의식주 문화는 다문화적 상황에서 차이를 동질성의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용이한 생활 소재이다. 이는 의식주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 인간의 삶의 양식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 나라의 의식주문화는 물론 반세기 이상 분단되어 살아 온 남북한의 의식주 문화는 동질적인 요소를 다량으로 내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같은 동질성은 다양한 문화를 소화해야 하는 남북한의 통일교육에 있어서 사회통합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의식주 다문화를 통한 통일교육은 다문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갈등을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활동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처럼 북한 관련 자료의 제시나 정보탐색의 정도를 넘어서 다양한 체험학습으로 습득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또한, 습득한 정보를 재구성하여 북한주민들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객관적인 안목을 길러 주어야 한다.

의식주를 통한 다문화적 상황은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접해 있는 생활문화이다. 이러한 문화를 학생들에게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북한주민의 입장에서 갈등을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다면 통일교육이 학생들에게 매우 흥미 있고 신나는 교육으로 전환되어 북한주민들의 생활문화를 이해하는 근간을 마련해 줄 것이다.

2) 학교생활을 통한 다문화교육적 통일교육

학교는 학생들에게 생활공간이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곳이다. 학교에서의 생활은 학생들에게 가장 관심과 흥미가 많은 생활영역으로 다양한 문화의 학교생활은 학습자들에게 높은 성취의욕과 학습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 모두 학교생활은 친근한 소재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통일교육에 있어서도 남북한의 학교생활 차이는 학생들에게 지대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즉 북한에도 체육, 조회, 사랑의 매 등이 있다는 내용으로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친근한 내용을 다루어야 한다. 주로 북한 학생들의 일과, 등교, 체육시간, 여가시간, 놀이 등을 중심으로 다루면 더 효과적이다.

이와 같은 실생활 속에서의 관련 소재를 통한 통일교육은 북한 학생들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자료화한 다음 학생들에게 참여시켜야 한다. 학생들은 북한 학생들의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통일교육에 더욱 많은 흥미를 느끼기 때문이다. 또한, 다양한 상황을 제시하여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관찰의 기회를 주어 체험기회를 확대하여 같은 또래의 북한 학생들의 삶을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고 공존의 방법을 모색하는 방편으로 삼아야 한다.

학교생활을 소재로 한 다문화교육의 통일교육은 학교상황이라는 쉬운 소재와 장소로 인해 역할극을 통해 더욱 즐겁고 재미있게 실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남북한 학생들을 둘로 나누어 서로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남북한 학생들의 수업방법을 흉내 내는 일과 같이 역할극을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3) 전통문화를 통한 다문화교육적 통일교육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외래문화의 범람과 수용으로 세계 여러 나라는 풍속의 변화를 초래하여 갈수록 다양하고 새로운 풍속이 전통문화 계승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수많은 전통문화 중에서도 현재까지 전승되고 문화가 남북한에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특히 관혼상제의 전통풍습은 이질적인 면보다는 동질적인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다. 남북한 모두 추석에 조상님을 뵙고 별초를 하고 차례를 지내는 점과 제사를 지내고 있는 점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남북한의 전통 민속놀이 계승 분야를 살펴보면 탈춤, 판소리, 남북한 음악사, 전통악기 측면에서 남북한의 동질적인 측면을 찾아볼 수 있다. 남한의 민속놀이는 봉건사회의 잔재라는 점에서 북한의 민속놀이는 인민문화라는 점에서 큰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차이에도 탈춤과 같은 소재는 남북한 문화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소재임에는 틀림없다. 남한에서 전승되고 있는 북청사자놀이, 봉산 탈춤, 은울탈춤 등은 원래 북한 지역의 가면극이었다는 점에서 남북한의 동질성을 찾아볼 수 있다.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유지하는 일은 민족공동체 형성의 조건으로 동일한 문화유산과 동일한 운명 공동체를 이루는 데 큰 기여를 한다. 이것은 민족공동체의 방향으로 통일교육이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어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체험활동 중심의 전통문화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참여와 관찰의 기회를 부여하고 민족문화의 동질성을 스스로 찾는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은 하나의 혈연적인 연계뿐만 아니라 공통된 전통문화를 소유하고 있는 문화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구성원의 의식을 깨닫게 하는 학습은 전통문화 속에서 놀이와 같은 친숙한 소재를 중심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계 속의 나와 민족 그리고 남북한의 동질성을 찾을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되기 때문이다.

3. 교수·학습자료

다문화적 접근법으로서의 통일교육에서의 교수·학습 자료는 주변의 그림 자료, 사진 등을 활용하여 인간의 권리·평등·문화의 다양성, 반편견적 접근 등으로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자료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남북한의 의·식·주, 놀이와 문화, 가족의 사랑, 소원, 주변의 생활용품 및 도구, 농촌·어촌·산촌의 생활모습, 교통기관, 동시·동화·동요, 문학, 미디어 등을 들 수 있다. 가능하면 현장에서 남북한의 국가의 이름, 지역의 위치, 국기, 역대 대통령이나 역사적 사건은 기피하는 것이 좋으며, 음식이나 의상, 특별한 날과 토산품 등의 주제를 다루는 데는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것은 통일교육에서 다문화교육의 의의가 세

계 여러 나라의 사실이나 현상을 인지하도록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반 편견적 시각에서 인간 삶의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통일교육에서 다문화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로는 사람, 장소, 시간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룬 작품이나 자원들 및 학급에서 다양성을 강화하기 위한 도서목록들, 음악, 미술, 멀티미디어 등이 있다.

통일교육에 있어서 다문화 교육은 공유할 수 있는 친숙한 소재를 중심으로 문학, 음악, 표현, 토의와 같은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연간 계획이나 주제와 자연스럽게 통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국적인 것, 무엇인가 다른 것만을 강조하거나 소개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교수-학습 방법에 있어서 세계 여러 나라와 남북한 사람들의 다양한 삶을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세심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하다.

4. 교실 환경 · 분위기

가. 교실 환경

아동들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학습 결과물에 상당한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모둠이나 친구들이 만든 작품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현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타인과의 차이를 발견하고 학습하게 되며 자신의 결과물을 비교하게 되고 다음 학습에 새로운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을 가져올 수 있다. 학습 결과물을 어디에 어떻게 게시하느냐에 따라 학습에 대한 내용과 결과도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다.

학생들은 환경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전체적으로 기능하는 역동적이고 능동적인 존재다. 이러한 학생들의 학습활동을 최대한으로 지지해 주기 위한 환경구성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다문화교육의 환경 구성도 일반적인 원리에 입각해서 구성해야 하며 발달적 적합성, 균형성, 통합성, 지속성과 융통성, 안정성을 강조하고 있다(White & Coleman, 2000).

다문화적 통일교육의 바람직한 환경 구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 자료와 교재·교구의 점검, 시각적·심미적 환경 구성, 질적인 상호작용을 위한 놀이감과 자료의 올바른 선택 등이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발달적·문화적으로 적합한 실재를 적용할 수 있는 교사의 다양한 조망능력 및 수용능력이 요구되며, 전문성 발달을 위한 조력도 필수적이다. 또한, 문화는 가치, 태도, 기술이 상호 복합적으로 연결된 삶의 양식이므로 차별을 승화시켜 차이를 인정하는 교육과정으로 끌어들이 수 있도록 폭넓은 인식과 경험이 동반되어야 한다. 여기서 교사는 다양함에 대한 수용이 독특한 것 또는 다른 것만을 선호하거나 인정함으로써 모든 가치 판단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통일교육을 위해 다문화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교실 환경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한다. 왜냐하면 다양한 문화에 대한 풍부하면서 정확한 지식을 줄 수 있는 환경은 다른 나라와 사람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족이나 인종을 접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편견과 고정관념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나. 분위기·모둠 구성

교실 속에서 다문화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습의 분위기 자체가 평화로운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교사는 우선 학습을 하나의 응집력 있는 평화 공동체로 만들 필요가 있다. 교사는 교실에 배려 문화를 도입함으로써 학생들이 서로의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다문화교육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교실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 (김국현, 2004). 첫째, 협동으로 학생들은 함께 배우고 공부하며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고 도우며 그들과 함께 자신의 것을 나누고 배운다. 따라서 협동심이 가득한 교실을 만드는 교사의 지도 기술이 요구된다. 둘째, 의사소통이다. 의사소통을 통하여 학생들은 주의 깊게 관찰하며 정확하게 의사를 전달하며, 예민하게 듣게 되며 갈등을 분석하고 기초적인 갈등해결의 실마리를 가져다준다. 셋째, 관용이다. 관용은 학생들이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존중하고 인정하며, 편견과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 것인가를 느끼게 해야 한다. 넷째, 긍정적인 감정 표현이다. 학생들은 느낌 특히 분노와 좌절을 공격적이거나 파괴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표현하는 방법과 자신을 통제하는 기술을 배우게 해야 한다.

이와 같은 교실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문화에 대한 내용을 접하고 학습하면서 협조적이고 공동체적 맥락에서 서로 돌보고 창의적으로 반응하는 방법을 배워서 슬기롭게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교육을 위해서 모둠구성은 아주 중요하다. 수업에 임하기 전에 교사는 아동들의 특성, 학습태도, 발표능력, 학급 내의 친화도 등의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모둠구성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 모둠활동의 성패가 학습결과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므로 모둠을 이끌어 가는 아동,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아동, 소극적으로 활동하는 아동들을 분배하여 모둠을 구성하여야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문화교육을 통한 통일교육에서의 교실은 남북한의 이질적인 문화를 자연스럽게 배우고 습득하며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한다. 학습할 때에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자신감과 함께 자신의 의견을 학생들이 거리낌 없이 표출할 수 있도록 학급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며 모든 모둠이 참여할 수 있는 구성이 될 수 있도록 교사는 학생 개인의 개인차를 파악하고 적절히 모둠에 배치하였을 때 다문화교육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

다. 교사의 역할

다문화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교육환경과 교육과정의 모든 측면을 통합하여 교육해야만 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교사는 환경구성 및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하는 등 그 역할은 지대하다. 마찬가지로 통일교육에서도 교사의 역할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남북한이 분단된 상황에서의 다문화교육은 교사의 역할에 더 큰 의미를 두고 강조되고 있다. 통일교육에서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사의 태도와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교사의 신념과 역할

다문화교육을 위한 통일교육을 위해서 교사는 다문화교육에 대하여 철저한 연구와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수업에 임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수업 중이나 수업 후에 아동들의 질문과 호기심에 대하여 성심껏 답하고 교육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사의 답변은 아동의 다문화적 상황인식과 개념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생각나는 대로 답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형태의 답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특히 북한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학생들은 많은 호기심과 관심을 즉흥적인 질문의 형태로 나타내기 쉽다. 따라서 교사는 통일교육을 하기 전에 철저하게 교수·학습 내용을 분석하고 적절한 자료를 수집하여 학생들에게 사실적인 내용을 전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교사들은 대부분 자신이 편견이나 고정관념에 대하여 자신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면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비디오로 자신의 행동을 녹화해 보거나 다른 교사의 관찰을 통한 지적을 수용할 수 있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교사는 다문화교육 활동을 전개할 때 다른 인종이나, 민족, 국가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야 하며, 다문화교육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이수미, 1999). 또한, 니토(Nieto)(1992)는 다문화교육을 실시하는 교사가 되는 것은 다문화적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 교사는 좀 더 원론적인 것에 대한 학습과 어떻게 그것을 사람들 속으로 그리고 상호작용 속으로 반영시킬 것인가에 대한 방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채정란, 1999). 따라서 교사 자신이 남북한 주민들에 대한 바른 이해와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남북한 관련서적 및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정보수집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연수기회의 확대나 새터민과의 접촉 등을 통해서 가장 최근의 북한의 모습을 직접 듣고 느끼면서 객관적인 자료수집이나 정보수집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다문화교육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신념을 가지고 교수·학습을 통하여 다문화교육을 통한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학습자의 모델

다문화교육의 교육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교사는 학습자의 모델이 되어 주려는 태도, 다른 사람에게서 보이는 차이점을 인정하려는 태도, 정형화된 사고를 피하려는 태도, 학습자들에 존재하는 차이를 인정하려는 태도, 학급 내에서 다양성을 발견하고 인정하려는 태도 등을 가져야 한다.

잭슨(Jackson)(1998)은 다문화교육의 가장 결정적인 단계는 다문화적 환경을 형성하기 위해서 적절한 교사를 채용하고 선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교사가 학생들의 개인차를 존중하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자세이며 다문화적 관점을 수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역할 모델링이 되어야 하며, 다양성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사는 학생을 위한 모델로서 아동들이 자신의 가치를 발달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교사의 긍정적인 모델로서의 역할을 강조하였다.(노선하, 2004). 또한, 교사는 학생의 사회·경제적인 지위, 인종이나 민족적인 배경, 종교적인 배경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이수미, 1999).

다문화를 통한 통일교육에서 긍정적인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잘한 점에 대한 칭찬과 보상을 적절히 해주어야 한다. 발표를 잘하거나 조사활동을 잘해 온 모둠에 대해서는 칭찬과 보상을 적절히 해주는 것이 아동들의 학습동기 유발에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문화교육을 통해 통일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모둠이나 개인에게는 칭찬스티커 배부, 오늘의 통일 박사 임명, 통일 발표왕, 통일 조사대장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상체계를 갖추어 아동들의 학습의욕고취에 힘을 불어주어야 한다.

3) 교사의 부단한 노력

스팍스(Sparks, 1992)는 좋은 교수란 교사가 교육에 대한 열망과 학생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관심을 가질 때 발생한다고 하였으며, 교사에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이 요구된다고 보았다.(이은하, 1999).

첫째, 학급에서 학생이 활동하는 내용과 표현하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사는 학교 환경과 지역사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인식해야 하며 변화를 수용하고 정보를 수용할 수 있는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셋째, 교사는 학생들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변형시킬 수 있는 기술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어떠한 교육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교사의 끊임없는 노력 없이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없다. 다문화교육적 접근을 통한 통일교육에서도 교사의 부단한 연구와 노력 없이 좋은 결실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교사는 발달적 또는 문화적으로 적합한 실체를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역할채택 능력을 가져야 한다. 교사는 학습자들이 스스로 차별적 행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다른 사람에 의해 상처를 받았을 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신체적이거나 언어적인 공격을 받았을 때 스스로 중지시키기 위한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또 우연히 일어나는 교육적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 특히 남북한 주민들이 만났을 경우에 소외받는 사람들이 보다 긍정적인 자아개념과 태도를 가지도록 돕고 그들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에 대해 학습자들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교육해야 한다.

VI. 결론

분단 이후 고착된 남북의 문화적 차이는 생활 세계의 차이를 가져왔고, 상이해진 사회 제도는 이제 완전히 다른 체제로 굳어졌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사회는 이주민의 증가로 빠르게 다문화 사회로 변모되고 있다. 따라서 개방적이고 관용적인 이해 및 태도 확립은 절대적으로 요구되며, 다문화에 대한 교육적 접근을 필요로 하고 있다.

다문화교육은 이질적인 사회체제 속에서 살아 온 남북한 동포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통일교육적 내용을 포함한다. 이에 맞추어 향후 통일교육은 북한 주민과 새롭게 편입되는 이주자들에 대한 다문화주의적 사고·태도·행동을 발달시키는 교육이어야 한다. 또한, 다름을 이해하고 공존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다문화 이해의 관점을 통해 북한을 이해시키고 통일 의식을 함양하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와 같이 통일교육에서 다문화교육적 접근은 객관적 북한 이해, 문화적 다양성 함양, 민족 정체성 형성에 있어서 유용한 점이 발견된다.

이와 같은 유용성을 고려할 때 다문화 시대의 통일교육은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요구한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교육 대상 범주 설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은 통일교육의 대상이고, 결혼 이민자와 이주 노동자는 다문화교육의 대상 범주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탈피하여, 이방인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확대된 교육 대상 범주 설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둘째, 통일·다문화 교육과정 통합 노력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이를 위해 교육 내용 요소 측면에서 교육 대상별 주 교육내용과 보조 교육내용으로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유용하다. 셋째, 과거 '민족공동체'의 개념을 '국가공동체'의 개념으로 재개념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 민족 중심의 편협한 사고와 논의에서 탈피하여 새롭게 구성되고 있는 다문화 국가로서 국가 중심의 거시적인 사고와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은 국가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개인의 가치와 태도, 신념 등을 조절해 나갈 수 있는 국가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통일은 모든 방면에서 남북한 주민들이 다양성에 기초하여 동질적인 삶의 문명을 공유하고 국가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화 속에서 남북한의 이질적인 문화적 차이의 현실과 북한이탈주민과의 공존이 가시화 되면서 이제 다문화교육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통일교육은 구체적이면서 다양성을 추구하는 다문화교육을 수반해야 한다. 결국, 다문화 사회의 심화라는 현실 변화를 고려할 때 통일교육은 국가 내적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추병완, 2011, 72). 통일교육은 북한 주민에 대한 민족적 동질성을 함양하면서 세계화로 인하여 한국인의 범주에 새롭게 편입되는 이질적인 사람들에 대한 편견적 사고, 태도, 행동을 극복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세계화와 함께 한국 구성원의 다양한 변화와 많은 북한 동포들이 탈북하여 공존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보더라도 다문화교육적 통일교육은 그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보여 진다.

<참고문헌>

1. 교육과학기술부(2009), 「2009년 개정교육과정 도덕과해설서」, 서울: (사)장애인연합회.
2. 김국현(2011), “다문화 도덕과 교육과정과 통일교육”, 「도덕윤리과교육」 제32권, 157-183.
3. 김미숙(2002). "남북한 교과서에 나타난 민족정체성", 「교육사회학연구」 제12권 제1호.
4. 모경환 외(2008), 『다문화교육 입문』, 서울: 아카데미 프레스.
5. 박명규(2009), “다문화주의와 남북관계: 이론적 쟁점과 현실”, 「국제이해교육연구」 제4권 제2호, 5-32.
6. 박성혁(2001), “21세기 한국 사회의 변화와 사회과교육 내용 요구에 관한 연구”, 「시민교육연구」 제32권 제1호, 131-150.
7.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2011), 「2011 통일의식 조사발표 통일의식과 통일준비」, 학술심포지움 자료집.
8. 양승현(2007), “통일교육의 다문화교육적 접근에 관한 연구”, 춘천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 오기성(2008), “학교통일교육의 다문화교육적 접근,” 『교육과정평가연구』, 제11권 제 2호.
10. 전재영(2010), “다문화시대의 통일교육 패러다임 탐색”, 「동포논총」 제10집, 73-93.
11. 정탁준(2007), “다문화교육의 도덕과 교과교육적 적용에 관한 연구,” 『교육과정평가연구』 제10권 제1호.
12. 정희태(2010), “중학교 도덕과 통일교육에서의 다문화교육적 접근”, 「통일전략」 제10권 제1호, 271-301.
13. 추병완(2009), “학교통일교육에서 다문화교육 접근의 타당성”, 『도덕윤리과교육』 29, 21-42.
14. 추병완(2011), “학교통일교육, 다문화 시민 양성 모색해야”, 「통일한국」 2월호, 72-73.
15. 추병완(2011), “글로벌·다문화 시대에서 도덕과교육의 과제”, 「도덕윤리과

교육」 제33집, 51-70.

16. 황인표(2005), “통일교육론의 체계화와 도덕과 교육 적용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7. <http://www.kbs.co.kr/1tv/sisa/tongil/program/index.html>. 2011년 9월 19일 검색.

2012 학교통일교육발전 워크숍

국민적 통일준비 확산을 위해 찾아가는 통일교육

발제자료 II

참여와 공감의 통일교육의 실천적 성찰

심근석 | 상모중학교 교사

참여와 공감의 통일교육의 실천적 성찰

심근석 (상모중학교 교사)

- I. 논의의 맥락 정하기
- II. '참여'와 '공감'의 학교 통일교육의 실천
- III. 참여와 공감의 학교 통일교육의 일반적 진실
- IV. 새로운 세계 질서 속에서의 가능성과 한계

I. 논의의 맥락 정하기

교사는 추상적 안목과 구체적 실천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합니다. 추상적 안목이 구체적 실천을 규정하기도 하고, 구체적 실천을 통해 추상적 안목이 일반화되기도 하는 그런 相補的인 활동을 통해 교육 현장은 진보해 가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 글에서의 통일교육 논의는 이러한 안목과 실천의 상보적인 관계 속에서 구체적 실천 노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기 성찰을 하는 보통의 교사로서 '바람직한' 통일교육을 일관되게 실천하는 교사에게는 '바람직한' 통일교육 안목이 형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실천하는 통일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 평가에 관한 이유를 논리적 모순 없이 제시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특정한 안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통일교육을 실천하는 교사의 안목은 학교 현장에서의 실천을 통해 그 안목이 다듬어지고 수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불가피한 일이란 것을 선생님들께서도 아시리라 믿습니다. 결국, 이러한 통일교육 교사의 활동은 통일교육에 대한 안목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고, 현장에서도 더욱 실효성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이 글은 통일교육을 실천하는 교사들 사이에서만 제대로 본격적일 수 있는 논의의 수준을 드러내길 희망합니다.

몇 년 전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통일 영상 감상문 대회 결선 작품들을 심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선을 통과한 작품들에는 예심을 하신 심사위원 선생님들께서 부여한 기본 점수들이 매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선 심사위원들이 참고하기 위해 요구하면 해당 작품의 점수와 순위를 주최 측에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중학생 최우수 작품 선정을 두고 심사위원 사이에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상대가 추천한 최우수 작품을 결선 작품 중에서도 아주 낮은 순위로 평가한 것입니다. 저와 함께 심사해 주신 심사위원님은 통일교육의 전문가셨습니다. 이 분이 추천하신 최우수 작품은 내용의 객관성과 논리성이 돋보이는 빼어난 글이었습니다. 제가 추천한 작품은 느낀 점을 학생 자신의 삶에 투영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다가오는 다짐과 고민을 담고 있는 다소 주관적이지만 진실한 글이었습니다. 참고하기 위해 예선에서 받은 점수를 보니 전자의 작품은 비교적 낮은 점수를, 후자는 아주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선 심사를 담당했던 사람들은 모두 교사였습니다.

이처럼 다른 가치 지향은 그 사람이 종사하는 일의 성격에 의해 주로 결정됩니다. 사고의 최첨단에서 통일교육에 대한 추상적인 개념 지도를 그리는 분들이 계셔야 하듯이, 이러한 개념 지도를 프로그램, 콘텐츠로 구현하여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 내는 일을 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개념 지도는 정치적 지향이나 특정 가치관에 의해 당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문학적 상상력과 사회과학적 방법론에 따라서 학문적으로 정립되는 것입니다.

통일이라는 한시적이고 제한적 상황 속에서의 정치적 과제가 과연 보편적인 학문의 대상이 될 필요가 있는가 혹은 될 자격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일은 통합과 평화라는 더 큰 범주 안에서 논의될 때 객관적인 설득력을 더 얻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반도 통일 없이는 대한민국의 통합과 평화도 항상 불안정할 것입니다. 반대로 사회적 통합과 평화 없이 한반도 통일도 실효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통일과 평화·통합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이처럼 통일에 대한 추상적 안목으로서의 개념 지도는 좀 더 폭넓은 학문적인 탐구로 객관적으로 정립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학문적으로 정당화되는 바람직한 통일 안목은 통일교육을 실천하는 교사들의 실천적 안목이 되어주고,

또 통일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소박한 안목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목이 학문적으로 정당화되는 일은 통일교육의 방향과 구성 뼈대를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이 글은 1990년대 후반부터 일관되게 통일교육을 의미 있게 실천해 온 경험을 성찰함으로써 통일교육에 대한 나름의 핵심 개념과 교육의 과정에 적용될 수 있는 약간 일반화된 원칙들을 추상해 볼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어보면 통일교육에 대한 모종의 안목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글의 일차적 목적은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각도로 통일교육을 실천해 온 경험을 성찰함으로써 어느 정도 일반화될 수 있는 진실을 나누는 데 있습니다.

말미에는 지금까지의 실천과정에서 얻어진 일반적인 진실이나 지혜를 오늘날 시대적 상황 속에서 점점 부각되는 다문화 사회의 반 편견 교육이나 평화 교육의 모색에 비추어 그 가능성과 한계를 짚어볼 생각입니다.

II. 참여와 공감의 학교 통일교육의 실천

1. 학교 통일교육의 두 개의 삶: 주관적 친밀함과 객관적 거리감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인간관계를 바르게 맺는 일은 사회적 세계 속에서 진실을 제대로 인식하는 일과 비슷한 형식을 가집니다. 일단 그 대상이나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주어진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문화라면 상대편 문화의 입장에서 주어진 사회적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는 태도입니다. 그다음은 보편적 혹은 도덕적 가치의 관점에서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이성적인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주어진 현실을 이해하고 수용하려고 노력하되, 보편적 가치의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러해야 합니다. 저는 주관적 친밀함을 '관심'으로 객관적 거리감

은 ‘비판’이란 말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학교 통일교육도 마찬가지로 아닌가 합니다. 학생들이 통일 및 북한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관심과 비판의식을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발적인 마음의 상태는 당위적인 설득이나 교화를 통해서 달성할 수 없습니다. 학습자 스스로 마음을 열고 공부를 하여 스스로 그러한 마음 사태에 도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학교와 교사는 학습자에게 그러한 마음의 상태에 도달하도록 본격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통일교육의 과정에서 교사가 만나는 첫 번째 난관은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과 선입견입니다. 그래서 학교 통일교육의 과정에서 첫째 시도는 학습자가 선입견을 깨고 통일 문제나 북한·북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주어진 사실들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되, 학생들의 흥미를 잡아둘 수 있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학생들이 어느 정도 북한이나 통일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들 스스로 자기의 생각을 말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평가해보게 합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학생들이 보편적 가치의 관점에서 판단을 내리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도덕성의 발달이 미숙하여 아직 보편적인 도덕 원리를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학생의 발달 수준에 맞추어서 논의를 이끌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덕적인 정당함’을 ‘타인으로부터의 칭찬’ 등으로 평가 기준의 수준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통일이나 북한 문제에 대하여 주관적 친밀감과 객관적인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주어진 학습의 준거를 달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학교 통일교육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한 학습의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학습자의 참여와 공감입니다. 참여는 학습자가 수동적인 상태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학습 과정에 개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책을 읽을 때도 그냥 주어진 정보와 거기에 수반되는 감정과 생각을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책 읽기가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이 책을 읽고 나서 감상문을 쓰거나 다른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근거로 삼기 위해서 책을 읽게 된다면 책 읽는 자세가 사뭇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을 능동적인 책 읽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 통일교육에서 학습자가 참여하는 수업과 활동은 마치 능동적인 책 읽기와 같은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질문을 품는 학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해를 바탕으로 또 다른 심화된 물음을 가지는 그런 학습 말입니다.

공감은 '긍정적으로 확 와 닿는 그 어떤 것'입니다. 공감은 무관심과 선입견이라는 단단한 벽을 흔들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논리적 설득은 그 다음의 일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료를 정직하게 제시하되, '민족동질성 회복' 혹은 '점진적 평화적 통일'이라는 바람직한 통일 안목을 공감할 수 있는 자료의 질과 구조화가 요구됩니다. 공감은 학습자의 선택 사항이지 교사가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감은 맹목적인 수용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공감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감(sense of morality)에 의해 펼쳐지는 도덕적 상상력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공감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도덕성의 수준에서 최선의 도덕적 잣대가 암암리에 적용되면서 감정적인 이끌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공감'이라는 마음의 상태에도 주관적인 친밀감과 객관적인 거리감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참여와 공감은 서로 상승 작용을 합니다. 참여하면 공감이 생겨나고, 공감이 커질수록 참여의식도 높아지는 그런 식입니다. 학교 통일교육에 있어서 한 차기의 수업이나 활동이 아니라 전체적인 수업이나 활동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참여'와 '공감'은 그 수업이나 활동 계획이 얼마나 성공하였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준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 '참여'와 '공감'의 학교 통일교육의 실천

가. 동영상 활용

동영상은 통일교육에서 학습자의 흥미를 끄는 동기 유발과 간접 체험의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물론 학생들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설득하려는 영상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재미있게 보여주는 영상들을 주로 선택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의 집단주의를 설명하는 영상보다는 집단체조나 집단 노동의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북한 정치의 이질성을 설명하기보다는 ‘신기한 판문점 안개’라는 북한 뉴스를 우선 보여주었지요. 그리고 설명은 학습자와의 대화와 교사의 보충 설명 등을 통해서 해명되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다큐멘터리 영화 『어떤 나라』를 시청하면서 ‘왜 성연은 빨간 머플러를 하고 현선은 하지 않고 있는가?’, ‘왜 성연이 언니는 군대에 자원입대했을까?’ ‘북한에서 집단체조를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현선이나 성연이 가정에 초를 향시 준비할까?’, ‘북한을 누구를 의식해서 공습대비훈련을 하고 있을까?’, ‘현선과 성연에게 북한 지도자는 어떤 존재일까?’, ‘성현이 영어 수업을 우리와 비교하면 어떨까?’ 그리고 이 영화를 다 보고 난 후 ‘이 영화의 유익한 점과 한계는 무엇일까?’ 등을 묻고 대답하는 과정에서 북한 사회의 모습들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MBC에서 편집 방송한 『어떤 나라』에는 북한의 선전 선동에 일방적으로 활용되는 듯한 장면들은 다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영화 『크로싱』이 힘든 하층 북한 주민의 삶을 다루고 있다면, 영화 『어떤 나라』는 평양의 비교적 안정된 중산층 주민들의 삶을 보여줍니다. 두 가지가 다 북한, 그리고 북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학생들의 반응이 좋아서 제가 많이 활용한 동영상 클립들을 단편적으로 소개해 보겠습니다.

① 동영상 클립 소개

앞서 언급하였듯이 동영상 보는 것만으로 수업이 끝난다면 동영상에 설명과 바람직한 결론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좋지만, 교사가 수업이나 활동을 하는 장면에서는 가급적 영상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영상을 보는 도중에 해당 장면을 멈추고 학습자들로 하여금 말하게 하고 교사가 피드백을 준다든지, 혹은 동영상 학습지 풀기 등을 통해서 그 영상의 맥락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목 (방송 제목, 방영 일자)	제작	길이	형식	내용
통일 콘서트	통일교육원	41분 38초	개그콘서트	분단배경, 통일필요성, 국가안보의식, 통일비용과 편익, 통일의 올바른 이해
헤미와 북한에서 온 친구	통일교육원	14분 57초	애니메이션	북한이탈청소년과 이웃하기
통일 리포터, 통일 독일 가다	통일교육원	29분 36초	리포트	청소년의 시선으로 바라 본 통일 독일
미리 보는 통일 한국, 통일 경제 (중국)	통일교육원	10분 57초	분석 보도	남북한 자원 협력의 이점
남북한 문화 이해 1~16	통일교육원	각 5분	가상 상황	남북한 주민들이 만났을 때 문화적 차이로 벌어질 수 있는 상황 설정
통일에 대하여 말하다	통일부 UCC 공모작	30초	공익 광고	북한에 대한 관심
꿈은 이루어진다.	통일부 UCC 공모작	59초	공익 광고	통일이 된 후 이루어질 나의 구체적인 꿈 나이별로 찾아본다.
어떤 나라 (A STATE OF MIND)	다니엘 고든	50분 (MBC 편집)	영화	평양 중산층 학생의 학교, 가정생활
크로싱	김태균	105분	영화	북한 주민의 고단한 삶, 북한이탈주민의 슬픈 진실
노래로 확인하는 한민족 공동체 (편집)	SBS, KBS, KBS2	02분 42초	다큐, 오락	남과 북 해외 동포들이 같은 노래를 부르는 현장을 찾아감.
2022년 3월5일 가상 뉴스 (한반도 대기획 통일을 준비한다. 2011. 3. 6 방영)	KBS	03분 57초	뉴스	KBS 9시 뉴스와 같은 형식으로 생생하게 진행함.
신비한 관문점 안개 (남북의 창, 2006. 6 18 방영)	KBS	01분 25초	북한 뉴스	북한 정치의 이질성, 지도자 신격화
민족 분단의 배경, 과정(편집) (20세기 한국사 해방 10편, 반도로부터의 해방, 1999. 9. 14 방영)	KBS	14분 17초	다큐	분단의 원인을 구한말까지 거슬러 올라가 심층적, 객관적으로 분석해내는 특히 고등학생에게 아주 적합한 자료

제목 (방송 제목, 방영 일자)	제작	길이	형식	내용
전쟁과 인간 (편집) (한국전쟁 영상 기록, 2005. 06. 25 방영)	KBS	41분	다큐	인간의 존엄성이란 보편적 가치의 관점에서 솔직하게 6.25 전쟁을 기록함.
이산가족의 만남 (편집) (남과 북, 그 만남의 파노라마, 2007. 10. 1 방영)	KBS	2 분 30초	다큐	다큐지만 아이들이 빠져드는 영상 이산의 아픔을 보여주는 영상의 종결자
남과 북, 그 만남의 파노라마 (편집) (스페셜, 2007. 10. 1 방영)	KBS	42분	다큐	남과 북 사람들의 만남과 교류가 과거에서 현재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확인할 수 있음.
대한민국 - 토고 월드컵 북한 TV 중계방송 (남북의창, 2006. 6. 25 방영)	KBS	2 분 21초	중계방송	남북한 언어 차이
개성공단 24시 (VJ 특공대, 2007.9.9 방영)	KBS2	13분	다큐	개성공단에서 남녀 근로자들이 함께 땀 흘리며 협력하는 모습
보통 사람 (지식e, 2007. 6. 25 방영)	EBS	5분	다큐	탈북 청소년의 남한 생활
북한 애니메이션의 특징과 소개 (폐방)	iTV	28분	만화영화	북한 만화 영화의 종류와 대표작 소개
남과 북, 함께 부르는 노래 (편집) (스페셜, 2001. 6. 10 방영)	KBS	13분	다큐	북한에서 남한 사람들과 같은 노래를 부르는 현장들을 찾아감.
왕룡사 할아버지의 47년 망향가 (편집) (6.25특집, 1999 6. 25 방영)	KBS	30분	다큐	이산의 한을 안고 살아 간 한 남자의 감동적인 일생

② PPT 수업자료에 삽입된 동영상 소개

교과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기보다는 학생들의 흥미를 끌기 쉬운 영상들을 중심으로 배치하여 주제 중심의 수업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자료들은 전체적인 수업과정을 다 담고 있는 자료입니다. 물론 삽입된 영상이 중심 자료입니다.

제목 (시간)	삽입된 영상과 출처	내용
마음 열기에서 시작하는 통일 (10분)	PAPEPOPO 만화	마음이 열려야 통일의 문도 열린다.
	북한의 학교생활(편집), 통일교육원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 본 북한의 학교생활
	평양 제1중학교(편집), EBS 코리아코리아	평양 제1중학교와 부속 소학반 학생들과의 만남
	다섯 글자, UCC 동영상, 통일부	민족애로 마음 열기
변화하는 북한 (변화하려는 북한과 변화하지 않으려는 북한) (45분)	영화 '어떤 나라'MBC (편집) 1분48초	대집단체조 공연, 집단주의
	시장, 북한을 바꾸다, KBS(편집) 2분39초	생활 방식의 변화
	시장, 북한을 바꾸다, KBS(편집) 2분	일한만큼 벌고, 번만큼 쓴다.
	시장, 북한을 바꾸다, KBS(편집) 4분16초	변화의 중심, 시장
	시장, 북한을 바꾸다, KBS(편집) 2분14초	경제개선조치와 변화
	해외의 북한 노동자들, KBS(편집) 6분	개방과 변화, 해외에 나가 있는 북한 노동자
	남북의 창, KBS (편집) 1분9초	남한의 드라마, 영화 시청으로 인해 북한에 부는한류 바람
	시장, 북한을 바꾸다, KBS(편집) 1분1초	사회주의 기강을 지키려는 북한의 고민
2007남북정상회담의 만남, KBS (편집) 취재파일 4321, KBS (편집)	6 분 27초 좋은 변화를 만들어가요.	
북한 영화 속 북한 주민 생활 (45분)	남북문화이해지8, 통일교육원 (편집) 3분 43초	남북한 사람들의 영화를 보는 시선의 차이를 가상 상황을 통해 보여줌.
	북한 영화의 특징, 그리고 한류 바람, KBS • SBS (편집) 3분8초	북한 영화의 특징과 북한 주민들의 남한 영화나 드라마 시청으로 인해 북한 주민들에게 확산되는 한류 바람
	북한 영화 『구봉령 일가』, MBC 9분	정치성이 짙은 영화
	북한 영화 『청춘이여』, MBC 10분30초	생활 오락 영화

- 그 밖의 영상 수업 PPT 자료
 - ▶ 북한 노래 속 북한 주민 생활
 - ▶ 영상으로 떠나는 분단 속 통일여행
 - ▶ 북한의 영화와 방송 속 북한 학생 생활
 - ▶ 서울말 평양말 게임

③ 영상 수업 지도안

앞에서 소개된 영상이 삽입된 PPT 자료의 수업 지도안을 하나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업의 전체적인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도안 작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업 후 개선해야 할 점들을 이 지도안에 반영하면 아주 소중한 수업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북한 영화 속 북한 주민 생활

1. 강의 개요

- 가. 대상 : 중학생
- 나. 시간 : 45분
- 다. 주제 : 북한 영화 속 북한 주민 생활
- 라. 학습목표
 - 1) 남북한의 영화의 특징을 비교할 수 있다.
 - 2) 북한 영화 '구봉령 일가'와 '청춘이여'를 보면서 북한 주민 생활 및 생 각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 3) 북한 주민을 대하는 바람직한 방식을 내면화할 수 있다.

2. 강의 내용

슬라이드		주요내용	자료영상 또는 사진	예상시간
번호	주제			
2	목차	강의의 순서 소개		30초
3	영화에 대한 남북한 생각 차이	북한 출신 신랑과 남한 출신 신부가 '결혼이야기'란 비디오를 빌려보면서 신부 선회는 재미있어하는데, 신랑 영철은 재미없어한다. 왜 그럴까? (가벼운 분위기, 남편에게 신부가 대드는 듯해서)	- 그런 영화가 뭐가 재미있어! (3'43") (남북문화이해지, 통일부, 2006)	4분
4	북한 영화의 특징, 그리고 최근 한류 바람	북한 영화와 영화배우의 소개, 그리고 최근에 불고 있는 영화와 드라마를 통한 한류 바람, 사상 이완을 막으려는 북한 당국의 고민을 엿볼 수 있다.	- 북한 영화의 특징, 그리고 한류 바람(3'8") (KBS & SBS, 2007)	4분
5	남북한 영화 특징 비교	도표화 비교		2분
6	불 영화 소개	이른바 혁명 영화 '구봉령 일가'와 생활 영화 '청춘이여' 간단한 소개		2분
6	영화 감상1	구봉령 일가	- 구봉령 일가 (9'15") (MBC, 2008)	9 분 30초
7	영화 감상2	청춘이여	- 청춘이여 (10'27") (MBC, 2008)	11분
8	날말 퍼즐	날말 퍼즐 같이 하기		8분
9	영화 속 북한 사람	북한 사람 하면 떠오르는 생각은? (집단주의, 지도자와 당에 충성, 고단함, 소박함, 개방적 사고에 조금씩 접함)		2분
10	북한 사람 만나기	이런 북한 사람을 어떻게 만나요? (바로 알기, 차별하지 않기, 차이는 존중, 비슷한 점은 키워나가고, 진심으로 만나야죠.)		2분

3. 지도 시 유의사항

- 가. 낱말 퍼즐은 영화 내용에 밀접한 내용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 나. 영화가 현실 그 자체가 아니지만, 어떤 식의 현실을 반영한다는 것, 그래서 무엇을 강조하는 현실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지 알아챌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한다.
- 다. 정리 단계에서는 또 다른 아이디어를 학생들에게 발문하고 확산한다.

[참고자료]

1. 북한 영화의 특징

영화는 일반대중을 상대로 호소력이 강하기 때문에 사회주의국가에서는 중요시하는 예술분야이다. 특히 북한은 영화를 <직관예술> 이라 하여 선전·선동 효과를 증진시키는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보고 어떤 예술장르보다 중요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영화의 사회적 기능에 대하여 우리는 "건전오락의 육성과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반하여 북한에서는 "인민대중을 사상적으로 무장하여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자주적 실현을 위한 투쟁으로 조직 동원하는 계급혁명의 사상적 무기"라고 규정함으로써 영화가 주민교양의 중요한 수단임을 알 수 있다.

즉 영화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적 창작방법에 입각하여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고도로 발양하도록 제작되어야하며 당의 정책노선을 관철하기 위한 무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와는 달리 영화가 해야 할 일과 갖추어야 할 이상적인 형태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져 있다. 예컨대 남녀간의 사랑, 친구간의 우정, 가정과 직장에서의 갈등까지도 극적 감동의 효과를 위한 하나의 촉매제일 뿐 결론은 오로지 위대한 수령과 당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다.

또한, 선과 악을 지나치게 작위적으로 구분하거나 대비시켜 관객의 눈물을 강요하는 등 신파조의 요소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그뿐만 아니라 서방영화의 주요 기능인 오락성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작품소재나 주제 선택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결국 김일성 부자 이상화와 체제옹호를 위한 선전·선동의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영화의 특성은 북한사회주의헌법, 김일성 교시 그리고 김정일이 저술하였다는 <영화예술론>에 잘 나타나 있다.

2. 북한 주민의 여가 활동으로서의 영화 감상

영화(연극) 감상은 북한 주민이 전통적으로 즐겨온 여가 활동이다. 과거 사회가 안정되었을 때 북한 주민들의 연평균 관람 횟수는 8~9회에 달하였다. 오미란, 홍영희 등 인민 배우는 거의 장성급에 해당하는 월급에 방 2칸짜리 주택을 배정받으며, 화장품과 의복 구입용 활동비가 따로 지급되는 등 특혜가 주어진다. 평양을 중심으로 일부 청소년들이 팬레터(“공연축하 성과 편지”)를 보내기도 한다. 과거에는 단체로 극장에서 관람했는데, 최근 단체 관람의 빈도는 급격히 떨어졌다.

3. 북한 영화 배우

인민배우, 공훈배우 아래로 1~8급, 무급 배우 해서 총 11등급이다.

4. 영화 '민족과 운명'

김정일의 지도로 창작된 북한 최대의 다부작(多部作) 예술영화이다.

조선예술영화촬영소에서 제작했으며 제1, 3, 4부는 조선2·8예술영화촬영소와 공동으로 제작했다.

처음에는 남한 출신의 월북자나 친북 성향의 사람을 소재로 삼았지만, 이후에는 북한의 혁명가, 노동자, 카프 작가 등을 그리고 있다. 최덕신을 모델로 한 최

현덕편(제1~4부), 최홍희와 그의 아내를 모델로 한 차홍기·홍영자편(제6~10부), 이인모를 모델로 한 이정모편(제11~13부), 윤이상을 모델로 한 윤상민편(제5, 14~16부), 허정숙을 모델로 한 허정순편(제17~18부), 귀화 일본인 여성을 그린 임은정편(제19~24부), 강태관 일가를 다룬 노동계급편(제25부 이후), 김일성과 연계되지 못한 카프의 비극을 그린 카프 작가편 등이 제작되었다.

이 작품은 북한에서 조선의 낫과 기상, 향취가 넘치는 걸작이라는 극찬을 받고 있으며 지금도 50부 완성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이 작품에 깃들여 있는 이른바 '조선의 낫'은 다름 아닌 당과 수령과 인민의 일체가 곧 세계 제일이며, 그들의 사회주의 조국이 제일이라는 이른바 '조선민족 제일주의 정신'이라고 주장한다.

이 시리즈는 창작방법도 특이하다. 대체로 시나리오가 완성되면 논의를 거쳐 연출 대본을 만든 다음 제작에 들어가는 것이 상례이다. 그러나 김정일은 이러한 관례를 깨뜨리고 작품의 '종자'(핵심 소재), 구성, 줄거리가 합의되면 시나리오를 쓰는 즉시 제작진들이 일일이 의견을 주고 완성시켜 감독에게 장면별로 넘겨주도록 하는 특별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 영화에 대한 열의를 드러냈다.

5. 영화 '구봉령 일가'

- 제작처 : 조선예술영화촬영소
- 제작년도 : 2002년
- 상영시간 : 85분
- MBC 편집 : 9분15초

<줄거리>

- 평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구봉령에는 한평생 그곳을 지키는데 보낸 주인공 어머니와 그 가족들이 살고 있다. 그들의 당에 대한 충성심과 사랑을 보여주는 영화
- 구봉령을 지키는 도로관리가족 소대원들은 맡은 바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면서 나라의 안녕과 평온만을 바라며 살고 있다.

- 우연히 길옥의 마차를 얻어 타고 온 정철은 그녀의 일을 도와주면서 열심히 일하는 길옥의 모습에 호감을 갖게 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사랑을 이루게 된다.

<특징>

- 북한의 열악한 도로 사정과 교통수단
- 최고 지도자에 대한 맹목적, 절대적인 충성
- 개인의 행복보다 당과 국가에 대한 헌신을 강조함.

6. 영화 '청춘이여!'

- 제작처 : 조선예술영화촬영소
- 제작년도 : 1995년
- 상영시간 : 92분
- MBC 편집 : 10분27초

<줄거리>

- 역사학을 전공하는 기호는 고구려 시기의 태권도에 대한 논문을 쓴다. 어머니는 기호가 30살이 다 되어도 장가 갈 생각을 하지 않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하며 딸들에게 신부감을 소개해보라고 한다.
- 그러나 체육을 전공한 딸들인지라 체육관에 다니는 여자들만 소개하고 어머니는 체육을 하는 여자를 별로 맘에 들어 하지 않는다. 그러던 중 기호는 은옥을 좋아하게 되는데 그는 그녀가 수예가인 줄 알았던 것이다. 그러나 은옥은 태권도 선수였고 모자는 마음에 동요를 일으킨다.
- 그러나 은옥이 땀을 흘려가며 열심히 훈련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은옥이 국제 대회에서 1등을 해서 국위 선양하는 모습을 보고는 두 모자는 은옥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특징>

- 맞선과 남녀 간의 데이트라는 가벼운 소재로 하여 밝고 경쾌한 분위기의 영화
- 북한의 결혼관 및 직업관을 영화 속 등장인물들을 통해 알 수 있음.
- 이를 통해서 여성의 직업에 대한 선입관을 버리고, 또한 체육에 대한 자긍심과 올바른 의식을 갖도록 함.
- 북한의 체육에 대한 인식과 그 현실을 엿볼 수 있음.
- 평양 젊은이들의 데이트 장면 등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7. 두 영화를 통해 볼 수 있는 것

선전의 효과 극대화 (인위적 설정):

(구봉령일가)

- 외동딸 길옥이 시집 갈 생각하지 않고 산골에서 도로 관리원으로 일하겠다고 함
- 노동당 간부 외아들이 해군을 제대하고 산골로 도로 관리원으로 일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왔다. 길옥은 사랑 대신 구봉령을 선택함, 그러나 둘은 결혼하여 구봉령 도로관리소대에 합류함

(청춘이여)

- 5명의 딸이 모두 체육선수임.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 :

(구봉령일가)

- 산길을 관리하는 가장 큰 목적 : 언젠가 김정일 위원장이 이 산길을 지나가는 것
- "(길에 난 바퀴 자국을 만지면서) 이 불편한 길로 우리 장군님께서 정말 지나가셨을까..." 하는데...(소대원들이 달려와) "장군님을 만나 뵈었다."란 말에 "울떡인다."

사회 상황 :

(구봉령일가)

- 도로 상태가 나쁘다. 교통수단 및 장비가 턱 없이 부족하다. 그만큼 도로 관리가 국가 발전에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청춘이여)

- 체육을 장려하는 국가 정책과 사회 분위기 아버지가 앞치마를 하고 감자를 꺾는다든지, 여자가 건달로부터 남자를 구해준다는 등, 전통적인 여성상과 가부장적 사고에서 벗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북한 말 알아보기

서울말 평양말			통일이후 가상 재현 상황에서 남북의 언어 차이로 인한 갈등을 확인하고, 갈등 해소를 위해 준비할 일을 찾는다.
수업 형태	동영상 시청 날말 퍼즐 놀이	수업 자료	서울말 평양말 모음 8개 (EBS 통일의 길, 2000년) 함용대, 한글십자말풀이게임 1.0 HCROSS, 1997
포인트	통일이후 가상 재현 상황 영상을 보고, 북한말 십자말풀이게임을 한다.		
활동의 과정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이탈주민들이 남쪽 생활에서 가장 생소한 것이 우리가 쓰는 언어라고 한다. 그리고 우리가 북쪽 방송 아나운서들의 말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오늘은 통일 이후 가상 상황을 재현해서 남북의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갈 때 언어가 다름으로 인한 혼란을 보여주는 영상이다. 영상을 보고 우리가 이해 못하는 북한 사람들의 말을 맞추어 보자.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상을 재생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말평양말① : “가슴을 가라앉혀 달라니까요.” -위염, 위계양-가슴쓰린 병, 진정제-가라앉힘약, ■ 서울말평양말② : “신혼여행 다녀와서” -이신작척 : 술선수범, 일없다 : 괜찮다, ■ 서울말평양말③ : “대학가기 바쁘지 않네?” -골이 좋다 : 머리가 좋다.뚝뚝하다, 밤사교구락부 : 나이트클럽, ■ 서울말평양말④ : “음식용어가 달라서” -찜계 : 반찬, 남새혼합지짐 : 빈대떡, ■ 서울말평양말⑤ : “통일 이후 미장원에서” 	

	<p>-함박꽃머리 : 뒷머리를 올려서 고정시키는 여성스타일 머리, 머리인두 : 고데기, 파장 : 웨이브, (머리를) 고정시키다 : 굽다,</p> <p>■ 서울말평양말⑥ : “여성의 멋내기 용품 중에서”</p> <p>-스킨로손 : 살결물, 밀크로손 : 기름크림, 마스크라 : 눈썹막, 화운데이션 : 분크림, 립스틱 : 입술연지, 외출복 : 가름옷, 원피스 : 달린옷, 투피스 : 동강옷, 스타킹 : 살양말</p> <p>■ 서울말평양말⑦ : “안전벨트를 무엇이라고 하나”</p> <p>-안전벨트 : 걸상띠, 횡단보도 : 건늬길, 인도 : 걸음길, 자동차운전면허증 : 운전사자격증, 교통경찰 : 교통안전원, 백미러 : 후사경, 핸들 : 길잡이축 혹은 조양이, 브레이크 : 자동차정거대, 깜박이 : 방향등, 모터 : 기관, 걸어다닐 때 두 다리 : 11호차</p> <p>■ 서울말평양말⑧ : “리허설”</p> <p>-리허설 : 가상훈련, 오케스트라 : 교향악단, 옥타브 : 돌이, 로얄박스 : 주석단, 파이프오르간 : 판풍금, 누르게 악기, 악보 : 보표, 높은음자리표 : 고음기호, 소프라노 : 여성고음, 테너 : 남성고음, 프리마돈나 : 여성주인공, 버라이어티쇼 : 그림춤 묶음, 뮤지컬 : 가무이야기,</p>
정리	<p>○ 영상으로 본 북한말을 가로세로 낱말퍼즐로 맞추어 보고 보상한다.</p> <p>○ 남북의 언어이질화를 줄여나가기 위한 방안들을 서로 말해보게 한다.</p>
십자말 퍼즐 화면	

나. 통일 수업에 적합한 협동학습 : 소집단 대화학습

아직 많은 학생들에게 ‘분단 현실’과 ‘통일’은 당장 마음에 다가오지 않는 딱딱하고 추상적인 주제입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통일에 관심을 갖고 고민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토론 또는 대화식 수업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통일에 관한 한 진리는 합의 개념인지 모르겠습니다. 반목과 대결의 시대에 편견, 독선 등으로 인해 뒤로 밀려 있던 모든 생각들을 표면 위로 끌어내어 보편적 가치의 틀 속에서 서로를 인정하는 하나의 정당한 관점으로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일에 더하여 필요한 일은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가치판단, 그리고 그 개인들의 판단들이 대화를 통해 도달되는 사회적 합의일 것입니다. 이 합의의 장을 '합리적인 소통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면 당연히 교실 수업도 그러해야 하리라 봅니다.

소집단 대화학습은 해석학 전통에 서서 수평적 대화를 통한 합의를 강조하는 김종문(1995년)의 【대화 학습】을 중·고등학교 수업 현장에 적용한 일종의 협동학습 모형입니다. 현장 수업의 경험으로 볼 때, 수평적인 지식과 심정의 교류를 통한 합의를 지향하는 대화 수업이 통일 관련 수업에 아주 유용한 면이 많으며, 같은 대화 수업일지라도 6명 이상의 중·대집단보다는 4명 내외의 소집단이 수평적인 앎·정감·의지의 원활한 상호 교류에 더 적합했습니다.

① 소집단 대화학습의 정의

소집단 대화학습은 학생들이 주어진 대화 물음(대화 과제)에 답하기 위해 스스로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평가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오면 소집단(4명 기준)별로 사고·심정·의지를 대화를 통해 상호 교류하여 소집단별로 합의점을 찾습니다. 소집단 합의점은 모두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해 전체 학생들과 공유되며, 이 과정을 거쳐 전체합의점을 도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협동이 실현되는 올바른 상황을 이해하고 합의의 기쁨을 체험하고 협력해서 해야 할 '우리의 할 일'과 '나의 할 일'을 찾아 합의하고 그 실천을 결의하는 절차의 학습이다. 가장 적절한 (혹은 가장 합리적인) 1가지 생각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관점과 수준이 서로 다르더라도 다양한 사고·심정·의지들을 수렴하려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소집단 대화학습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통일문제는 생각의 첨단을 걷는 전문가나 큰 힘을 가진 정치가들의 전유물이 아닌 남북의 모든 대중들이 만나고 교류하고 같이 활동하면서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러한 자세를 가지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② 소집단 대화 학습의 정교화

1998부터 중학교 도덕 시간에 소집단 대화학습을 적용해 왔습니다. 적용 초기에 모든 학생을 참여시키면서 소집단 대화학습의 4단계 (대화의 계기 → 모두

대화 → 학습 경험의 공유 → 대화의 정리)를 충실하게 거치는 데는 빨라도 2차시(90분)가 소요되었습니다. 1차시(45분) 내에 마치기 위해서 우선 학생들이 수업의 의도, 절차, 방법 등에 충분히 익숙해지도록 했습니다. 1단계의 '대화 자료 제시'는 이전 수업 시간을 마치고 미리 과제로 제시하여 학생들이 미리 수행해 오도록 하였고, 3단계의 모둠 발표(학습경험의 공유)시 시간 부족으로 발표 못하는 모둠은 전체합의점을 다시 총괄적으로 점검할 때 새로운 내용이 있으면 보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화 수업의 모둠별, 학급별 합의점을 효과적으로 정리하여 다음 학습의 자료로 삼기 위해 모둠대화 기록장을 만들어 모둠 별로 1권씩 배부해서 기록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학생 주도 학습에서 소홀해 지기 쉬운 개념과 지식 학습을 놓치지 않기 위해 도입 단계에서의 기본 개념 설명과 정리 단계에서의 교사 보충 설명도 강화하였습니다.

③ 소집단 대화학습의 단계

시행착오를 거쳐 정식화된 소집단 대화학습의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 대화의 계기

①학습목표 확인 → ②선행학습 (선이해 포착) → ③대화동기 유발 (자료제시·발문)

◆ 2단계 : 모둠 대화

④자기 생각 말하기 (상대 생각 확인)→ ⑤모둠 대화 → ⑥모둠 합의점 도출

◆ 3단계 : 학습 경험의 공유

⑦모둠별 합의점 발표 → ⑧질의 응답 (모둠간 대화) → ⑨전체 합의점 도출

◆ 4단계 : 대화의 정리

⑩교사의 보충 정리 → ⑪나의 느낀점, 결심적기·발표 → ⑫차시예고 (과제 제시)

④ 단계별 유의 사항

◆ 대화의 계기

- ① 학습목표 확인 ~ 대화 학습에서 학습 목표를 진술할 때는 “~을 합의할 수 있다” , “~을 결의할 수 있다” 혹은 “~에 대한 나의 할 일과 우리의 할 일을 다짐할 수 있다” 등으로 소집단 별로 앞·정감·의지 등을 교류, 합의하고 자신에게 실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 ② 선행학습(선이해 포착) ~ 1차시로 진행할 경우나 대화를 충분히 하기 위해서는 대화의 주제와 물음은 전시간에 과제로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③ 대화동기 유발(자료제시 및 발문) ~ 여기서 제시되는 동기 유발 자료는 동영상이가장 효과적입니다. 동영상은 대화 물음에 맞도록 사전에 면밀한 편집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교사가 제시한 자료는 동기를 유발하기 위함이고, 모둠 합의는 모둠원이 연습해 온 내용으로 해야 함을 주지시킵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화의 초점이 흐려질 수도 있습니다. 자료 제시는 길어도 5~6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발문은 기본·심화 등으로 나누어 기본물음은 모든 모둠이 공통적으로, 심화물음은 준비도와 합의력이 높은 모둠(기본 물음 해결 후 여력이 있는 모둠)이 합의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모둠 대화

- ④ 자기 생각 말하기(상대 생각 확인) ~ 대화 학습은 내 생각으로 상대를 논리적으로 설득하려 하거나, 하나의 정답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서로의 앞·정감·각오 등을 교류하여 합의점을 구성하는 것임을 학생들에게 주지시키고 또 훈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모둠원이 차례로 돌아가며 한 차례씩 자기 의견을 말하여 서로의 생각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 ⑤ 자유로운 대화 ~ 자유롭게 서로 대화하며 모둠 합의점을 찾는 단계입니다. 시간을 많이 주어서는 안 됩니다. 뒤에 모둠 발표와 질의·응답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잘 훈련된 모둠은 5~6 분 내에 주어진 과제를 합의할 수 있습니다. 훈련이 안된 상태에서는 15분을 주어도 합의

를 하지 못합니다. 소집단 대화 수업은 합의의 결과물보다 합의의 과정과 그 속에서 가져야 할 마음 자세를 더 가치있게 여깁니다. 대화 학습을 반복하다보면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합의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될 것입니다.

- ⑥ 모둠합의점 도출 ~ 모둠 합의점이 도출 되는대로 모둠대화 기록장에 그날 기록자가 기록합니다. 전체합의점을 도출하기보다는 각 모둠 발표의 다양한 내용들을 함께 음미해 나가는 수업일 경우에는 큰 종이에 작성해서 자석으로 칠판에 붙여 나가는 것도 재미있는 방법입니다.

◆ 학습경험의 공유

- ⑦ 모둠별 합의점 발표 ~ 모둠 별 발표자가 발표할 때 교사는 요약해서 칠판에 씁니다. 특히 이 때 학생들이 타 모둠 발표에 영향 받아 이미 합의한 내용을 수정하지 않도록 합니다.

⑧ 질의·응답 (모둠 간 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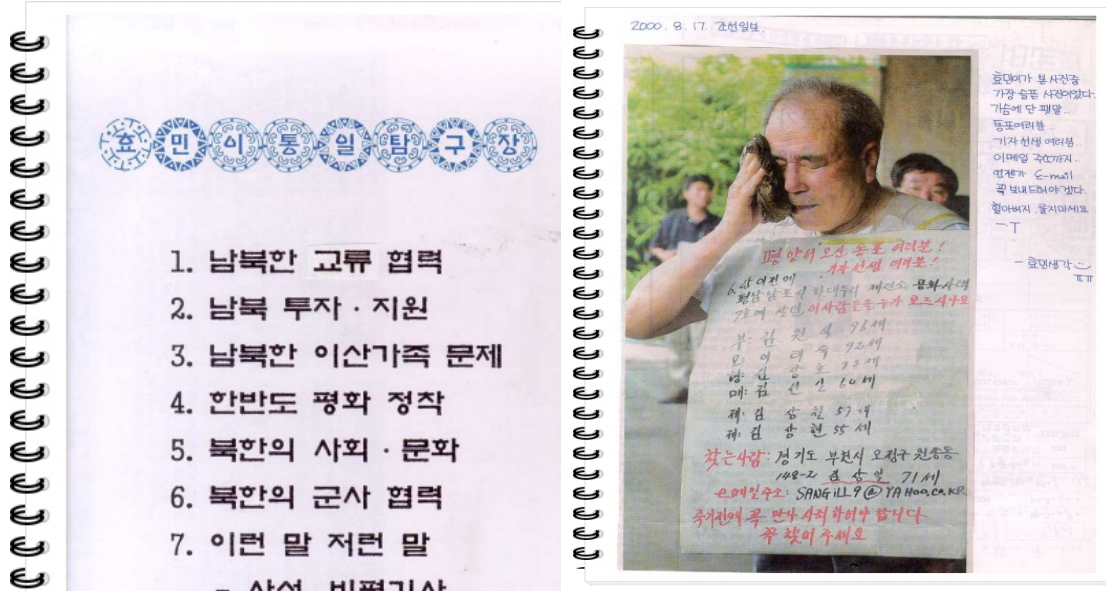
~ 발표 내용에 대해 타 모둠에서 질문합니다. 문제가 된 합의점은 칠판에서 삭제합니다. 질의·응답이 활발해야만 모둠 합의점들이 개별적으로 흩어지지 않고, 중요한 부분들을 전체 학생들이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 ⑨ 전체 합의점 도출 ~ 교사가 판서한 내용에 동의를 구하고, 시간 부족으로 발표 못한 모둠이 있으면 이 때 의견을 내게 합니다.

모둠 노트 ⑧	
일시	2003년 6월 2일 5교시
단원명	6·15 남북공동선언, 그리고 3년
대화 목적 (선택 과제)	www.hani.co.kr 기사 검색을 하여 '6·15남북공동선언' 후 그동안 남북한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2가지 A4지에 조사해 오세요. (사진이 첨부되면 좋음) (사진, 노트는 디스켓에 담아올 것) 6·15남북공동선언의 정신에 어긋나는 경각을 하거나, 주위에서 겪었던 일, 또는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두 가지만 학습지에 써보지 (이유와 함께 써 보기) (사진이 첨부되면 디스켓에 담아올 것)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울 탈방 때, 남북 청소년 대표자 회담이 같이 열리다고 할 때, 그 회담에서 합의되었으면 하는 <남북 청소년 공동선언문>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면 좋겠는가? 학습지에 써보지.
모둠 대화의 질의	<남북 청소년 공동 선언> ① 남과 북의 청소년은 한반적 여겨움의 정서를 통해 다가가 될 수 있는 긍정적인 ② 남과 북의 청소년은 학교에서 하루에 한번씩 '신뢰하기 게임'을 해서 신뢰감을 ③ 남과 북의 청소년은 영상대기, 지지 교환 등을 통해 서로의 관심거리와 생활 등의 정보를 교환한다 ④ 남과 북의 청소년은 머루들이 특별을 잘 이주지 못했을 경우 서로 인공을 통해 꼭 동진들 얻을 수 있도록 마음을 갖는다 ⑤ 남과 북의 청소년은 이국 광복 등의 장미꽃들과 스프링 정서를 써서 꾸미는 하자가 되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한다
의견	금번적 사례: ① 남과 북의 대화를 써보지 ② 이상가족 상봉사 5면영으로 등 ③ 신적, 동적 ④ 화해와 정화를 기원하는 피아 행사도 있었음. ⑤ 6.15선언 3주년 남과 북다양 역사에 국제평화대회 기념 ⑥ 정이선 동해선 철도 전역식 (1월 14일) ⑦ 여성 관광국 주류 주 사후학 로 (여성공간 학습과 같이)
과제	반영적 사례: ① 동진을 위한 재해 응급조치도 아늑한 피아 동진을 하겠다 ② 피아과는 조 ③ 동진과 전체적 공한 마음이 통하는 것 ④ 북한에 신장 을 제공했지만, 단과오는 것이 없다 ⑤ 6.15 지역 피해, 마음 애타게 동진이 어렵다

- ⑩ 교사의 보충 정리 ~ 전체 합의점을 반드시 보충해 주어야 하며 전체적인 흐름으로서의 마무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학생들의 합의점과 단위 수업의 핵심 사항을 학생들이 통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탐구장은 1년 후 한 권의 훌륭한 책이 되었습니다. 통일 탐구장의 전체 구성은 학생 자율로 맡겼습니다.



효민이가 분류한 통일탐구장 목차의 순서와 전체 구성만 보면 효민이가 통일 문제에 있어서 가졌던 가치관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예시한 평가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모든 학생들이 훌륭하게 잘 만든 것 아니었습니다. 그 학생들은 중간 점검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떤 점에서 좀 더 노력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개 인 작 품 1

(2000. 4. 22. 토 KBS1 TV 오후 8시 '일요스페셜'을 보고)

— '남북 경제 협력, 분단의 벽은 사라지는가'편

Q 시사·다큐

남북 경제협력의 현장

일요스페셜 KBS1 TV 오후 8시, '남북 경제협력, 분단의 벽은 사라지는가'편, KBS가 단독 입수한 최근 북한의 남북한 경제 협력을 공개한다. 88년 이후 12년이 흘렀지만 임가공무역 수준에 그친 남북 경제, 그러나 최근 북한은 남한기업과 합영 자동차공장을 추진하고 남한 중소기업이 필연에 치러 컴퓨터 조립공장에 김일성대학, 김책공과대학을 졸업한 북한 최고 엘리트 기술진을 파견하는 등 이전과 달리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어떤 남북 경제 모델이 내딛질 할 지 집중 조망한다.



남한과 북한 사이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제 사업으로는 평화자동차, 삼성전자·조선 컴퓨터 센터, IMRI(주)·삼천리가 추진하는 동남아 수출 목표의 자동차 생산, 소프트웨어 공동 개발, 컴퓨터 제작 등이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는 단순 임가공 무역 수준에 그쳤지만 현재는 기계, 설비를 북에 설치하고 임가공을 하는 형태로 발전한 것이다. 북한 인력은 예상보다 더 우수하고 오히려 우리보다 수학적 사고가 앞선다는 IMRI(주) 경영진의 말은 감으로 놀라웠고, 또 한편으로는 자갈스러웠다. 통일이 되면 어차피 함께 일할 우리 민족이 우수하다는데 자갈스럽지 않을 리가 있을까. 그런데 남북 경제는 남한이 상당부분 손해를 감수한다고 한다. 그 이유는 사회 간접 자본의 부족 때문인데, 남북 정상 회담 이후 경제의 5대 조건 중에도 사회 간접 자본의 확충이 빠져 있었다. 전력 공급은 시설 노화로 자질이 많고 도로 포장률도 낮아 수송에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남과 북은 언어가 비교적 비슷해 타국가와의 경제보다 작업전수에 유리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더욱 추진되어야 하지만 북한 사회 간접자본의 확충이라는 령다. 김대중 대통령은 베를린 선언으로 북한 사회 간접 자본 확충에 도움을 주겠다는 입장을 밝혀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IMRI(주) 경영진의 말을 들자면, 남북 경제를 통해 근로자들의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마음의 장벽도 커 물어진 것 같다고 한다. 또한 경제는 북한의 발전을 촉진해 통일 비용을 감소할 수 있다. 남과 북 모두에게 좋은 '길'인 경제는 남북 정상 확답은 계기로 더욱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위의 작품은 은정의 통일탐구장의 일부입니다. 기사가 나온 시점은 남북정상회담 전에지만, 은정이는 스크랩을 하여 통일신문을 보다가 관심이 가는 TV 방송 예고 기사를 스크랩하고 실제로 그 방송을 시청까지 한 경우입니다. 방송의 시점은 남북정상회담 이전이지만, 은정이가 시청 소감문을 정리한 것은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것으로 보입니다. 은정이는 방송을 통해 알게 된 새로운 정보를 나름대로 자기 것으로 잘 정리했으며, 남북 경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도 잘 밝혔습니다. 통일탐구장은 인터넷이 더욱 대중화되면서 신문 스크랩이 점점 인터넷 신문이나 웹 사이트 자료들을 활용하는 쪽으로 대치되어 갔습니다.

② 통일 연극 공연과 관람

‘3개의 남북이야기’를 보고 나서

포항중학교 1학년 L H H

나는 이 연극을 보기 전에 '우리 학교 아이들은 잘 할 것이야.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였는데...' 라고 생각했었다. 연극을 보고 나서는 이렇게 바뀌었다. '카~~~ 역시 우리 학교야!!! 이렇게 잘 하다니... 그러나 무엇인가 조금 이상한 것도 있는 것 같다.'

이상한 것은 연기자들의 문제가 아닌 내용 스토리상의 문제이다. 첫 번째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주인공 3명이 댄스학원을 세운다는 해결로 이 이야기는 끝난다. 무언가 이상하지 않는가? 댄스학원을 만든다? 그 꼬마 놈이??? 무언가 이상하지 않는가?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에 보면 남한강패, 북한강패가 모여 싸우다가 인질들의 말로 서로 화해하게 되는 장면이 있다. 그런데 연극을 자세히 보면 이상하다는 걸 느낄 수 있다. 그것은 남측 인질의 단 2-3마디로 남한 강패가 "죄송합니다." 라고 북한사람에게 말하게 되는 부분이다. 이것은 아무래도 이상하다. 단 2-3마디로 그 독한 강패 놈들이 금방 교화가 된다니!!!!!! 심히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다음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연기자들의 목소리가 작다는 것이다. 물론 연극을 관람하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 떠들어서 연기자들의 목소리가 잘 안 들릴 수도 있지만 내가 생각하거론 몇몇 빼고는 전체적으로 목소리가 너무 작았다는 것이다. 목소리가 크면 아이들이 조용해질 수 있었을 것이고, 집중해서 볼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행동이 실감나지 못한 것도 약간 있었다. 북한 간첩이 물에 뛰어 들려고 할 때, 그리고 연기자들이 이북 춤을 출 때, 남쪽 북쪽 조폭들이 서로 싸울 때 등이다. 그러나 아이들이 이것 말고 잘한 것도 많았다. 조폭들의 연기, 빨간마후라와 일본사람들이 싸울 때 등은 연기력이 매우 좋았고 코믹하게 잘하였다. 베리 굿이었다. 조폭 연기 중 동욱이와 진욱이의 연기는 매우 실감났다. 둘은 환상의 콤비라도 되는지 아주 출중하게 잘하였다. 그리고 빨간 마후라와 일본사람들이 싸우는 장면과, 또 남북 학생들이 단합해서 이겨서 일본인들이 벌 받을 때에도 아주 재미있게 잘하였다.

전체적으로 이 연극의 내용은 매우 좋다. 그것(중심 생각)은 남북이 하나가 되어 반드시 통일을 이루지는 것이고. 각 이야기의 끝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 여태까지 본 연극 중에서 이런 스토리의 연극은 한 번도 보지 못하였다. (사회 문제와 역사를 다룬 것)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이해가 안 되고 그랬으나 차츰 보니 이해도 되고 재미도 있었다.

나는 이 연극을 보고 난 후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보기 전에 가졌던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인 부정적인 인식과 배척하는 태도를 탈피하게 되었다. 남한이랑 북한이 하나가 되기 어렵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전혀 아니다. 서로 모이려는 의지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마음을 열고, 서로 받아주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물론 북한과 완전히 화해하기 전까지는 긴장의 끈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 엄연히 군사적으로 북한과 대치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에 이런 연극을 많이 만들고 공연하여 우리 국민의 북한에 대한 의식이 많이 변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이 연극 감상문에는 관람한 학생의 참여와 공감의 정도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학생은 능동적으로 연극을 관람하여 이 연극의 줄거리의 문제점과 공연 상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연극이 주는 메시지는 전체적으로 공

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긍정적 시선을 가지면서도 정전 협정 하의 군사적 대치 상황을 냉정하게 인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면을 개인적으로 잘 아는 또래 학생들이 배우로 등장하여 공연한 통일 연극은 다른 어떤 세련된 기성 연극보다 관람자에게 더 큰 참여 의식과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연극 뿐 아니라 UCC 동영상이나 공익 광고처럼 학생들이 만든 작품들은 또래 학생들의 참여와 공감을 고무하는데 아주 좋은 수업 자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참여와 공감은 학습자로 하여금 깨달음을 자기 삶에 관여하게 만들어 줍니다. 즉, 그냥 머리로만 또는 말로만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실천 의지가 동반되는 가치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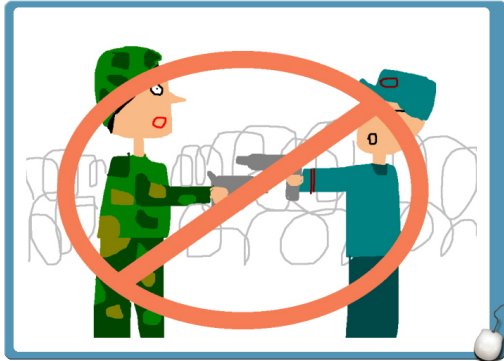
이제 대학을 졸업한 이 학생을 지난 해 우연히 SNS를 통해서 만났습니다. 그의 사회에 대한 책임 의식 그리고 따뜻한 포용과 냉정한 정의감 등은 SNS에 기록하고 있는 그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중요한 사회적 의제들로부터 뒷골목 할머니와의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분단과 통일 문제에서 소수자의 권익에 이르기까지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게 말하였습니다. “선생님은 여전하시군요.” 그래서 저도 말해주었습니다. “넌 정말 잘 성장하였구나. 선생님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저는 그 ‘여전하다.’는 말이 참 듣기 좋았습니다. 어쩌면 교사는 그 일을 그만둘 때까지 같은 종류의 일들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 공연한 통일 연극
 - ▶ 뫼비우스의 띠 (창작극)
 - ▶ 3개의 남북 이야기 (창작극)
 - ▶ 통일 익스프레스 (오태영 작)

③ 그 밖의 학생 작품 활동

- 만화



- 통일 신문



- 통일 광고 패러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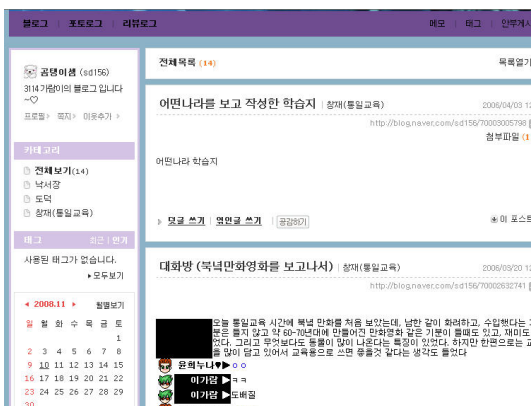
- 통일 협동화 그리기



- 통일 UCC 영상 만들기



- 온라인 소통 활동



- 그 밖의 활동

- ▶ 통일 모듬 일기 쓰기
- ▶ 즉석 연극 놀이
- ▶ SNS 활용하기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등) 등

Ⅲ. 참여와 공감의 통일교육의 일반적 진실

판문점을 방문할 때마다 상상해본 것이 있습니다. ‘판문점에서 보는 방향을 바꾸어서 북한 지역에서 우리 남한 쪽을 바라보면 어떨까?’ 하고 말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시선을 번갈아 봤을 때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현실화될 수 없는 그런 시도를 상상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통일’에 대한 저의 가역적 사고에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전 제가 얼마나 통일 문제에 대해서 가역적으로 사고하고 있는지 자신이 없습니다. 본격적인 통일교육의 실천이 시작된 1998년부터 지금까지의 다양한 통일교육의 경험들에 대해 충분치 않은 저의 가역적 사고를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일반화될 가능성이 있는 통일교육 실천의 진실들을 드러내 보고자 합니다.

1. 학습자 혹은 학습 공동체가 구성하는 경험이 중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객관적 진실을 소홀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학생들에게 사실에 근거한 균형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일단 제시하고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하고 느껴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그 자료에 단위 수업이나 활동을 통해 성취해야 할 준거들에 대한 답이 다 제시되어 있다면, 혹은 교사가 논리적으로 정리한 정교한 해설을 붙인 자료가 제시된다면,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해 볼 기회를 빼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적어도 학생들의 이해나 깨달음이 자신의 삶에 관여되도록 하고 싶다면 말입니다. 따라서 학습자가 개별 활동을 통해서, 학습 공동체가 모둠 활동 등을 통해서 스스로 구성해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교사는 학생들이 자료의 정확성, 사고 과정의 타당성, 도덕적 상상력으로서의 공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충 자료나 설명을 하거나 비판적 질문을 통해서 이끌어 줍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실에 근거한 그리고 균형 있는 자료 제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화를 통해서 북한 주민의 삶을 확인해 볼 때는 먼저 북한 사회의 부정적인 면이 부각되는 <크로싱>을 보여주었다면, 북한 사회의 안정된 측면인 <어떤

나라>도 보여주는 것이 균형 있는 북한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영상도 생각에 대한 답이 포함된 것이 아니라, 학습자 나름대로 답을 찾아갈 수 있는 도구로서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해당 수업 시간에 원하는 학습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수업이나 활동이 지속되면서 조금씩 달성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학생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열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시간에 학생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통일을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통일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다만 마음을 열고 나의 생각과 다르거나 호감이 가지 않는 자료나 사람의 말에도 주의를 기울입니다.”

2. 학습자의 자발적 참여와 공감을 이끌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 활동을 이끌어야 한다.

외부 자극이나 환경의 도움 없이 스스로 내적 동기에 의해서 수업이나 활동에 참여하는 학습자는 극소수일 것입니다. 물론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르친다면 자료의 내용이 정확하고 바람직하면 그만이겠지요. 그러나 많은 학생은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듣는다고 다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중요하게 여겨질 때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학습자의 시선을 붙잡을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북한 주민의 의식주 생활을 공부하고 있다고 칩시다. 가장 안 좋은 수업은 처음부터 북한의 의식주에 대해서 교사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의식주를 보여주는 장면과 함께 당위적 설명이 더빙된 영상을 보여주는 것도 전자보다는 학습자의 시선을 끌기는 영상 자체가 재미가 덜 합니다. 북한의 의식주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더라도 북한의 의식주 생활을 확인할 수 있는 북한의 드라마, 뉴스, 영화 등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영상에서 객관적인 사실들을 확인해 내고 특징들을 추론해 보는 것은 학습자와 교사가 해야 할 그다음 일들입니다.

물론 그런 영상 자료를 찾는 것도 쉽지 않고, 또 모든 통일 수업을 그렇게 하면 언제 진도를 다 나가느냐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도덕 교과서 통일 단원을 보면 주어진 정보나 지식을 전달하는 면보다는 가치관 혹은 바람직한 관점을 형성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북한의 정치와 경제에 관한 많은 지식을 중등학교 수준에서 모두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기본 구조와 운영 원리 정도만 알면 되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북한 사회와 북한 주민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시선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아닌게 아니라 요즘 도덕책을 보면 시험 문제 낼 부분이 점점 없어집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딱 부러지게 분절시켜 단순하게 출제할 내용이 점점 보이지 않게 되니까요. 어떻게 보면 도덕책다워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3. 교류·교섭과 합의·공유를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 문제는 개별적인 깨달음과 행위도 중요하지만, 같은 생각이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나아가야 할 문제입니다. 무엇인가를 함께 공감하고 함께 실천 의지를 다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모둠 활동을 통해서 서로가 양보하고 존중하면서도 주요한 문제에는 마음을 열고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전체 학생들이 함께하는 수업이나 활동에서도 교사가 학생들에게 질문하고 학생들의 대답을 기다려준다든지, ‘한 줄 느낌’이나 ‘4행시’하기 등으로 학생들이 쉽게 발표할 기회를 주는 것도 좋습니다. 또는 N세대에 걸맞게 인터넷 카페, 블로그나 SNS 등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면 댓글 달기, 대화방 활용 등으로 좀 더 자유로운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과 함께 개인별로 각자 자신의 블로그나 카페를 갖게 하고 함께 네트워크를 만들어 소통해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댓글을 달아도 단순한 기분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소통이 쌓일수록 할 말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교사는 설명할 때 항상 학생들의 반응을 살펴야 합니다. 일방통행이 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학생들이 지쳐 있으면 사탕 내기 게임도 하고, 사탕을 걸고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지시봉이 있다면 예고 없이 칠판을 반복해서 쳐서 몇 번 쳤는지 맞추게 한다든지 말입니다. 그리고 교사의

일방적인 언어적 설명이 길어도 5분을 넘어서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멀티미디어 자료로 수업의 변화를 주려고 애씁니다. 괜찮은 한 장의 사진도 많은 것을 생각하고 공부할 수 있게 해주니까요. 다시 말해서 학생 중심의 활동이든 교사 중심의 수업이든 교류와 공유, 교섭과 합의를 의식해야 합니다.

4. 억지로 분단 현실을 학생들의 일상생활에 연결하려고 애쓰기 보다는 북한 사회와 북한 주민에 대한 호기심, 관심, 혹은 잘 못된 선입견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제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통일을 나의 문제로!’는 학교 통일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렇지만 교사의 관점에서 분단 현실이나 통일 편익을 학습자의 일상생활과 관련짓는다고 해서, 학습된 결과를 학생들이 자신의 문제로 체화한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단 현실을 느끼게 해 준다고 교실을 둘로 나누어 하루 동안 서로 왕래할 수 없게 하고, 바깥출입도 각각 앞문과 뒷문만 사용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하루가 지나서 과연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자기 생활의 불편을 분단 현실과 관련지었을까요? ‘교실의 분단’으로부터 ‘한반도의 분단’을 가역적으로 공감하기에는 그 사이에는 많은 간극이 있다고 봅니다. 교실 분단의 고통은 구체적이지만, 국토 분단의 고통은 추상적입니다. 물론 활동을 상상만 하여도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는 학생도 있겠지만, 그런 활동이 끝나면 ‘교실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것은 참을 수 없지만, 남북한 분단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왜 고통스럽게 생각해야 하지?’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아마도 더 많을 것입니다.

학생들의 관심을 비교적 끝 만한 다양한 자료들을 제시하고 그 속에서 얻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진실들이 쌓여가다 보면 통일 필요성도 확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한 번의 인과적인 추론의 성공으로 통일의 필요성의 확신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벽돌을 쌓아 올리듯이 다른 통일 수업이나 활동들과 연동되어서 서서히 달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일 수업의 학습 목표는 사실적인 것을 제외하면 단위 수업 시간에 바로 달성되기보다는 이웃한 다른 통일 수업들과 함

게 관련돼서 여러 개의 학습 목표들이 중첩적으로 달성되어 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5. 작품 활동이나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깨달음을 스스로 확인하는 경험을 갖는다.

통일교육에서 즐겨 활용한 소집단 대화 학습의 마지막 단계는 [나의 느낀 점·결심 적기 및 발표]입니다. ‘감수성이 동반된 인지적 이해’를 현실화하겠다는 다짐, 각오를 확인하고 공유하는 단계입니다. 북한 주민들을 직접 만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학생의 입장에서 통일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현실적으로 실천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UCC 동영상, 통일신문, 만화, 즉흥극 등의 작품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깨달음을 확인하고 또래 학생들과 교류하고 공유하는 경험을 가지는 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영양과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으면,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고 실천에 옮길 때 비로소 통일교육으로 인한 확실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학생 작품과 실천 사례들은 다른 학생들의 통일 수업에 아주 유용한 동기 유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아는 또래 학생들이 공연을 하는 연극을 관람하면 서툰 동작 하나하나까지도 묘한 자부심을 가지고 보는 것처럼, 또래 학생들이 잘 만든 작품들을 보여주면 학생들은 그 속에 표현되어 있는 의미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또래의 작품이니깐요.

6. 통일교육의 올바른 방향성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법 영리하고 민감한 학생이라 하더라도 일관된 통일 가치관을 유지하기 힘이 듭니다. 우리의 순진한 학생들은 갈등하는 다양한 관점들을 확대 재생산하는

매체와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통일교육의 올바른 방향성을 ‘점진적, 평화적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민족화해와 협력의 소중함을 깨닫고 실천하기’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남북기본합의서가 발표된 1992년 이후로 집권한 정부에 따라 통일 정책의 변화는 보였지만, 통일교육이 제가 언급한 방향성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통일 정책을 홍보하는 통일교육도 필요하지만, 제가 말한 통일교육은 학교 현장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제도적으로 실행되는 통일교육을 말합니다.

저의 경험상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교사가 이 관점을 철저하게 유지하기만 한다면 학생들이 발표나 작품 활동 등을 통해 이러한 관점을 부지불식간에 내면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관점의 철저한 유지’라는 말은 교수-학습 과정과 행사 활동에서 콘텐츠와 질문하는 법을 섬세하게 구조화한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관점을 학생들에게 반복적으로 설명했거나 강조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와 보편적 가치의 관점에서 본다면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IV. 새로운 세계 질서 속에서의 가능성과 한계

분단 현실은 간접적, 구조적 폭력입니다. 그런 점에서 통일교육은 평화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단의 고통이 통일의 필요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폭력의 심각성이 평화의 소중함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번역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 통일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게 되고, 다시 개별 사람들의 일상적인 평화가 한반도 통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은 서로 갈등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의 질서가 새롭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오랜 냉전과 국가주의의 질서가 해체되면서 탈냉전과 신자유주의의 시장화가 추동하는 새로운 질서로 바뀌었습니다. 이른바 세계화, 정보화, 시장화, 탈영토주의,

지구 시민사회의 확장 등 거대경향의 복합적 효과는 새로운 역사국면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구적 전환의 사회변동 과정에서 기존의 국가주의 및 정치주의에 경도된 통일론은 뚜렷한 지체현상을 보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반도 통일론은 국가주의와 민족주의, 냉전적 이념에 기초한 구래의 관점을 넘어 새로운 질서에 조응할 수 있게 재구성되어야 합니다.¹⁾

그런 점에서 우리의 통일교육도 새로운 모색을 해야 할 때가 된 게 아닌가 합니다. 우리 교사들에게 폭넓은 공부와 토론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특히 우리 사회가 급속하게 다문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지금까지 통일교육에서 강조해 온 민족 동질성 교육과 다문화 교육의 일환으로서의 반편견 교육이 어떻게 어울릴 수 있는가 하는 점도 고민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참여와 공감의 통일교육의 실천 속에 시종일관 내재해 있는 구성주의가 반편견 교육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부분적인 답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도덕적 추론의 높은 단계는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고 채택하게 되어 더욱 가역적이고 더욱 불편부당한 사고와 인식을 요구합니다. 그 단계에서는 인간의 지위, 성, 인종 등에 관계없는 도덕적 추론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²⁾ 학습자의 도덕적 단계가 높아질수록 다문화사회가 직면한 차별과 소외 등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충분히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초등학생이나 도덕적 발달 수준이 낮은 학습자들에게는 덕목 주입의 관점이 유효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문화사회에 요구되는 덕목의 반복적인 강조와 습관화 등으로 합리적인 논의의 수준에서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반 편견적인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중등학교 수준에서는 구성주의에 입각한 개방적 학습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학습자들의 구성적 인식, 그리고 수평적인 대화나 토론이라는 집단 활동을 통해 학습자의 도덕 발달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학교 1학년들은 도덕 교과서에서 도덕성(도덕적 추론과 공감 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개념과 원리를 배웁니다.

1) 구갑우 외 11인, 한반도 통일론의 재구성, 선인, 2012.

2) Kohlberg, L. (1981). *Essays on Moral Development. Vol. 1. The Philosophy of Moral Development*. San Francisco: Haper & Row Publishers.

그러나 '민족 동질성', '민족 통합'이라는 가치가 오늘날 다문화사회에서 여전히 유효할 수 있는지 하는 문제는 남습니다. 저는 통일교육에서 '민족'은 빠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통일교육에서 '민족'이라는 가치가 빠진다면, 평화 교육만으로 충분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 '열린 민족주의' 혹은 '개방적 민족의식'란 말을 많이 사용하는 것도 '민족'이라는 가치를 포기할 수 없어서일 것입니다. 개방적 민족주의하에서 통일교육은 민족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서 통일 추구하면서도 그 민족의식이 타민족이나 타 문화에 대해서 배타적인 태도로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겠지요. 이것이 인식론의 태도로 볼 때 온전하게 성립할 수 있는지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통일교육과 민족 동질성의 회복은 분단 현실에서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통일교육의 실천을 성찰하여 이끌어낸 일반적 진술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 글에서 발견할 수 있는 흔한 말 같은 같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우리 교사들에게는 일반화꺼리로 삼은 실천 사례들을 활용 자료들과 함께 명료하게 정리해 내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합니다. 학교 현장에 계시지 않는 많은 통일교육 전문가들은 통일교육의 콘텐츠와 프로그램 부재를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교사들끼리의 실천 사례들을 관점의 범주화 속에서 정리해 나가는 네트워크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통일교육을 실천하는 여기에 참석한 우리 교사들이 자발적인 공부 모임을 만들고, 자료를 나누고 실천을 공유하는 노력의 불씨를 되살려야 하지 않겠나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참고문헌>

1. 구갑우외 11인, 한반도 통일론의 재구상, 선인, 2012.
2. 김종문, 대화학습의 도덕교육, 교육과학사, 1995,
3. 정탁준,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위한 반편견 교육방법 연구, 도덕윤리과교육 제 27호(2008. 12.)
4. 추병완, 구성주의적 통일교육의 방법, 통일교육협의회 주최 통일교육 아카데미 4강 강의자료(2002. 6. 25)
5. 추병완, 다문화 교육을 위한 도덕교사의 역할 탐색, 교육과정평가연구, 2008. Vol. 11. No. 2.
6. Kohlberg, L. *Essays on Moral Development. Vol. 1. The Philosophy of Moral Development.* San Francisco: Haper & Row Publishers. 1981
7. www.unikorea.go.kr (통일부)
8. www.uniedu.go.kr (통일부 통일교육원)
9. <http://user.chol.com/~baweesol> (바위술의 통일교육마당)

2012 학교통일교육발전 워크숍

국민적 통일준비 확산을 위해 찾아가는 통일교육

토론자료 I

통일교육의 다문화교육적 접근과 통일교육의 바람직한 방향

권기석 | 남계초등학교 교사

통일교육의 다문화교육적 접근과

통일교육의 바람직한 방향

권기석 (남계초등학교 교사)

- I. 들어가는 말
- II. 학교 통일교육의 실태 및 문제점
- III. 학교 통일교육의 다문화적 접근
- IV. 다문화교육적 접근 통일교육의 도덕과 적용
 - 1. 도덕과에 있어서의 통일교육의 의미
 - 2. 도덕과 통일교육의 다문화적 접근
- V. 학교 통일교육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
- VI. 맺는 말

I. 들어가는 말

이명박 대통령 취임 3주년 대북정책 설명 자료¹⁾에 따르면 중점 추진 성과의 하나로서 미래세대 청소년 통일교육 강화를 제시하고 있는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형·참여형 통일교육 프로그램 시행하였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0년 7월에 6.25 60주년 「평화통일대행진」에 국내외 청소년 625명이 참여하여 전방지역의 주요 전적지와 환경·생태 현장체험지 답사를 하였고, 초·중·고 대상 「청소년 통일교실」을 3년간 43회 실시하여 8,000여명이,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을 3년간 339회 실시하여 55,00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VOD 및 기획특집프로그램 180편 등 IPTV용 통일교육 콘텐츠

1) 통일부 정책홍보과, 『대북정책 이렇게 해왔습니다』, (주)늘봄플러스.

츠를 개발 및 보급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통일교육 지원법」 및 「동법시행령」을 개정(2010.4.20 시행)하였는데, 학교통일교육과 관련하여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정 「통일교육 지원법」에서는 통일부 장관이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교과부 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개정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에서는 요청 사항을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활용, 통일교육자료의 보급 및 활용, 교원 연수기관에서 통일교육 시행, 연구학교 지정 및 활성화, 통일교육 실태조사 및 자료 협조 등으로 구체화하였는데, 이는 학교통일교육의 활성화 기반 마련의 기대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추진 성과가 실제 학교통일교육 활성화에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발제자가 발표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 정부 들어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통일교육이 정착 단계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본 토론자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통일교육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는 데에도 공감하고 있다.

실제로 본 토론자가 담임을 맡았던 학급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일의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설문조사 결과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초·중·고생 1,7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설문조사 결과, ‘관심은 가지만 나와는 멀게만 느껴진다’가 48.2%, ‘별로 관심이 없는 편이다’는 28.1%, ‘전혀 관심이 없다’는 9% 등 통일에 대한 무관심이 무려 85.3%에 이르렀다.

이는 학교의 통일교육이 학생들의 의식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인데, 도덕과 통일 관련 단원 수업, 사회과 몇몇 관련 단원 수업, 그리고 현충일, 6.25와 관련해서 하는 계기 교육으로는 학생들에게 북한과 통일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사실이다.

또한, 통일 관련 교과서와 지도서가 매년 학교로 보급되기는 하지만, 그것을 활용해 통일교육을 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단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재량·특별활동) 시간에 통일교육 시간이 배정되어도 겨우 한두 시간 남짓, 아예 시간 배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처럼 학교 통일교육은 그 우선 순위를 다른 곳에 내주고 있는 것이다.

이제 학교 통일교육은 변화를 해야 하고, 그 변화는 다문화 시대를 살고 있는 현시점을 고려하여 발제자인 전재영 선생님이 발표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다문화 교육적 접근을 통한 통일교육으로의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먼저 학교 통일교육의 실태를 살펴보고, 통일교육에 다문화 교육을 접목해 새로운 통일교육의 방향으로 잡는 데 어떤 의의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학교 통일교육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찾아보기로 한다.

II. 학교 통일교육의 실태 및 문제점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현 정부에서 청소년 통일교육을 강화하여 학교 통일교육 활성화의 기반 마련에 기여를 했다고는 하나, 실제 학교에서의 통일교육 실태를 살펴보면, 과연 그만큼의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 반문을 하게 된다. 학교 통일교육의 실태로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에서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본 토론자가 2010년과 2011년에 초등학교 1급 정교사 자격연수²⁾에 통일교육 관련 내용으로 강의하면서 연수생들에게 각 소속 학교에서 학교 차원이든, 학급 차원

2) 2010년 7월 23일 70명 대상으로 1시간 강의, 2011년 7월 21일 120명 대상으로 2시간 강의를 함.

이든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대부분 연수생이 각 소속 학교에서는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학년 초에 교육과정을 작성할 때, 창의적 체험활동(재량·특별활동) 시간 배당에 범교과 학습 주제 중 통일교육이 배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가 현충일, 6.25와 관련해서 하는 학예행사와 혼화, 그리고 도덕과나 사회과의 관련 단원에서 다루는 내용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경상북도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살펴보면, 독도교육과 관련하여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재량·특별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연간 10시간 이상 지도를 권장하거나 지도³⁾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만, 통일교육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과 필요성이 독도교육보다 떨어지지 않음에도 시간 배당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이 그저 재량활동의 관련 활동으로 범교과 학습에서 '통일 및 국제 이해 활동' 부분에 '통일' 단 두 글자⁴⁾로 다뤄지고 있을 뿐이다.

결국 학교 통일교육을 제대로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연구·시범학교로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는 곳뿐일 것이다. 연구·시범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학생들이 수시로 통일교육에 관한 내용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높을 수밖에 없다.

둘째, 학교에서 학생들을 교육하는 주체들의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학교 통일교육이 단위 학교 내에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의 관심과 열의가 중요한데, 특히 교장선생님이 통일교육에 관심이 없다면, 단위 학교 내에서 통일교육은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된다. 또한, 학생들을 직접 지도할 개별 학급의 담임선생님들이 통일교육에 관심이 없거나 그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다면, 통일교육을 꺼리게 되고, 결국 학교 통일교육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게 된다.

3)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고시 제2012-1호 경상북도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p.6.

4) 경상북도교육청, 위의 책, p.41.

통일교육원에서 교사들에게 통일교육에 대한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배정된 인원이 적은 데다 의무 사항도 아니어서 통일교육 관련 연수를 받은 교사들이 적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연수는 아니더라도 통일교육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학급 학생들에게 양질의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줄 수도 있지만, 교사들의 관심 부족과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 그 부분도 미미하다고 하겠다.

결국, 교장선생님과 담임선생님의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의, 전문성 부족이 학교에서 통일교육이 설 자리를 잃게 하고, 학생들이 통일교육에 흥미와 관심을 잃게 하는 중요한 원인일 것이다.

셋째, 2011년 발행된 통일교육 지침서에서는 북한 실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일교육의 주안점으로 두면서 균형 있는 북한관을 강조하고 있는데⁵⁾, 학교에서 이 지침에 따라 통일교육을 하면서 오히려 학생들에게 북한의 부정적인 이미지만 지나치게 심어줄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정부의 통일교육 지침서에서는 남북한의 상호이해와 존중을 강조하면서 이 지침에 따라 학교에서 통일교육을 진행하면서 북한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민족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남북한이 서로 편견과 차별의식을 극복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 하겠다.

학교에서는 매년 발행되는 통일교육 지침서를 반영하여 학생들에게 통일교육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침서 내의 내용 하나하나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다문화교육이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면서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을 지양하고,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북한을 다문화교육의 연장선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통일교육 지침서에도 그런 부분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1 초등학교 통일교육 지침서』, (에드윈 커뮤니케이션즈, 2011), pp.11~15.

III. 학교 통일교육의 다문화적 접근

다문화주의는 문화권의 배경에 따라 특정 사회의 구성원이 차별받지 않고 상호 간의 존중과 공존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도입된 개념이다. 다문화주의는 국적, 인종,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권리를 향유하고 각각의 특수한 삶의 방식을 존중하며 공존할 수 있는 다원주의적인 사회·문화·제도·정서적 인프라를 만들어내기 위한 집합적인 노력을 의미한다.⁶⁾

우리나라도 이미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였기에 인구 구성에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있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 국제적 기준으로는 전체 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일 때 다문화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은 아직 그 비율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외국인이 우리나라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다문화 현상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또한, 그와 더불어 새터민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다문화교육은 그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다문화적 관점에서 통일교육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다문화적 현실을 고려하였을 때, 학교 통일교육에서 강조되어야 할 것은 먼저 내적 사회통합에의 기여라고 하겠다.⁷⁾ 지금까지는 통일의 대상인 북한과의 통합에만 관심을 기울여 북한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해야 할 것인가에 더 많은 비중을 두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안의 내적 통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통일교육의 주안점은 통일에 대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갖도록 하는 데 맞춰져 있었지만, 그것은 북한과의 통일에 초점을 둔 것이다.

이제 학교 통일교육은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였고, 통일이 된 시점에는 다문화가 더 심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양성과 통일성이 조화를 이룰

6) 추병완, 『도덕교육의 새지평』, (도서출판 인간사랑, 2012), p.215.

7) 추병완, 위의 책, p.219.

수 있도록 다문화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다.

다문화적 관점은 인종, 민족에 따른 편견과 다른 태도를 지양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태도를 지향한다. 발제자가 발표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학생들에게 통일교육을 함에 있어서 학생들이 다른 문화를 접하면서 이해를 통해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고, 협동을 통하여 정체성을 형성하는 가운데 통일교육에 대한 즐거움을 찾아갈 수 있는 다문화교육적 접근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통일의 과정에서 남북한의 사회통합은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의 이념·문화·가치관·행동양식을 수용하여 완전하게 동화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질적인 집단들이 다양성 존중과 상호주의 원리에 의해 통일된 하나의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다문화적 사회통합 방식이 통일된 국가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⁸⁾

발제자는 발표문에서 통일교육에서의 다문화교육적 접근의 유용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북한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측면에서 유용하다는 점이다. 여기서 말하는 객관적인 이해라는 것은 학생들이 북한의 실상을 파악하여 북한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이해와 존중을 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북한은 결국 통일로 함께 나아가야 할 대상이기에 학생들이 북한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포용적인 자세를 지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는 점이다. 다문화교육은 문화권의 배경에 따라 특정 사회의 구성원이 차별받지 않고 상호 간의 존중과 공존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다문화주의에 그 뿌리를

8) 추병완, 앞의 책, p.222.

두고 있다. 통일을 함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집단들이 다양성 존중과 상호주의 원리에 의해 통일된 하나의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다문화적 사회통합 방식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학생들에게 다양성을 존중하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다문화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민족 정체성 형성에서도 유용하다는 점이다. 통일교육에서 민족 정체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러다 보면 자칫 민족 지상주의와 같은 편협한 민족주의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통일교육에서 지향하고 있는 민족 정체성이 단순히 혈연에 기초한 단일민족을 강조하는 폐쇄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과 문화를 다양성의 입장에서 존중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다문화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IV. 다문화교육적 접근 통일교육의 도덕과 적용

1. 도덕과에 있어서의 통일교육의 의미

도덕과는 다른 교과에 비해서 통일과 북한 문제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교과를 통한 통일교육의 기초가 되는 교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도덕과에서의 통일교육은 바람직한 통일의 방법,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 통일을 위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 등에 대해 강조점을 두고, 학생 스스로 통일과 북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통일교육에서 도덕과는 다른 교과의 중심에서 도덕과가 지향하는 통일교육에서의 강조점을 다른 교과의 여러 활동과 더불어 학생들에게 심어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 도덕과 통일교육의 다문화적 접근

발제자는 발표문에서 다문화적 통일교육의 접근 방법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문화를 통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면서, 그 이유로 학생들이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토론자가 학급 학생들과 통일교육 관련 수업을 진행하면서 북한 어린이들의 일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본 적이 있다. 학생들 각자가 자신의 하루 일과와 비교해 보면서 북한 어린이들의 생활 모습을 살펴보았는데, ‘업간체조’라고 하여 우리처럼 중간체육 시간이 있는 것과 자신들은 학교에서 급식으로 점심을 먹는 반면에 북한 어린이들은 집에 가서 점심을 먹고 온다는 것 등 여러 부분에서 비슷하거나 생소한 면을 보면서 호기심을 가지는 모습을 보았다.

이처럼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문화를 통하여 접근하는 통일교육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고, 발제자가 언급한 것처럼 다문화적 통일교육은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통일에 대한 안목을 길러주는 데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발제자는 다문화교육을 전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MacNaughton & Williams의 5가지 접근법을 제시하였는데, 자유방임적 접근, 특별한 준비에 의한 접근, 문화 이해적 접근, 인권적 접근, 반차별적 접근이 그것이다. 그 중 반차별적 접근을 반편견적 접근과 같은 의미로 보고 다문화교육을 위해 가장 적합한 교육방법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점들에 주안점을 두면서 통일교육에서 다문화 인식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발제자는 관련 활동으로 북한의 전래동요, 북한 음악, 북한의 요리 등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였다. 본 토론자가 학급 학생들과 통일교육 관련 수업을 진행하면서 남과 북의 여러 가지 문화, 예를 들면 만화, 문화재, 동화, 동요, 음식 등을 비교해 보면서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찾아내어 학생들이 서로의 문

화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통일교육에 있어서 다문화 인식을 위한 활동은 아주 효과가 있었다고 하겠다.

본 토론자가 학급 학생들과 진행하였던 관련 수업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북한 애니메이션 '다람이와 고슴도치'를 감상하는 활동에서는 '다람이와 고슴도치'를 시청한 후에 우리나라 애니메이션과 비교해 보고,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다른 학생들과 나누어 보았다. 북한 애니메이션을 처음 접해보아서 그런지 모든 학생들이 신기해하면서 '다람이와 고슴도치'를 보았는데, 다음은 학생들이 북한 애니메이션 '다람이와 고슴도치'를 감상한 소감의 일부분이다.

배효진 : 말이 달라서 재밋기도 하고 느낌이 색달랐다.

이병준 : 북한 만화는 처음 보았는데, 많이 신기했다.

황지원 : 조금 촌스럽긴 했지만, 재미있었다.

조아영 : 북한 아이들도 우리처럼 만화를 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박재임 : 우리 만화랑 많이 다르고, 말투가 이상해서 말을 잘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림 1-1〉'다람이와 고슴도치'의 시청 모습



〈그림 1-2〉'다람이와 고슴도치'의 한 장면

지금까지의 학교 통일교육은 지나치게 단선적이고 주입식 위주의 강의 중심 교육이었다는 발제자의 말에 공감하며, 이로 인한 학생들의 통일교육에 대한 흥

미 상실, 부정적인 생각 등을 심어주어 통일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통일교육의 방법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학생들의 요구나 흥미에 맞게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통일교육에서 요구되는 교육 방법상의 원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⁹⁾

첫째, 능동적인 학습자관에 입각한 통일교육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통일교육에 있어 학생들은 통일에 대한 지식과 신념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빈 그릇’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구성주의적 입장에서 학습자들이 이미 습득한 사실과 정보를 바탕으로 그들 나름의 통일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신념을 구성해 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둘째, 수요자 중심의 눈높이 통일교육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통일교육 방법은 주로 교육자 중심의 주입식이나 정보전달 방식으로 이루어져 교육 수요자인 학생의 관심이나 발달 수준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학습자의 흥미나 관심을 고려한 눈높이 통일교육이 될 때, 통일교육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학습자는 자신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 것을 더 잘 배우는 경향이 있고, 학습 동기는 학습자들의 학습 효과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셋째, 대상에 따른 다양한 방법의 통일교육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통일교육은 방향과 목표 설정에만 지나치게 치중하여 통일교육의 교수·학습 방법과 기법 등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였다. 통일교육 학습 내용의 다양화와 차별화는 학습 내용의 제시 방식을 학생들의 학습 양식에 맞게 제공함을 의미한다. 브루너는 학생들의 발달 수준에 맞는 표상 형식인 작동적·영상적·상징적 양식을 사용하면 어떤 교과도 그 교과의 성격에 충실하게 학습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9) 배한동, 『새로운 통일교육론』, (경북대학교출판부, 2009), pp.260~263.

이처럼 학습자의 능력과 흥미를 고려하여 통일교육 내용의 제시 방식을 결정하고, 학습 양식과 학습 능력을 고려하여 학습 방법을 설계하며, 이에 따라 학습 활동이 이루어지면 학습의 효과는 더욱 극대화될 것이다.

넷째,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토의식 통일교육을 해야 한다. 종래의 안보 중심의 수동적·당위론적 통일교육은 통일교육 자체에 대한 편견과 무관심을 초래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려면 통일교육은 안보는 강조하되 미래지향적 시각에서 화해·협력도 균형 있게 다루어야 한다. 토의 수업은 타인의 의사 존중, 타인의 의사 경청, 타인과의 합의, 선입견과 편견의 수정, 합의 사항을 이행하는 책무성 등과 같은 민주적 기능과 태도를 익히게 한다. 이러한 토의 바탕을 둔 통일교육은 통일문제에 대한 판단 능력 배양, 민족공동체 속에서의 삶의 준비, 민주 시민이 지녀야 할 자질 함양 등에 유익한 역할을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통일교육 방법상의 원리를 고려해 보았을 때, 발제자가 제시한 다문화교육적 접근법에 의한 통일교육 교수·학습 방안은 학생들의 흥미를 고려하면서 통일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통일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업 기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¹⁰⁾

첫째,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을 들 수가 있다. 브레인스토밍은 특정한 주제 또는 문제에 대해 두뇌에서 폭풍이 몰아치듯이 생각나는 아이디어를 밖으로 내놓는 것인데, 이러한 방법은 학생들에게 통일문제에 대한 상상력이나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길러주는 데에 아주 유용하다. 브레인스토밍 활동은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고, 모든 아이디어가 수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이 방법을 통하여 얻어진 아이디어는 또 다른 토의의 대상이 된다. 학생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문제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 우리는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
- 우리는 왜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가?
- 분단으로 인해 우리는 어떤 손해를 보고 있을까?

10) 배장오, 『통일교육의 새지평』, (서현사, 2005), pp.42~43.

둘째, 유비토의를 들 수가 있다. 유비토의의 장점은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을 촉구할 수 있고, 복잡한 통일문제의 성격을 다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점이다. 학생들에게 만들어 보라고 할 수 있는 유비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 통일과 마라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 북한의 핵개발을 두더지에 비유한다면?
- 민족과 발전기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셋째, 직소우(jigsaw) 방법을 들 수가 있다. 직소우 방법은 5~6명의 학생들이 한 팀을 이루고, 학습할 단원을 집단의 수에 맞게 나눈 후에 각각의 학습자들에게 한 부분씩 학습할 부분을 나누어 준다. 각 집단에서 같은 부분의 내용을 학습할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전문가팀을 이루어 자신들이 학습할 내용을 서로 토론하고 학습한 후에, 다시 자신이 속한 원래의 집단으로 돌아가서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전문가팀에서 토의한 내용을 가르쳐 준다. 이러한 토의 방법은 협력적 과제해결의 능력을 신장시켜 줌과 동시에 긍정적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통일교육에서 직소우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한 예로, 북한의 실상에 대하여 학습한다고 가정할 때, 학습과제를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 5가지로 세분하고, 학습자들을 5명씩 나누어 집단을 형성하게 한 다음에,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학습과제를 나누어 준다. 그리고 각 팀의 구성원들은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가운데 하나의 학습과제를 부여받아 그것에 대한 집중적인 탐구를 하게 된다. 개별적인 탐구활동이 끝난 후에, 각각의 전문가 집단을 만들어 주고, 학생들은 각각의 전문가 집단에서 자신이 탐구한 내용을 토의하여 보다 완벽하게 학습과제를 해결하게 된다. 어느 정도 토의가 이루어진 후에 학습자들이 다시 원래의 소속집단으로 돌아가서 전문가 집단에서 심층적으로 학습한 내용을 다른 구성원들에게 가르쳐 준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은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에 대한 심층적인 학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넷째, 구조화된 논쟁(structured controversy)을 들 수가 있다. 구조화된 논쟁은

토의절차에서 가장 엄격한 규칙을 따르는 방법으로서, 두 개의 반대되는 의견을 지닌 2~3명으로 구성된 논쟁 참가자 팀이 주제에 대해 논쟁을 벌이는 것이다. 한 팀이 주장을 내제우면 다른 팀이 계속해서 논박하는 방법인데, 형식에 따른 논쟁토의가 끝난 후에 청중과의 일반적인 토의도 가능할 수 있다. 구조화된 논쟁은 동일문제에 대한 논쟁을 한편으로 기울게 하는 편견을 방지하고, 학습자들의 참여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섯째, 집단탐구(group investigation)를 들 수가 있다. 집단탐구는 학습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할 기회, 넓고 다양한 정보원에서 해답을 찾을 기회, 탐구의 내용과 과정을 함께 계획할 기회, 개인적 경험과 지식의 관점에서 해답을 이해할 기회 그리고 정보와 아이디어의 수시교환에 있어서 동료와 상호작용하는 기회를 극대화시켜 주는 장점을 갖고 있다.

여섯째, 디스코그래피(discography)를 들 수가 있다. 디스코그래피는 학습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교과내용을 담은 테이프나 레코드 등을 통해서 교육과정을 보완하고 보충하는 기법이다. 예를 들면, 한국전쟁 중 1·4후퇴 당시의 상황을 공부할 때에 그 시대의 역사적 사건을 묘사한 '군세어라 금순아' 노래 테이프를 학습자들에게 들려줄 수가 있다. 그리고 가사와 단원의 주제를 연결해 토의하게 할 수도 있다. 이것은 녹음테이프 자료만이 아니라 TV,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작품으로도 얼마든지 응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디스코그래피 기법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가르치고자 하는 주제나 핵심내용과 관련이 깊은 녹음테이프 자료나 비디오테이프 및 영화자료들을 정리하고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일곱째, PMR(plus minus reconstruction)을 들 수가 있다. PMR은 특정한 문제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각각 기록하고, 이들을 비교·분석한 뒤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이 둘을 결합하여 더욱 이익이 되는 점을 찾는 기법이다. 한 예로, 대북 쌀 지원의 장단점을 다양한 관점에서 비교하고 대북 식량지원의 효과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도록 할 수 있다. 학습자들은 대북 식량지원에 대한 정책이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측면을 고찰하기 위해 인터넷과 현장방문을 통해 통일부나 신문사 및 방송국 등에서 수집·정리한 자료를 준비하고, 이를 근

거로 대북 쌀 지원의 효과적인 방안을 다양하게 토론해 볼 수 있도록 한다. 이 기법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어떤 정책의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극소화하기 위한 방법들을 스스로 찾아볼 기회를 제공해 준다.

여덟째, 만화나 광고 활용하기를 들 수가 있다. 이것은 신문, 잡지, 팸플릿 및 다양한 책자 등에 나오는 광고나 만화 주에서 도덕과 수업과 관련이 깊은 내용을 오리거나 복사해서 영상매체로 보여주고, 학생들에게 그 작품을 보고 느낀 점을 자유롭게 말해 보도록 하는 기법이다. 그리고 왜 그렇게 보았는지 그 이유도 말해 보게 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수업의 동기부여 및 토론의 단서를 제공하여 수업을 매우 효과적으로 이끌어가게 한다.

아홉째, 마인드맵(mind-map)을 들 수가 있다. 마인드맵은 어떤 중요한 낱말이나 개념 혹은 이미지를 연상 작용에 의해 나뭇가지가 뻗어나가듯이 생각해 보도록 하는 기법이다. 예를 들면, '북한 어린이'라는 중심 단어는 '탁아소', '붉은 머플러', '꽃제비', '과장된 미소', '특이한 손짓과 말투' 등을 연상시키고, 또 '탁아소'와 '붉은 머플러'는 그것을 중심으로 다른 것을 반사적으로 연상시킬 수 있다. 이 기법의 장점은 아이디어의 성질이 유사한 것들을 하나로 묶어 줌으로써 보다 더 다양한 아이디어를 산출할 뿐만 아니라, 아이디어 간의 관계를 더욱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법을 활용하면 통일교육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학생의 심리상태와 생활체험의 폭과 깊이를 파악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열째, 확인하기(affirming)를 들 수가 있다. 확인하기 방법은 학생 자신이 선택한 가치에 대하여 여러 학생 앞에서 자신의 확신 또는 존중감을 표시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더욱 내면화할 뿐만 아니라, 익명성을 제거하여 행동으로의 연결 가능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기법이다. 예를 들면, 학생들이 '북한 어린이의 일상생활'을 공부했다면 수업이 끝날 무렵에 자신은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북한 어린이를 돕기 위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교사와 여러 친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다짐해 보게 하고, 그다음 수업시간에 자신이 다짐, 즉 확인한 내용을 어느 정도 실천했는지 또 실천이 미비했다면 이유

는 어디에 있었는지를 말해보게 함으로써 실천 가능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기법이다.

이 외에도 판놀이(board games), 신문 활용하기(NIE), 이야기하기(story-telling), 영상작품 활용하기(movie assisted instruction), 퍼즐게임(puzzle game), 인터뷰하기 등 다양한 보조기법들이 통일교육을 위한 수업에 활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통일교육을 위한 수업 기법은 다양한데, 각각의 주제와 활동에 적합한 수업 기법을 선택해서 활용하거나 여러 수업 기법을 혼합해서 활용하면, 통일교육 수업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아울러 통일교육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교사의 역할인데, 발제자는 통일교육에서 다문화교육적 접근을 위한 교사의 태도와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다문화교육적 접근에 따른 통일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사는 철저한 연구와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통일교육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토론자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학교에서 학생들을 교육하는 주체들의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의, 전문성 부족을 해소하여 통일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다.

둘째, 교사는 학생을 위한 모델로서 학생들이 자신의 가치를 발달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사의 긍정적인 태도는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여 학생들이 의욕적으로 통일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셋째, 교사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본 토론자는 학교 여건상 부족한 통일교육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교과 통합을 통한 교육과정 재구성으로 주제별 프로그램과 자료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다양한 통일교육 활동을 제공하였다. 이처럼 어떠한 교육 프로그램도 교사의 끊임없는 노력 없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없기 때문에 통일교육에서 교사의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V. 학교 통일교육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

현재 통일교육이 안고 있는 실태와 문제점, 통일 환경의 변화, 학습자의 요구, 다문화교육적 접근에 따른 새로운 통일교육의 방향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학교 통일교육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학교 통일교육은 학생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남북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상호존중의 자세를 체득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자극하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문화교육적 접근에 따른 학생 중심의 통일교육을 구현해야 한다.

둘째, 학교의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유기적인 협조가 노력이 있어야 한다. 창의적 체험활동(재량·특별활동) 시간 배당에 범교과 학습 주제 중 통일교육이 그 중요성과 필요성에 있어서 독도교육만큼 중요하므로 시간 배당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일선 학교의 통일교육에 있어서 교육 주체인 관리자와 교사들의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과 연구, 끊임없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통일교육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범교과 학습의 한 영역이 아니라, 학생들이 상호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성과 통일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확대된 다문화 시대의 통일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교육 주체들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교육 주체들의 관심과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연수 기회 확대, 통일교육 시간 확보, 인센티브 제공 등 관계 기관의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도덕과에서의 통일교육은 바람직한 통일의 방법,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 통일을 위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 등에 대해 강조점을 두고, 학생 스스로 통일과 북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도덕

과는 다른 교과에 비해서 통일과 북한 문제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기에 다른 교과를 통한 통일교육의 기초가 되는 교과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교육의 기초 교과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도덕과는 다른 교과의 여러 활동과 더불어 도덕과가 지향하는 통일교육에서의 강조점을 학생들에게 충분히 심어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고, 여기에 다문화교육적 관점을 접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VI. 맺는 말

도덕과 통일 관련 단위 수업, 사회과 몇몇 관련 단위 수업, 그리고 현충일, 6.25와 관련해서 하는 계기 교육으로는 학생들에게 북한과 통일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또한, 통일 관련 교과서와 지도서가 매년 학교로 보급되기는 하지만, 그것을 활용해 통일교육을 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단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재량·특별활동) 시간에 통일교육 시간이 배정되어도 겨우 한두 시간 남짓, 아예 시간 배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이처럼 학교 통일교육은 그 중요성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우선순위를 다른 곳에 내주고 있다.

아울러 일선 학교에서 통일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교육 주체인 관리자와 교사들의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의, 전문성 부족은 통일교육을 학교 교육에서 찬밥 신세로 전락하게 만들고, 그 결과 통일교육의 부정적 효과를 양산해내고 있다.

이러한 열악한 학교 통일교육 상황을 긍정적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학교 통일교육은 변화를 해야 하고, 그 변화는 다문화 시대를 살고 있는 현 시점에서 다문화교육적 접근을 통한 통일교육으로의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발제자가 끝으로 이야기한 것처럼 세계화와 함께 한국 구성원의 다양한 변화와 많은 북한 동포들이 탈북하여 공존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볼 때, 다문화교육적 통일교육은 그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하겠고, 이에 대한 논의와 노력이 앞으로 더 활발해져 학교 통일교육이 그 역할을 충분히 다할 수 있도록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12 학교통일교육발전 워크숍

국민적 통일준비 확산을 위해 찾아가는 통일교육

토론자료 II

참여와 공감의 통일교육의 실천적 성찰에 대한 토론

차미경 | 화랑중학교 교사

참여와 공감의 통일교육의 실천적 성찰에 대한 토론

차 미 경 (화랑중학교 교사)

- I. 서론
- II. 참여와 공감의 학교 통일교육의 실천사례를 읽고
- III. 통일교육의 일반적 진실에 대하여
- IV. 새로운 세계 질서 속에서의 한계와 가능성

I. 서론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모두 다 그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안목과 교육 현장에서의 실천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 그러한 점을 경험으로 느끼고 실천해 온 선생님만이 쓸 수 있는 좋은 원고를 보고, 분석하는 일은 대단히 흥분되고 자극이 되는 일이었다. 먼저 발표자 선생님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교사가 '바람직한' 통일교육에 대한 안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일관되게 실천하는 교사로 자리매김하기는 매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들에 직면하게 된다. 그 일례로 교사가 제시한 통일 영상 감상문 대회 결선 작품 심사의 사례도 공감이 가는 내용이었다. 교사와 외부 심사위원의 관점의 차이는 물론이거니와 심지어는 동과 교사들 사이에서도 글짓기 부문 우수작품을 선별할 때 의견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더 나아가 통일교육에 대한 관점 자체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통일교육 자체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다수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인 학교에서 통일교육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 가기란 너무나도 힘들고,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한 현장에서 학생들의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바람직한 콘텐츠 자료들을 구현하는 노력의 필요성도 많은 교사가 간절히 바라는 일이지는 하나, 동일한 고민을 하셨을 교사가 다른 교사들에게 도움될 자료와 의견을 제시해 주신 것에도 동과 교사로서 고마운 일이다.

통일교육을 통합과 평화의 교육으로 바라보는 관점에도 절대적으로 공감하며, 앞으로의 우리 사회가 다양한 문화와 공존하면서도 같은 민족의 아픔을 보듬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방향성을 잃지 않게 되기를 희망한다.

그러한 점에서 통일교육은 남북 간의 문제들만 다루는 좁은 의미의 것이 아니다. 이미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차별과 소외를 비롯하여 일반 교육 현장에 만연하고 있는 폭력 문제를 풀어나가는 열쇠의 역할도 함께 하게 될 것이다.

학급을 구성하고 있는 급우가 늦게 등교하거나, 심지어 며칠을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도, 단체 활동을 할 때 짝이 없이 있어도 관심 두지 않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답답하고 가슴 아파한 적이 있었다. 급식소에서 밥을 먹을 때 곁을 주지 않는 아이들 주변부를 돌다가 마주 바라볼 친구 없이 혼자서 억지로 밥을 먹는 친구가 있어도, 끼리끼리 깔깔거리며 행복한 듯 지내는 학생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한다. 이러한 장면을 기성세대가 아이들에게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절대로 경쟁에서는 이겨야 하고, 앞서 가야 하고, 그 결과가 행복을 보장하며, 그것만이 진리임을 강조하지 않았는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나에게 언제나 모범을 보이는 존경하고 따르고 싶은 사람이 주변에 있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더 바람직한 세상은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나와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려 소중하게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은 쪽이라고 생각한다.

‘굶어 죽는 동포가 없기를, 삶을 꾸려가는 것이 죽는 것만큼 괴롭지 않기를, 두 번 다시 이 땅 위에 전쟁이 없기를’ 바라는 우리들의 노력이 확산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아울러 남북 관계에서도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정착, 남북 교류 협력의 증대와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합의들이 만들어진다면, 통일교육의 여건도 더할 나위 없이 좋아질 것이고, 미래에 살아갈 아이들에게 바람직한 사회는 더욱 빨리 올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대내·외적 통일 환경은 그렇지 못하다. 군사적인 면이나, 교류 협력 면에서도 그렇고, 미래에 대해 불안한 젊은이들의 모습에서 통일 역량을 키우기는 더욱 어렵다.

그러나 통일은 다양한 방면에서 준비한 후에 맞이해야 함을 인식하고, 함께 노력하여 큰 그림을 그리는데 동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록 작은 모자이크 한 조각이 될 뿐일지라도 통일교사로서의 노력이 더욱 소중한 시기이다.

II. 참여와 공감의 학교 통일교육의 실천 사례를 읽고

발표자의 원고 속에서는 교사 주도로 통일교육을 이끌어가는 힘든 상황이 보이지 않는다. 견고하고 일관되게 노력하시는 분만이 가질 수 있는 실천 사례로 가득하다. 마치 잘 길러져 싱싱하게 열매 맺은 과일들이 주렁주렁 달린 농장에 들어와 있는 듯한 기분이 들어, 한 분야에서도 전문가가 되지 못한 남루한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

먼저 발표자의 실천 사례 속의 동영상 활용 교육방법은 매우 바람직하다. 동영상 자체가 주는 흥미에만 머물지 않고, 분석하여 질문을 미리 준비하는 부지런하고 열정적인 선생님의 모습이 담겨있어, 생각하고 느끼며 공부하는 아이들은 생동감 있는 수업의 주인공이 되어 있었을 것이다. 또한, 알찬 동영상을 선별하여

수업에 적용하는 일은 많은 시간을 통일교육에 투자하는 교사만이 할 수 있기에 더욱 훌륭하다. 또한,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로서 꼭 참고하고 싶은 자료들이기도 하다.

또 집단 대화학습을 오랫동안 실천하신 점도 배울 점을 제시해 준다. 통일문제를 전문가들이나 정치가들만의 것이 아닌 학생들 스스로 대화를 통해 합의하는 과정에서 답을 찾아간다는 것은, 그러한 수업을 반복하여 해왔던 학생들에게 사고의 유연성과 융통성, 배려심과 주도적 학습 능력까지 길러졌을 것이다. 그러나 수업에 적용하여 기록하고 다시 점검하고, 발표하고, 보충 설명까지 하는 일은, 지도하는 선생님의 탁월한 능력이 있어야 하는 일이며, 수행평가로 점수화까지 하는 것 역시 배워두고 싶은 교수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학생 작품 활동으로 통일 탐구장, 통일연극공연과 관람, 만화그리기, 통일신문 제작하기, 통일광고 패러디, 통일 협동화 그리기, 통일 UCC 영상 만들기, 온라인 소통활동, 모듬일기쓰기, SNS 활용하기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등)등을 제시하였다.

그러한 실천 사례 중 일부는 통일교육을 실천하는 교사라면 한 번씩은 해 보았을 법한 것들이다. 그러나 한 교사가 이 모든 것을 실천하였다는 것은 놀라움 자체이다. 신문 자료를 붙이고 자신의 생각을 적는 탐구장이나 만화그리기, 패러디물 만들기, 통일 신문제작, 협동화 그리기 등은 학생들에게도 무리 없이 요구할 수 있기도 하고,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가 비교적 쉬운 방법이라 많은 교사들이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없는 것들이다. 아마도 대다수 선생님들이 호국 보훈의 달에 학교 행사의 일환으로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험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연극 공연은 그렇지 않다. 행정적 지원문제도 복잡할 것이고, 학부모들에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것임을 설득하는 일도 쉽지 않았을 것이고. 그 모든 것을 해결한다 해도 기술적인 면에서 한 교사가 지도하여 공연까지 하였다는 것은 한두 마디로 평가할 수 없는 대단한 일이다.

물론 그러한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통일교육은, 선생님의 지도를 받은 학생들이 몇 년의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가치관의 변화 없이 통일문제에 관심 갖는 젊은이들로 살아갈 수 있는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또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스스로 영상을 제작하고 온라인으로 소통하며, SNS 활용하기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등)까지 교육 실천 방법이 진화하고 있는 것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은 정적인 것보다 동적인 것에 더 관심을 보이고, 온라인상에서 자기표현 하는 것을 좋아하며, 즉각적인 공감을 얻는 일에 익숙한 세대이다. 그러나 교사들은 유연하지 못하고 정형화되어 있거나, 견고한 모습을 유지함으로 인해 아이들과 가까워지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발표자는 일관성 있게 꾸준히 통일교육 방법을 발전시켜 가고 있어 많은 교사들이 실천 방법으로 배워가야 할 부분이다

Ⅲ. 통일교육의 일반적 진실에 대하여

발표자 선생님이 ‘북한 지역에서 남쪽을 바라보면 어떻게?’ 하는 상상을 하신 것처럼, 통일교육을 하는 선생님들 역시 그런 생각을 해 보았을 것이다.

‘내가 하는 통일교육이 감성적인 측면으로 기울어진 것은 아닐까?’ 또는 ‘주어진 자료만 활용하는 것이 최선일까?’ 하는 답답함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

‘나에게 더 많은 체험의 기회를 준다면 학생들의 마음을 열고, 확신을 갖게 하는 수업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기대나 바람을 하다 보면, 통일교육을 하는 담당 교사에게 연수의 기회가 다양하게 제공되어야 하고, 체험의 기회도 확대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그러나 교육현장에 소속되어 있는 교사들은 하던 일을 접어두고 연수를 선택하기도 쉽지 않고, 교과 내용의 일부로 자리 잡은 통일교육에만 매진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러다 보니 통일교육을 할 때마다 부족함을 느끼고, 한계점을 갖게 된다.

운이 좋게도 필자는 2004년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교육자 대회' 참가 기회가 있었다. 처음으로 군사 분계선을 넘어 북쪽으로 간다는 사실만으로도 설렘과 긴장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생소하기도 했지만, 가장 궁금한 것이 그들은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의외로 처음 만난 그곳의 선생님들은 진심으로 우리를 반겼고, 손을 잡고 체육대회도 하고 담소를 나누며, 아름다운 자연을 탐방하기도 했다.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냉방 장치가 잘되고 짙은 색깔로 처리된 우리 일행이 탄 버스가 북한 지역을 벗어날 때, 뜨거운 햇살 아래서 길 양쪽으로 늘어선 선생님들이 '잘 가시고 다시 만나자'고 오랫동안 손을 흔들어 주던 기억이 가장 오래 남았다.

잠시 동안이지만 마치 이산가족의 아픔을 다 이해할 것 같은 심정이었다. 그 이후에 금강산 관광과 개성관광을 도덕교사 모임에서 다녀오면서, 교사가 아닌 다양한 직업의 북쪽 사람들을 접할 기회가 있었다. 가이드로 참가하신 분에게 노래도 들려달라고 하면 부끄러워하면서도 흔쾌히 불러 주었고, 지나치는 사람들도 남측에서 온 관광객에게 정성을 다해 친절하게 대해 주었다. 미소 띤 얼굴로 손을 흔드는 주민들도 있어서, 따뜻한 동포애를 느낄 수도 있었다.

백두산 관광은 중국 땅에서 북한 쪽을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고, 중국 유람선을 타고 신의주 땅을 바라보면서도 많은 생각에 잠겼다. 남쪽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단둥시의 발전은 대단한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으나 북쪽은 초라한 1960년대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비록 남북 관계가 활발한 시기에 북쪽을 다녀온 세 번의 기회라 하더라도 수업시간에는 큰 재산이 된다. 직접 본 사람들, 음식들, 집들, 그들의 말투, 자연환

경 사용하는 물건 등등을 아이들에게 전달하면서 기회가 된다면, 더 많은 것들을 전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또한, 학생들에게도 그러한 기회를 준다면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공감하는 수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도 본다.

‘영상물 속에 등장했던 친구들을 만나게 된다면’ 하는 상상만으로는 통일교육을 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점은 학생들과 함께 조금만 시간을 투자하면 수업에 사용할 만한 많은 자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발표자 선생님의 의견처럼 좋은 자료를 제시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선입견을 고쳐 볼 기회를 만들어주고, 더 나아가 자신의 생각들을 글이나 작품으로 나타내는 과정들을 통해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의 통일교육에 대한 올바른 방향성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다.’라는 발표자의 견해에 공감한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 통일교육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기에는 다양한 어려움이 있다. 먼저, 집중이수제로 인해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과 수업으로 만날 수 있는 학년은 제한되었다. 또 계발활동으로 통일반을 운영하면서 일년 내내 통일 관련 수업을 할 수 있었으나, 그러한 시간이 불가능해졌다.(참고로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서는 1학년 담임은 모두 스포츠 동아리를 한 시간씩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 ‘호국보훈의 달 행사’등도 시간을 할애받지 못하여, 다양한 활동이 근본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문에 지정되어온 행사도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참고로 발표자의 통일교육 사례에 제시하지 않은, 계발 활동으로 ‘통일반’을 운영했던 사례와 ‘인성·통일 자료’를 통한 교육 사례를 제시해 본다

1. 전일제 클럽활동 통일반 운영

가. 통일반 운영의 방향

통일반을 신청한 아이들에게 통일에 대한 생각과 통일반 활동으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문 조사했다. 학생들은 통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으나 시기적으로 우리나라가 부자가 된 후에, 통일 이후의 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 때 통일을 하자는 생각이 많았다. 또한, 다양한 활동을 통일반을 통해 경험하고 싶어했다.

사실 많은 선생님들이 먼저 적용해 본 프로그램들을 빌려 와서 활동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았으나 아이들은 성의를 다해 참여하고 결과물들을 만들어 서로 비교하면서 스스로 배워가고 있었고, 그것을 바라보며 온통 통일과 연계된 시각으로 나를 다시 가다듬어 가는 한해였다.

나. 운영의 실제

차시	내 용	활 동 상 황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프카니스탄' 비디오상영 3교시 - 감상작성 • 신문자료활용 통일 패러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쟁의 비참함을 진지하게 감상함 • 느낌을 솔직히 잘 표현함. • 신문을 활용한 작품 만들기에서 다양한 패러디 작품이 만들어짐
5-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년병과 다이아몬드'감상 및 소감작성 • 북한 사진자료 감상 및 엽서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쟁의 참혹함과 비교하여 평화에 대한 소망을 잘 표현 하였음.
9-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혼탑 참배 • 한반도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지한 마음으로 참여함 • 적극적으로 깃발과 무궁화 꽃 만들기에 동참하고 즐거워함
13-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퀴즈대회 • 포스터와 시 감상 및 옮겨 적어 꾸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팅종이를 칠판대신 사용 • 상품으로 화해사탕, 한반도 뺏지, 디스켓, 노트를 줌 • 아이들 매우 즐겁게 참여함 • 작품을 감상하고 꾸민 것을 전시함

차시	내 용	활 동 상 황
17-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북 동질성 찾기 감상 및 남북 교육자 대회설명 통일나무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 아이들의 생활모습에 관심이 높았음 통일 나무 구성에 정성을 다함(4절지에 표현하기)
21-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양 교예단 비디오감상 통일 꽃 만들어 글씨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예단 공연을 집중하여 잘 감상함 꽃 만들기에 적극 참여하고 평화 통일 글씨 완성
24-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일환경 공부 통일옷판 만들기 및 옷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일에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 공부 세팀으로 나누어 옷놀이를 즐겁게 함
29-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일만화 감상 전쟁과 평화에 대한 소책자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화와 사진 자료 활용 핵과 전쟁과 평화를 주제로 다양한 책자 완성

다. 활동 자료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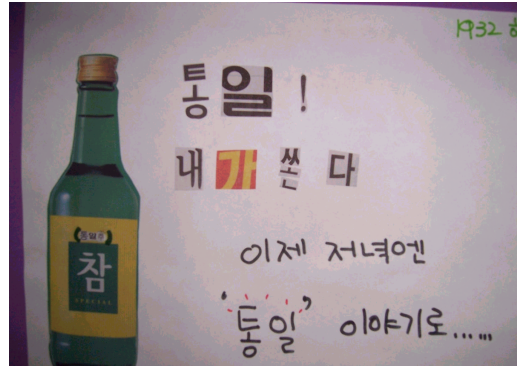
〈꽃으로 글자 만들기와 무궁화 한반도〉



〈감상문 및 통일나무꾸미기〉



〈신문을 활용한 패러디 만들기〉



〈총흔탑 참배〉



〈아름다운 한반도 꾸미기〉



〈살고 싶은 나라 글쓰기〉



2. 인성 · 통일교육 자료(예시)

- 가. 운영방법 : 연중 매월 실시
- 나. 인성, 통일 퀴즈함 설치
- 다. 도우미 학생 의견 수렴 후 게시물 제작 및 학급 배부
- 라. 퀴즈 정답자 추첨 및 선물 증정(다수의 교사 참여)

주관	윤리계	자료홍보	10월
인성· 계기 교육 자료			
10월의 중요한 날		한글퀴즈	
10월 2일 - 노인의 날 10월 3일 - 개천절 10월 9일 - 한글날 10월 15일 - 체육의 날 10월 20일 - 문화의 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 중 순수한 우리 말은 어느 것일까요? 기스 단도리 모찌 예리 시보리 유도리 입빠이 자바라 찌라시 후까시 히야시 가봉 고수부지 십팔번 이조 우와끼 회람 난닝구 레자 빵구 사라다 스텐 <p>*우리 말을 사랑하고 예쁘게 쓰는 학생들이 됩시다.</p>	
학교를 사랑하신다면	우리 학교 화단에 피는 꽃이 아닌 것은? 장미. 홍매화 . 나팔꽃, 접시꽃, 백일홍,수수꽃다,모란. 다알리아		
하면 할수록 좋은 말들		평화를 꿈꾸며 퀴즈 풀기	
마음을 깊고 넓게 해주는 말... "미안해!" 겸손한 인격의 탑을 쌓게하는 말... "고마워!" 날마다 새롭고 감미로운 말... "사랑해!" 사람을 사람답게 자리 잡아 주는 말... "잘했어!"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말... "내가 잘못 했어!" 모든 걸 덮어 하나가 되게 하는 말...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말... "친구야!" 봄비처럼 사람을 쑥쑥 키워주는 말... 네 생각은 어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에서 쓰고 있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바꾸어 보세요. 1.작시미 () 2.미리막이 () 3.건건이 () 4.가시아버지() 5.뱀 () 6.피돌이 () 7.뜰힘 () 8.잔메 () 9.알촉 () 10.벼락촉 ()	
*하루에 한번 짚은 자기가 했던 말을 돌아서 생각해 봅시다		* 너무 쉬웠다면 대단한 실력입니다.	
토막 지식	* NPT는 핵무기확산 금지 조약을 나타냅니다. 공식적으로 핵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들 일까요?		

IV. 새로운 세계 질서 속에서의 한계와 가능성

발표자가 바라보는 분단에 대한 시각과 통일교육을 평화교육으로 보시는 견해에 공감한다. 또한, 한반도의 통일은 세계 평화에 기여하게 되리라는 것에도 의견을 같이한다.

그러나 오늘날 한반도 주변의 질서는 평화를 위한 걸음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아울러 학교 통일교육의 여건도 정체되어 있거나, 통일교육에 의욕적인 참여를 보류하고 움츠린 모습으로 시기를 기다리는 형상을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발표자는 '통일교육도 새로운 모색을 해야 할 때가 된 게 아닌가'라고 하면서, '교사들에게 폭넓은 공부와 토론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는 의견을 보였다. 특히 남북의 상황뿐 아니라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는 우리 사회의 특징과 민족 동질성 교육이 양립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함을 주문한다.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의 모습이 분단 이전의 상태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자리 잡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고민일 것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대내외적 통일 환경과 북한의 실상 등은 정확하게 제시하면서도 효과를 가져오는 통일교육을 위한 지도방법과 내용체계가 유기적으로 잘 결합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은 개별적인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통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자료를 나누고 실천을 공유하는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마지막으로 독일 통일 당시 대통령이었던 R, 폰 바이체커의 충고를 전하고자 한다. "통일은 반드시 옵니다. 준비한 통일은 축복입니다.", "통일로 가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통일 후 많은 수의 북한 주민이 한국으로 이주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정, 문화, 사상, 인종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증오하거나 미워하지 마십시오, 서로 미워하지 않고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을 배우십시오."

2012 학교통일교육발전 워크숍

국민적 통일준비 확산을 위해 찾아가는 통일교육

토론자료 III

학교통일교육에 대한 반성과 활성화 방안

김민경 | 경산고등학교 교사

학교통일교육에 대한 반성과 활성화 방안

김민경 (경산고등학교 교사)

- I. 들어가며
- II. 학교통일교육의 반성
- III. 주제 발표에 대한 검토
- IV. 학교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
- V. 나오며

I. 들어가며

최근 한반도의 정세변화와 사회 변동과 관련하여 대통령께서 '통일이 정말 가까이 왔다'고 언급을 한 적이 있다. 대통령의 발언은 여러 분야에서 다방면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교육적인 면에서는 통일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고 있음이 분명하다.

통일교육은 분단의 현실을 직시하고, 통일에 대해 어느 시점이나 상황에서 국내외적 변화가 일어나서 겪게 될 미래를 가르치는 교육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통일교육이 지향하는 통일 미래는 우리 대한민국의 노력 여부에 따라 바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학교통일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남북 분단 이후 우리의 통일교육 방향은 '반공교육', '통일 안보교육', '통일교육'으로 변천해왔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처럼 먼 미래를 내다보고 설계해야 하지만, 학교통일교육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교육의 방향과 내용이 좌우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입시 위주의 교육 현실에서 통일교육은 마지못해 실행해야 할 하나의 교육 시책 정도로 여겨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단순히 통일에 대한 당위성 강조와 감상적이고 홍보적인 성격의 교육 방법이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 통용되고 있으며, 6월 '호국보훈의 달'에만 실시되는 일회성의 행사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장의 현실이다. 또한, 교육의 대상인 학생들의 통일관도 날로 부정적인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우리가 학교 통일교육에 대한 이런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통일에 대한 염원은 한낱 소망에 그칠 뿐 현실로 다가올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오늘 남북한 관계는 분단과 갈등을 벌이고 있지만 우리의 통일의지를 올바르게 모아가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그러한 방안으로의 통일교육은 새로운 전환점을 모색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따라서 본 토론자는 이런 문제의 원인을 다각도로 점검해 보고, 주제와 관련하여 토론자의 입장을 밝히고, 통일교육의 바람직한 방향과 목표를 간략히 제시하는 것으로 토론에 임하고자 한다.

II. 학교통일교육의 반성

학교 현장에서는 통일교육의 활성화라는 시대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 실천에 있어서 많은 한계를 갖는다.

학교통일교육에서 가장 큰 문제는 통일과 관련된 여러 설문조사의 결과가 알려주듯이 교사와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당위성 저하, 통일에 대한 무관심 증가일 것이다. 분단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개인주의 성향으로 인해 민족문제나 공동체의 문제에 둔감한 학생들은 대학진학을 위한 수능시험과 학교 내신 성적을 올리는데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통일과 복한 관련 문제는 본인

들이 관여할 일이 아니고 기성세대들이 해야 할 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무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두 번째 문제로는 통일교육의 기회 부족이다.

통일교육지원법이 제정되고 통일부와 통일교육원,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통일교육을 우리 민족의 미래교육 차원에서 강조하고 지원해왔다고는 하지만 정교 교육과정 안에 통일교육 관련 내용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였다. 더구나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집중 이수제와 통일교육 시수 감축으로 학교통일교육이 사실상 사라질 위기에 처하고 있다.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통일교육을 대표하는 도덕과 교육과정을 보면 「국가·민족·지구공동체와의 관계」라는 영역에서 통일교육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즉 통일 문제를 국가·민족·지구 공동체와의 관계 영역에서 다루면서 통일에 대해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세계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요구한다. 그러한 입장은 의의가 있으나, 가르칠 영역의 범위가 확산되면서 통일교육에 대한 영역이 축소된 것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또한, 고등학교의 도덕과 교육은 전혀 학생들이 배울 수 없게 되었고, 도덕과 관련 심화 과정인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에서는 겨우 명맥만 유지하게 되었다.

도덕과 뿐만 아니라 역사, 사회, 국어과 등에서도 통일교육 내용의 전반적인 축소로 인하여 학생들에게 통일교육을 가르치기에는 너무도 어렵게 되었다. 통일을 준비한다고 말하면서 현실적으로는 통일을 준비하는 교육의 기회가 매우 부족하다. 그리고 국어, 수학, 영어 교과 중심의 입시교육 풍토와 교육과정 편성도 통일교육의 기회를 부족하게 만드는 이유의 하나이다.

세 번째로 학교통일교육의 내용의 한계이다.

사상, 이념, 체제, 통일 방법 등의 통일문제는 전문가들도 이해와 예측이 어려운 내용이다. 이런 내용을 학생들이 학습한다는 것은 당연히 어렵고, 접근하기 힘든 문제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교과서의 내용에서도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의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남북한 비교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남북한 통일정책 비교 내용에서는 남북의 사상, 이념, 체제는 합치점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남북이 하나로 통일을 이루기는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상당하다.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내용에서도 괴리감, 이질감을 부추겨서 되려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도록 하고 있다. 결국, 학생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통일의 필요성으로 가장 먼저 제시되고 있는 단일민족의 재결합 논리는 세계화 시대에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주변 강대국들의 민족주의를 자극하여 경계심을 유발할 소지가 있고, 이산가족의 고통해소 논리는 이산가족 1세대의 사망으로 인해 그 수가 현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역부족이다.

또한, 막대한 통일비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어린 세대들에게 통일이 가져올 구체적인 이익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설명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 통일의 방법 또한 일관성이 없고 막연하며, 가난한 북한과의 통일로 인해 우리 남한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크다는 것만 크게 부각되고 있어 청소년들에게 통일에 대한 회의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통일방안에 대한 공식 해설서인 '통일교육 지침서'에는 통일교육의 내용으로 통일문제의 이해, 북한 이해, 통일 환경의 이해, 통일정책, 통일을 위한 과제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제시한 '통일교육 지침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따라 그 내용이 변화하고 있다.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학교현장의 통일교육은 평화보다 국가안보가 우선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안보교육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도록 통일교육지침이 내려져 있다. 그러나 정권 변화 때마다 수시로 바뀌는 통일교육은 교육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변하는 통일정책 때문에 일선 통일교육 교사들은 당황과 혼란으로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이 약

화되고 통일교육에 대한 의지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네 번째로는 교수학습 모형 및 교육 콘텐츠의 빈곤을 들 수 있다.

통일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교과서 내용을 지식 중심으로 전달하는 교사의 교수·학습법과 흥미를 느낄 수 없는 교과서의 내용, 교사의 지도에 학습 동기유발조차 이루어지는 않는 학생들의 소극적인 학습태도가 연결되어 학교 통일교육의 효과에 의문을 던지게 한다.

교사의 일방적인 주입식 전달교육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 학생들은 통일문제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흥미도 가지지 못하게 된다. 통일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교육이 아니므로 자발적인 학습참여가 없이는 가치의 내면화로 이어질 수 없고, 실천으로 연결될 수가 없다. 따라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을 구안·적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과서의 서술은 대화와 토론을 이끌기보다는 단정적인 경우가 많아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이끌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통일교육원에서 발행되는 ‘통일교육지침서’는 교사용 참고 자료일 뿐 이를 교실 수업에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 학생 중심의 학습 자료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교사는 교과서 이외의 다양한 교육 자료를 찾아내어 이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교육 자료를 검색하고 여러 교수·학습 방법들을 구안·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학교통일교육의 행사도 많이 형식화되어 행사를 위한 행사로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 학생들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해마다 6월이면 통일 글짓기 대회, 포스터 그리기, 표어 짓기, 강연, 전적지 견학 등의 행사를 통일교육이란 이름으로 진행된다. 행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통일에 대한 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목적인데, 기존의 것을 답습하는 통일 관련 행사는 학생들의 흥미를 떨어뜨리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학교에서 통일교육은 전문 강사 또는 귀순용사, 북한이탈주민을 초청하여 교육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학생들의 주목을 끄는 강연은 보기 힘들다. 또한, 강당 등에서 일회성 집단 교육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섯 번째로는 교사의 전문성 부족을 들 수 있다.

통일교육은 그 영역이 넓고 깊이 있는 내용이 많아 교육하기가 수월하지 않다. 따라서 담당교사는 장기간의 전문적인 연수가 필요하다.

민족 분단의 과정, 북한의 실정에 대한 이해, 우리의 대내외적 통일 환경, 남북한의 통일정책 변화 과정, 통일 실현을 위한 선결 과제, 통일 한국의 미래상 등에 대해 기본적 소양에서부터 전문적인 지식을 두루 필요로 함에도 학교 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지도 능력을 갖춘 교사를 찾기 어렵다.

학교 현장에서 통일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지도교사의 전문성 제고에 방해되는 요소이다. 일부에서는 통일교육을 정부 또는 정권 차원의 국정 홍보교육에 불과하다는 편향된 시각을 가진 경우도 볼 수 있다. 아울러 통일 환경이나 통일정책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교육내용을 교실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짧다는 것도 문제점의 하나로 지적할 수 있다. 이런 문제들은 교사들의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의 약화와 통일교육에 대한 의지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Ⅲ. 주제 발표에 대한 검토

교사와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당위성 저하, 통일에 대한 무관심 증가, 입시 위주의 교육과정에서 통일교육의 기회 부족, 학습자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통일교육의 내용의 한계, 통일 관련 교수-학습 모형과 교육 콘텐츠의 부족, 교사의 전문성 부족들이 학교통일교육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자 한계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앞에서 지적된 학교통일교육의 문제점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발제자이신 상모중학교 심근석 선생님께서 어느 정도 해답을 제시하셨다고 생각한다.

통일교육은 평화교육과 안보교육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도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심근석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에게 통일이나 북한 문제에 대하여 주관적 친밀감과 객관적인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주어진 학습의 준거를 달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학교통일교육의 모습이라 제시하셨다. 그리고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학습자의 참여와 공감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여러 실천 사례들을 제시하셨다.

특히 ‘참여’와 ‘공감’의 학교통일교육의 실천사례에서 보인 학생들의 결과물은 통일교육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시는 것 같았다.

그와 더불어 마지막에서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제시하셨던 교사들의 실천 사례 공유, 통일교육을 실천하는 교사들의 모임 등의 제안은 학교 현장에서 제일 시급하고, 가장 실현 가능한 일이라 생각이 든다.

심근석 선생님의 실천사례를 보며 본 토론자는 많은 감동과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몇 가지 의문점이 남는다.

본 토론자는 우리나라 교육 현실상 입시 위주의 교육체제 속에서 통일교육의 위상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도덕 교과에서 통일교육은 축소되었고, 범교과 교육으로 통일교육을 녹여내라고는 하지만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불가능하다.

본 토론자는 역사과 교사이고, 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다. 역사 과목에서도 통일과 관련된 단원이 있지만, 거의 마지막에 배치되어 있어 학기 말에 수업이 거의 이루어진다. 그리고 시험 범위에도 빠질 경우가 많아 교사도 학생도 크게 중요치를 두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수능에서도 통일과 관련된 문항이 출제가 잘 되지 않아 더욱더 그렇다.

고등학교의 경우 2학년으로 진학하면서 인문반과 자연반으로 나누어 진다. 이때 자연반 수업에서는 역사나 도덕과 수업들은 거의 자습이 이루어지거나 단순히 교양을 듣는 수준에서 수업이 진행된다. 그런 학생들에게 학생들의 참여를 요

구하는 토론 학습, 소집단 학습, 협력 학습 등을 사실 어렵다. 수행 평가로 반영을 한다고 해도 대학 입시에 반영이 안 된다는 이유로 학생들은 참여를 얻기는 힘든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인문반은 어떠한가? 인문반 역시 수능에서 선택 할 과목이 아닌 이상 자연반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3학년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 이런 학교 현실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할 수 있는 통일교육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졸업 이후 대학을 진학하거나 사회인이 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고등학생에게 북한에 대한 이해, 통일에 대한 관심과 방향 제시 등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이다. 어떻게 해야 학생들에게 통일은 나와 별개가 아닌 나 자신과 관련된 문제라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을까?

IV. 학교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

<표1>은 최근에 우리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이다.

청소년들의 통일과 통일교육에 대한 인식					
1. 통일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					
예	60.7%	아니요	27.5%	모르겠다	11.8%
<p>* 찬성 이유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다. 아직 서로 모르는 것이 많다. ▪ 전쟁으로 인한 이유 없는 죽음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 북한의 경제 상황 때문에 한번의 통일은 불가능하고 흡수통일을 해야 한다. ▪ 북한의 자원과 남한의 기술이 합쳐지면 경제대국이 되어 선진국이 될 수 있다. <p>* 반대 이유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방식이 다르고 통일을 한다면 북한에게 많은 돈을 줘야 하기 때문이다. ▪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합친다면 많은 혼란을 가지고 오기 때문이다. ▪ 통일을 해도 도움 될 것이 없을 것 같다. 					
2. 북한과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다.					
예	80.4%	아니요	15.8%	모르겠다	3.8%
<p>* 찬성 이유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과 우리는 하나의 민족인데 외세에 의해 강제로 분단되었기 때문이다. ▪ 말과 풍습이 같은 하나의 민족이다. <p>* 반대 이유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 민족이라면 전쟁을 하고 떨어져 살 이유가 없다. 					
3. 학교에서 통일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다.					
예	78.8%		아니요	21.2%	

4. 통일교육을 받으면서 혹은 받은 후 통일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 아무 감정이 없었고 빨리 수업이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 분단 과정을 통해 민족이 얼마나 아픔을 느꼈는지 알았고 하루 빨리 통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 북한의 처절한 삶을 알 수 있어서 안타까웠다.
- 북한과 통일을 했을 때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설명해 주었는데, 혼란이 많이 생겼다.

5. 본인들이 느끼는 통일교육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 학생들의 참여의 기회가 적다.
- 딱딱하게 교과내용으로만 수업하는 것이 아쉽다.
- 알고 있는 내용,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지루하다.
- 교육시간이 짧다.
- 상세하지 않고 추상적이다.
- 여러 자료들을 활용하면 좋겠다.
- 통일의 장점만 말하고, 통일의 절차 등은 무시하고 통일만을 강조하는 것 같다.

1번 설문조사의 결과 상당수 학생이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보면 같은 민족이기 때문이라는 당위성이 많았다. 반면 '모르겠다'는 무관심을 보인 학생과 '반대한다'는 학생들도 적지 않았다.

2번 설문조사의 결과에서는 대다수 학생들이 북한을 같은 민족으로 인식하였고, 3번 조사에서는 대부분 학생들이 학교통일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4번과 5번의 설문조사에서는 학교통일교육의 실효성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학생들의 응답처럼 반복된 내용 전개, 학생 참여 기회 부족, 추상적인 내용, 당위성만을 강조, 남북한 비교만 하는 학교통일교육이 얼마만큼의 교육적 성과를 가져왔는지 의구심이 든다.

이런 학교 현장의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의미 있는 학교통일교육을 할 수 있을까? 설문조사 때 보았던 학생들의 답변 중 몇 가지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 '남북한을 너무 비교하고, 북한의 안 좋은 상황만 보고 나니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생겼다', '진정 우리가 통일을 원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통일을 자꾸 해야 한다니까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크게 나의 현실이라는 생각은 와 닿지 않았다', '뻔히 아는 이야기를 제시하니 지루한 생각이 더 많았다' 등의 의견이 있었는데, 이것은 통일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잘 보여준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학생들이 통일교육을 받았음에도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은 증가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든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생각하는 효과적인 통일교육 방법은 무엇일까? 설문조사의 답변에서 학생들이 제일 많이 제시하였던 것은 '체험'과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통일교육이었다.

예를 들어 북한이탈주민과의 대화도 단순히 강당에 전교생을 모아두고 하는 일회성 교육이 아니라 직접 대화도 하고, 함께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통일전망대나 판문점의 방문 등의 통일 기행 같은 것도 실시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상당수 있었다.

이것은 학교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으로 교육방법이 체험과 활동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체험과 활동 중심의 통일교육은 기존의 교과서 중심의 통일교육의 실효성을 극복할 수 있으며, 또한 정부의 보호막에서 벗어난 자율적인 활동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참여형, 체험형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이 절실히 요청된다.

그리고 체험과 활동을 강조하는 통일교육의 예로 제시된 통일 캠프, 통일 기행 등은 비용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 국가 차원에서 인적, 물적,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질 관리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둘째로 학교 통일교육의 기회를 늘이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도 계속되어야 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교과목의 축소, 창의적 체험활동의 도입, 학생의 진로 희망을 감안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입시경쟁에서 자유롭지 못한 교육여건에서 국어, 영어, 수학과 같은 교과목의 시수는 증가할 우려가 크며 실제 그렇게 전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일교육의 차지하는 비중은 너무나 미미하다.

그래서 통일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개편, 교과서 편찬, 교육 정책 수립에 통일부, 교육과학기술부, 통일교육원, 시도 교육청 등 유관 기관과 교육학회, 교사 연구회 등이 상호 협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로 관리자의 의식 전환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통일교육원에서는 학교장을 포함한 관리직 연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학교장의 관심과 열의가 학교통일교육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학교장은 구체적인 학교통일교육을 할 수 있도록 연간 통일교육 계획을 꼼꼼히 검토하고 실시할 수 있도록 물질, 인적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

넷째로 통일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의 주체인 교사의 연수 기회를 확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통일교육 담당교사들뿐이 아니라 전교사를 대상으로 통일교육 연수를 실시하여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연수 과정에서도 관련 교과 과정, 비교과 과정, 기초과정과 심화과정, 전문가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개설하면 맞춤형 연수가 가능해 질 것이다. 그리고 현재 통일교육원에서 교사 대상 연수를 실시하지만, 서울에서만 실시되고 있으므로 지방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을 위해 지역별 순회 교육도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학교장과 교사들의 의식 개혁 없이는 아무리 통일의지가 확고한 교사라도 현장에서 제대로 된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섯째로 교사들이 수업시간에 활용 가능한 다양한 교육 자료들을 개발하고 지원해 주어 학교통일교육에 대한 교사의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 교과별, 단원별 관련 통일 및 북한 관련 영상, 수업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PPT 자료나 최근의 북한 동향과 관련 사진 등을 통일교육원이나 유관 기관에서 공유, 제공해 준다면 교사들의 통일교육에 대한 부담도 많이 줄어 학교통일교육이 좀 더 활성화 될 것이다.

여섯째,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도 실시되어야 한다.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 증가 현상은 학부모의 영향도 크다. 학생들은 학교 교육 이전에 이미 부모로부터 가정교육을 통해 삶을 배우다 보니 어릴 때부터 부모들의 생각이나 가치관들에 의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많은 교육을 받아 왔기 때문이다.

요즘 청소년들의 부모들은 대다수가 전후 세대로 전쟁의 경험이 없어 이산가족의 아픔과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통일을 남의 일처럼 느끼고 있는 세대들이다. 그리고 이런 부모들의 통일의식이 자녀의 통일의식에도 당연히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학부모 교육도 함께 실시되어야 한다. 학부모들에게 통일교육, 통일 현장체험 등을 하여 분단의 아픔과 고통,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올바른 통일관을 형성시킨다면 학부모 교육 이상 좋은 학생 교육은 없을 것이다.

일곱번째로 사회적인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통일 분위기를 만드는 사회통일교육도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은 혼자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전 사회 구성원이 어릴 때부터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전 국민운동의 차원에서 통일교육을 실시하여 전 국민의 통일의지를 함양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통일 주역들의 의식도 변할 것이다.

그리고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중요한 덕목으로 '다름'과 '배려'를 이해하며 다양화된 사회 속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차원에서도 통일교육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통일교육은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교육내용 선정 시에도 학습자들의 통일교육에 대한 요구를 조사하고 이를 반영하여 학습 동기 유발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통일교육 과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교과, 학년, 학교 간에 내용의 중복이 심하고, 학습자 특성과 괴리된 통일교육을 대신하여 참여와 공감의 실효성 있는 통일교육이 이루어져 학교통일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V. 나오며

통일은 우리 민족 모두의 염원임에 변함이 없으나 통일은 절대 쉽지 않은 과제이다. 통일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통일은 우리 모두의 땀과 노력으로 이룩하는 것이다.

그래서, 통일을 앞당기고 통일된 조국을 만들어 이에 적응하며 살아가야 할 통일 세대들을 교육시키는 일 또한 중요한 당면 과제이다. 그러므로 통일 한국을 이끌어 갈 우리 학생들에게 통일 주역으로서 통일역량을 배양하는 길은 학교통일교육이 활성화되는 길뿐이다.

학교통일교육은 통일 이전과 이후에 살아갈 경쟁력을 갖춘 민주시민 양성을 염두에 두고 통일 과정에서 그리고 통일 이후 새로운 국가 건설에서 문제에 봉착했을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통일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이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이는 청소년 통일교육의 출발점임과 동시에 핵

심내용이다. 청소년에게 통일은 민족의 발전을 저해하는 분단의 극복과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국가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 필수적임을 인식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청소년들에게 통일은 국가와 민족만이 아닌 각자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만 청소년들의 올바른 통일 인식, 미래 지향적인 통일관, 건전한 안보관, 균형적인 북한관을 바탕으로 통일문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사회가 진정한 통일 미래의 학생들을 배출하고 싶다면, 통일 교육에 대한 홀대나 무관심을 먼저 줄여야 한다. 그리고 교사들의 통일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꾸어야 한다.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은 바로 교사들의 몫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통일교육을 실천하는 여기에 참석한 우리부터라도 통일의 긴 여정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려는 의지를 가지고 학교통일교육의 활성화에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통일부 통일교육원(2011), 『경남지역 학교통일교육 발전 워크숍 자료집』
2. 통일부 통일교육원(2011), 『제주도지역 학교통일교육 발전 워크숍 자료집』
3. 통일부 통일교육원(2011), 『울산지역 학교통일교육 발전 워크숍 자료집』
4. 통일부 통일교육원(2011), 『전남지역 학교통일교육 발전 워크숍 자료집』
5. 통일부 통일교육원(2011), 『경기도지역 학교통일교육 발전 워크숍 자료집』
6. 통일부 통일교육원(2012), 『통일교육 운영계획』
7. 통일부 통일교육원(2012), 『통일교육 기본계획』
8. 한만길, 『통일교육의 이론과 실천』, 교육과학사, 2001.
9. 연합뉴스, 통일교육원, '학교 통일교육 문제 제기', 2011

2012 학교통일교육발전 워크숍

국민적 통일준비 확산을 위해 찾아가는 통일교육

사례발표

탈북청소년 이해 및 적응과제 모색

윤도화 | 한겨레중고등학교 교감

탈북청소년 이해 및 적응과제 모색

윤도화 (한겨레중고등학교 교감)

- I. 들어가는 말
- II. 탈북청소년들의 일반적 실태
- III. 탈북청소년들의 가정 폭력실태
- IV. 탈북청소년들의 학교 적응실태
- V. 일반학교 부적응으로 한겨레중고등학교로
전학한 탈북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결과
- VI. 나가는 말

I. 들어가는 말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과 우려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소수자 학교폭력의 문제점과 인권보호에 대한 관심은 매우 의미가 있다.

북한이탈주민 자녀(이하 탈북청소년)의 학교폭력에 대한 주제발표를 준비하면서 선행 연구 자료를 찾는 과정은 매우 힘들었다. 이를 통해 탈북청소년들의 초기 학교적응 및 특성에 관한 연구와 사회심리적 적응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발표는 한겨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된 자료와 이전에 발표된 일부 보고서를 중심으로 진행하려 한다. 세부적으로는 탈북청소년들의 학교폭력 현황 및 과제에 대해서 정리하고자 한다.

Ⅱ. 탈북청소년들의 일반적 실태

1. 분석의 개관

조사에 참가한 한겨레중고등학교 학생은 2006년 본교가 개교한 이후 2010년 12월 31일까지 학교에 편입학하여 교육을 받은 학생들로 편입학 초기에 교사가 직접 학생 개개인의 면담을 통해 조사한 것으로 객관성을 높이는데 주력했다.

2. 학생 실태 현황

가. 심각한 학력결손

95년 이후 북한의 경제체계가 사실상 무너지고 평양 이외 지역의 배급제도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식량난에 의한 북한 내 공교육이 무너지게 되었다. 특히 함경북도와 함경남도는 그 지역적 특색으로 인하여 그 정도가 심각했으며, 학생과 교사가 먹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학교에 나가지 못하는 최악의 현상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표-1〉 북한출신지역

거 주 지	인원수(남+여)	남	여
강 원 도	3 [1%]	1	2
양 강 도	24 [5%]	11	13
평안남도	25 [5%]	5	20
평안북도	3 [1%]	0	3
함경남도	44 [9%]	25	19
함경북도	310 [65%]	122	188
황해남도	5 [1%]	4	1
황해북도	6 [1%]	2	4
기 타	57 [12%]	19	38
합 계	477[100%]	189	288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출신지를 살펴보면 함경북도와 함경남도 출신이 전체 74%가 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함경북도와 함경남도가 지역적으로 두만강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탈북하기가 쉽다는 원인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경제적 곤란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북한 이탈 당시 학력 수준을 보면 학업에 열중해야 할 청소년기에 중도에 학업을 중단하게 되는 심각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표-2> 탈북 당시 북한의 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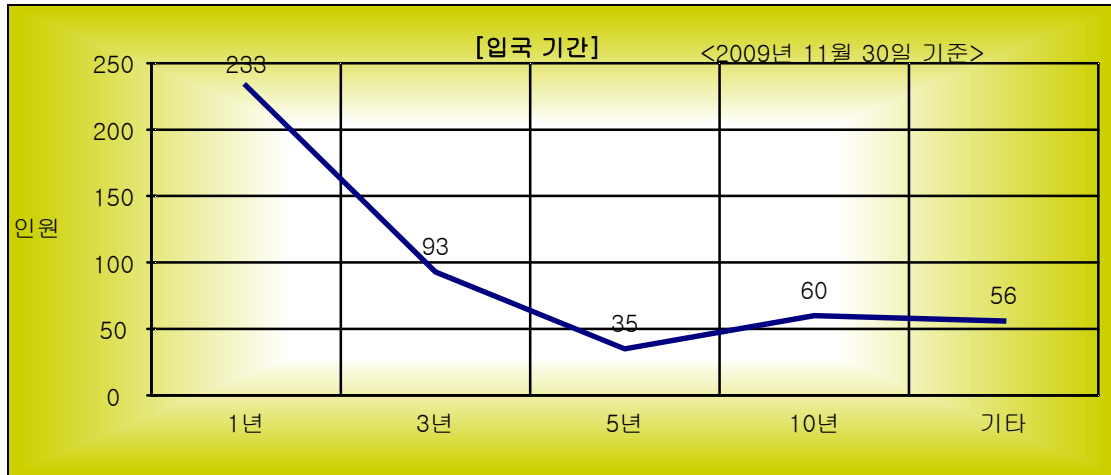
구 분	합계 (남+여)	남	여
무 학	239 [50%]	89	150
유치원 졸업	3 [1%]	1	2
소학교 졸업	19 [4%]	5	14
소학교 중퇴	65 [14%]	27	38
중학교 졸업	9 [2%]	6	3
중학교 중퇴	136 [29%]	59	77
대학교 중퇴	3 [1%]	1	2
기 타	3 [1%]	1	2
합 계	477 [100%]	189	288

<표-2>에서 보는 것과 같이 북한을 이탈하면서 도중에 학업을 포기한 경우가 전체응답자의 85%이며, 행정적인 무학이거나 학생 본인이 학교에 나간 기억은 있으나 실질적으로 학업을 받은 적이 없어 무학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전체 50%가 된다.

면담조사에 의하면 대부분 아이들이 연속적으로 학교에서 공교육을 받은 적이 없으며, 식량난으로 인해 1년 중 학교에서 수업하는 일수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면담에 응한 어떤 학생은 학교에 전혀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우연하게 한 번 학교에 나가 자기 나이에 맞는 학년을 배정받았을 정도로 학사 관리도 허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표-3>에서 보는 것과 같이 입국하기 전까지 중국 또는 제3국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학습에 대한 기회를 가지지 못한 점도 학력 결손의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미루어 판단해 볼 때 아이들의 학력 결손 정도는 심각한 상태이다.

<표-3> 입국기간



나. 학력과 학령의 심한 차이

탈북 전 생계유지를 위해 공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현실적 문제가 있고, 북한 이탈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신변보호를 위한 은둔 생활을 한 점, 그리고 제3국에서의 교육혜택을 받지 못한 이유 등으로 인해 학력과 학령 사이의 격차가 심하게 나타난다. 여기에 남한과 북한의 학제 차이에서 오는 제도적 문제도 한 몫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북한을 이탈하여 입국하기까지의 기간이 <표-3>과 같이 현저히 단축되고 있으나, 학력과 학령의 격차가 늘어나는 현상은 북한 내에서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그 원인으로 볼 수 있으며, 이것은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공교육이 붕괴되었음을 단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건에서 탈북청소년들이 일반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친구들과 함께 또래 문화를 형성해 간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며, 남한사

회 적응의 가장 큰 걸림돌인 학력과 학령의 차이를 극복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다.

다. 결손가정 및 열악한 가정환경의 증가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가정결손상황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통계에 비해 심각하다.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조사자의 92%가 결손가정이며, 기타로 응답한 28%는 사실상 무연고로 볼 수밖에 없다. 그 결과 무연고 학생은 전체 41%에 해당하며 이들은 심각하게 가정이 결손된 상태여서 다른 학생들에 비해 심리적 부담은 더 큰 상황이다.

<표-4> 가족관계

가족관계	합계(남+여)	남	여
친부/친모	39 [8%]	21	18
친부/양모	5 [1%]	4	1
양부/친모	20 [4%]	9	11
편부	21 [4%]	11	10
편모	184 [39%]	62	122
양모	2 [1%]	2	0
친척	7 [1%]	0	7
조부모	1 [1%]	1	0
무연고	64 [13%]	29	35
기타	134 [28%]	50	84
합계	477 [100%]	189	288

사춘기를 겪하는 청소년기에 가정 결손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절실히 필요한 점을 시사하는 것이므로, 앞으로 탈북청소년이 재학 중인 학교에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표-5〉 북한에서의 부모직업

직업	합계(남+여)	남	여
노동자	59 [12%]	22	37
교원	6 [1%]	0	6
판매원	6 [1%]	1	5
군인	2 [1%]	1	1
통계원	18 [4%]	12	6
상업	7 [1%]	5	2
어업	3 [1%]	3	0
농업	9 [2%]	3	6
옷판매원	4 [1%]	1	3
회사원	8 [2%]	1	7
주부	64 [13%]	17	47
학생	5 [1%]	3	2
운수업	5 [1%]	5	0
광업	6 [1%]	2	4
없음	3 [%]	2	1
기타	272 [57%]	111	161
합계	477 [100%]	189	288

그리고 <표-5>에서와 같이 북한에서의 부모직업을 보면 비전문직이 84%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남한에 입국 후 이들의 직업은 대체로 생계형을 가지게 되고, 그로 인해 생활은 상대적으로 빈곤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런 현실을 고려한다면 탈북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 따뜻한 배려를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표-6>에서와 같이 이들이 입국하는 과정에서 긴 시간 부모와 떨어져 은둔생활을 하는 이유 때문에 부모와의 관계도 원만하지 못하다. 이들은 탈북과정에서 자신이 받은 고통을 부모 탓으로 여겨 부모를 원망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탈북청소년들의 적응과정에 부모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탈북청소년들은 결손가정과 열악한 가정환경 등 이중고의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할 수 있다.

〈표-6〉 입국 과정에서 부모님과 떨어진 횟수

횟 수	합계(남+여)	남	여
없 음	84 [18%]	36	48
1 회	112 [23%]	37	75
2 회	22 [5%]	10	12
3 회	4 [1%]	1	3
4 회	3 [1%]	0	3
기 타	252 [53%]	105	147
합 계	477 [100%]	189	288

Ⅲ. 탈북청소년들의 가정 폭력실태

1. 탈북주민가정 폭력 발생의 원인

<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여성가족부 >

가. 북한사회의 폭력적 통제구조와 사회학습이론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폭력적 통제구조 속에서 북한 주민은 폭력 행동을 지속적으로 목격하고 경험함으로써 학습하게 된다.

이러한 견해는 폭력행위를 주위 현상에 대해 관찰하고 그것에 대한 경험을 통해 학습한 현상으로 이해하는 사회학습이론에 바탕을 둔다.

나. 북한의 유교적 가족문화 이데올로기와 가부장적 성 역할 태도

북한은 겉으로는 사회주의 국가로서 공식적으로는 남녀평등의 원칙을 내세우지만, 현실적으로는 남존여비와 가부장적 사회구조가 유지됨으로써 남녀 간 불평등한 관계가 존속되어 왔다.

다. 탈북주민 가족의 다양한 구성과 갈등이론

탈북주민 가족의 경우 남한사회 적응과정에서 성별, 세대별로 적응속도 및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데다가 부부의 출신 구성도 다양하여 가치관과 이해의 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그 갈등의 양상도 더 심각하게 표출될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라. 탈북주민의 외상 경험, 문화적응 스트레스, 차별의식과 폭력 하위문화이론

특정 계층의 공유된 경험이 부정적일 경우 그 집단 내에 일반 사회의 여타 다른 집단들보다 더 많은 폭력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이론으로 폭력 하위문화이론이 존재한다.

2. 탈북청소년 성장기의 가정폭력 경험 및 목격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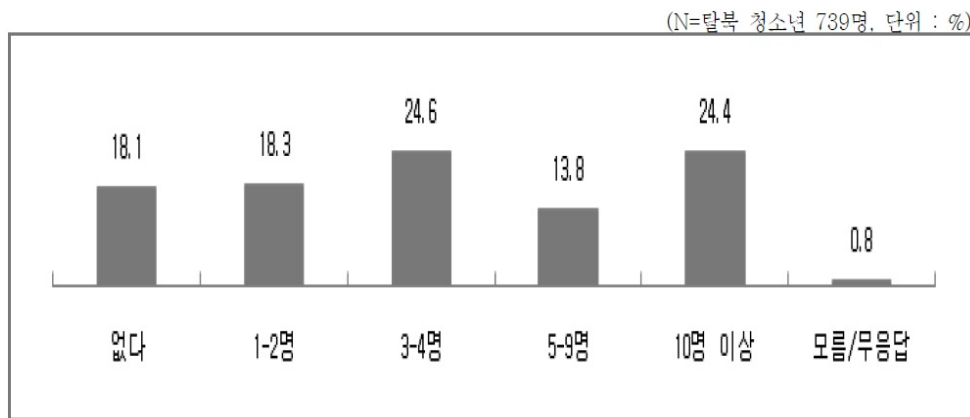
탈북청소년들이 입국한 후 가정에서 직접 경험한 폭력과 그것을 목격한 실태는 우려할 정도이다.

성장기 가정에서의 학대 경험을 살펴보면, 경미한 체벌의 경우 46.1%, 손으로 맞거나 발로 차임을 당한 경우 39.6%, 몽둥이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맞거나 다친 경우 17.9%로 나타나고 있으며, 부모 간 폭력을 목격하고 경험한 유형으로는, 언어적 폭력 49.1%, 손이나 발을 이용한 폭력 34.5%, 칼 등을 이용한 중한 폭력의 경우도 27.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2010 가정폭력 실태조사-여성가족부>

이와 같이 탈북청소년들의 가정에서의 폭력 경험과 폭력을 목격한 경험은 이들이 학교라는 환경과 그 안의 또래 집단에서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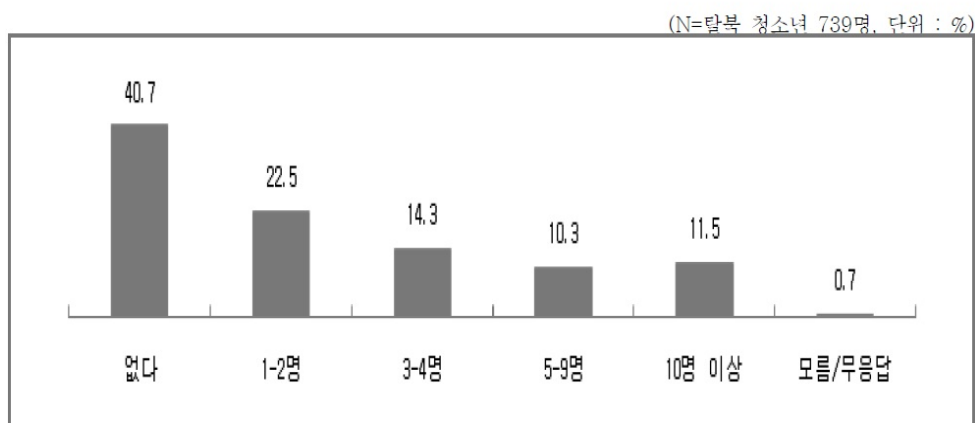
IV. 탈북청소년들의 학교 적응실태

1. 친한 남한 친구 수



출처 : 2011 북한이탈주민 생활실태조사 기초분석 보고서

2. 친한 북한 친구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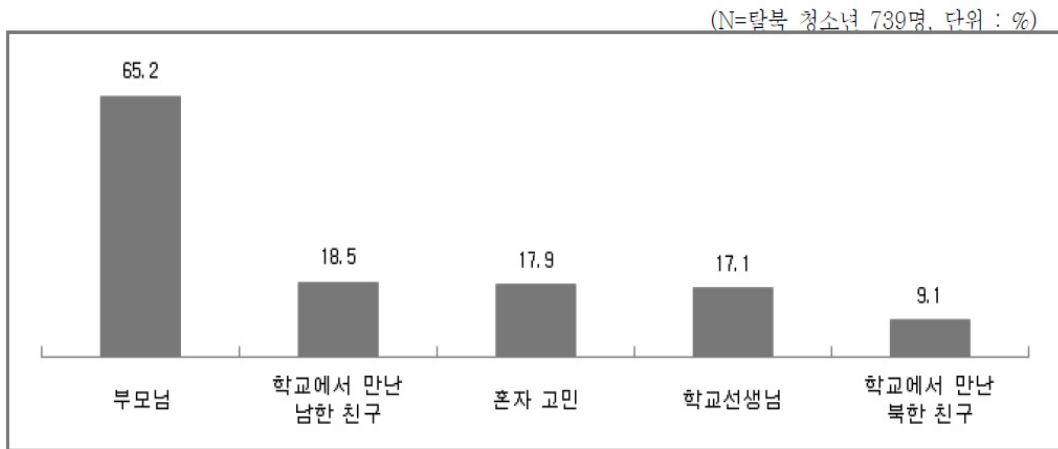


출처 : 2011 북한이탈주민 생활실태조사 기초분석 보고서

친한 남한 친구가 없거나, 친한 북한 친구가 없는 경우 대부분 탈북청소년은 학교에서 북한 출신의 신분을 숨기거나, 친구들에게 밝히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북한을 이탈한 사실을 숨긴 채 학교생활을 원만하게 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들이 학교생활을 적극적으로 하고 이를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피해 의식에서 벗어나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절대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3. 고민이 있을 때 주로 상담하는 사람



출처 : 2011 북한이탈주민 생활실태조사 기초분석 보고서

탈북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서 고민이 있을 때 상담하는 사람으로 부모님이 65.2%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여러 실태조사나 보고서에서 나타나듯이 탈북청소년들이 가정에서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탈북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선생님과 관계에서도 원만하지 못하다는 것은 일선 학교에서 탈북청소년들의 적응교육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점이라 볼 수 있다.

특히 탈북청소년들이 고민 상담을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부모님 스스로도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제도나 정보에 익숙하지 못한 상황에서 아이들의 고민을 해결할 경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정보나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제도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아이들이 미래를 설계하거나 현실을 극복해 나가는데 혼선을 줄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우리사회와 학교에서 탈북청소년과 그 부모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다.

V. 일반학교 부적응으로 한겨레중고등학교로 전학한 탈북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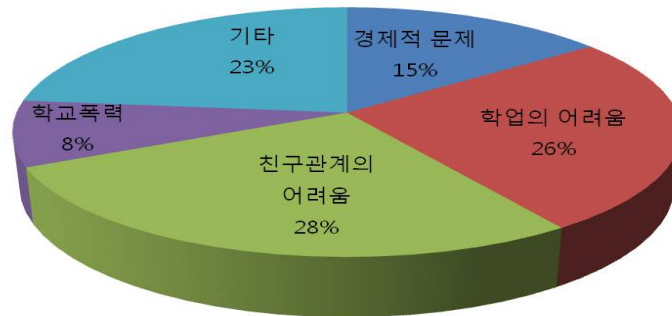
1. 설문조사 개요

일반학교에서 부적응하여 한겨레중고등학교로 전학 온 55명 학생을 대상으로 면담과 병행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본교에 전학 오기 전 일반학교에서 경험한 사실을 중심으로 교사 2명이 설문지를 활용하여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응답하게 하였고, 설문지는 조사 후 직접 회수하였다.

2. 설문지 결과 분석

가. 일반학교에서 한겨레 중고등학교로 전학 온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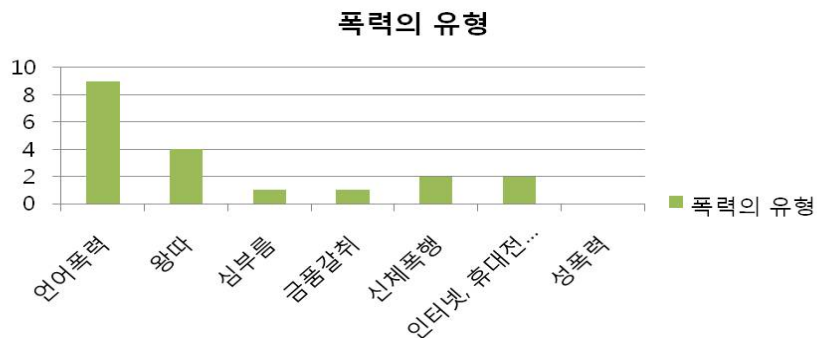
한겨레중고등학교로 전학온 이유는?



학업, 경제, 기타(부모의 권유) 등의 이유로 전입한 경우가 전체의 64%였고, 학교폭력과 친구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전입한 경우가 36%를 차지하였다.

36% 중 다수의 학생이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 이후에 폭력이나 친구관계가 어려워졌다고 응답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대외 정세에 따른 학교 내에서의 탈북청소년에 대한 세심한 지도와 관심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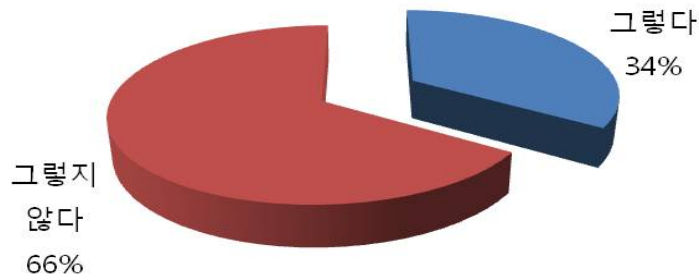
나. 폭력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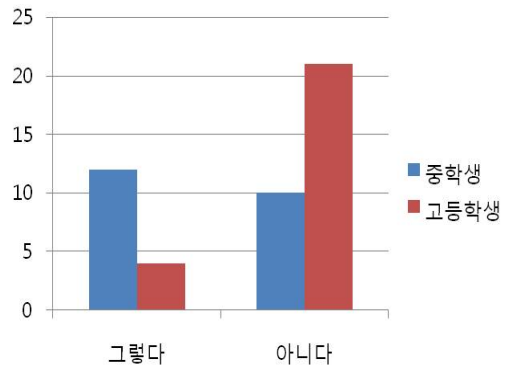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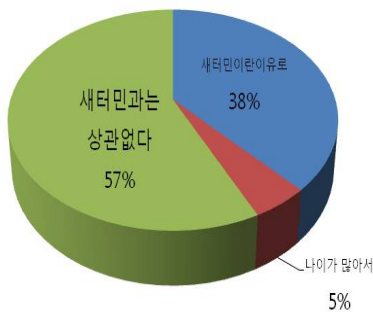
폭력의 유형은 언어폭력이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왕따, 신체 폭행, 인터넷, 휴대 전화를 이용한 욕설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주로 중학교에서 일어났으며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등 북한과의 대립이 심각할 때 주로 일어났다는 응답이었다.

다. 탈북청소년들의 피해의식 정도 분석

새터민이란 이유로 학교폭력을 당한다고 생각합니까?



일반학교에서 새터민이 폭력을 당하는 이유는?



일반학교에서 탈북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폭력을 당한다는 의식분포는 매우 우려되는 점으로 집단 내에서 소수자의 피해의식을 감안한다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피해 의식 정도가 고등학생보다 중학생들에게 높게 나오는 것도 유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수치는 탈북청소년의 개인적 성향일 수도 있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남북한의 급변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이런 현실에서 이들이 감수해야 하는 심적 고통은 더욱더 크다고 할 수 있다.

VI. 나가는 말

지금까지 탈북청소년들의 일반적인 실태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그들이 처한 가정 폭력의 실태와 학교 적응실태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일반학교 경험이 있는 한겨레중고등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이유와 그 유형과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다.

학교폭력은 가정 폭력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 분명한 것은 탈북청소년들은 조사 결과를 통해 드러난 바와 같이 가정 내 폭력에 노출되어 있고, 학교 내에서도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이들에 대해 깊게 이해하고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이들은 제2, 제3의 피해자가 될 것이다.

이제 이들의 일탈 행위를 비판하고, 탈북자라는 편견에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들이 고민하는 것이 무엇이며,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살아온 환경은 어떠한지, 왜 여기에 왔는지, 이들의 장점은 무엇이며, 단점은 무엇인지를 편견 없이 이해하고 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지금 학교폭력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볼 때 탈북청소년들은 학교폭력의 피해자로 또는 학교 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가 있다. 탈북청소년들이 편견 없는 이 땅에서 이들의 소중한 꿈이 만들어져 가길 염원해 본다.

<참고문헌>

1. 여성가족부 -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2. 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 2011 북한이탈주민 생활실태조사 기초분석 보고서

2012 학교통일교육발전 워크숍

국민적 통일준비 확산을 위해 찾아가는 통일교육

참고자료

통일교육원 홈페이지('자료마당'메뉴) 등재 통일교육자료 목록(www.uniedu.go.kr)

제 목	발간년도	주 요 내 용	대상구분	고교 도덕 차시 구분
강성대국론의 허와 실	2012.3	북한정권이 주장하는 강성대국의 내용과 한계를 파악하고 강성대국의 실현 가능성 전망	교사용	전 차시 공통
FTA와 한반도 통일환경	2012.3	FTA와 남북관계, FTA와 주변국과의 관계, FTA의 통일에의 활용방안 설명	교사용	
남북관계 지식사전	2011.12	남북관계 분야의 핵심적 용어 207개를 선정하여 그 배경과 의미, 역사적 사실의 전개과정 등을 설명	교사용	
문화예술에 비친 북한의 일상 <도서, 영상 (제목 : 문화예술에 비친 북한 사람들)>	2011.11	문화예술에 반영된 북한사회와 주민들의 일상의 모습들을 구체적인 작품을 통해 조망	교사용	
북한 여성의 일상생활 <도서, 영상 (제목 : 북한 여성의 일상을 만나다)>	2011.11	북한 여성의 가정·경제·사회 영역에서의 일상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경제난 이후 북한 여성의 생활과 역할, 의식변화 고찰	교사용	
변하는 북한 변하지 않는 북한 <도서, 영상(도서와 제목 동일)>	2011.11	북한 주민의 변하는 모습과 변하지 않는 모습을 비교 고찰 후 북한의 변화 가능성 전망	교사용	
권력이 세습되는 북한	2011.11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3대 권력세습의 배경과 권력 승계 가능성 전망	교사용	
통일필요성의 재인식	2011.07	통일 필요성의 새로운 논리와 통일 이후 다양한 미래 비전 제시	교사용	
통일비용보다 더 큰 통일편익	2011.04	통일비용, 통일편익, 분단비용의 관계에 대한 설명	교사용	
학교통일교육발전방안과 사례	2011.02	'08-'10년 학교통일교육발전워크숍에서 발표한 자료집에서 발췌 정리	교사용	
미래지향적 학교통일교육의 구현	2011.02	현행 학교통일교육의 실태 분석과 청소년 통일교육 방향 제시	교사용	
(IPTV 특별기획) 통일의 작은 실험실 셋넷학교	2010.10	북한이탈주민들의 우리사회 정착과정 이해	공통	
(IPTV 특별기획) 통일리포터! 통일독일가다	2010.10	통일독일 모습을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게 조망	공통	
통일문제이해	2012.03	통일방안, 대북정책, 남북관계, 국제질서, 통일환경	교사용	민족분단의 과정
북한이해	2012.03	북한 정치·외교·군사·경제·사회·문화 분야별 실상	교사용	
자주 묻는 통일 이야기 50	2009.02	통일정책, 남북관계, 북한실상 관련 주요 사항	교사용	
알기 쉽게 풀어 쓴 통일 이야기	2007.01	분단의 원인과 통일의 필요성, 통일방안과 남북관계, 분단국 사례 등	교사용	
분단의 20세기 통일의 21세기 [동영상, 28분]	2005.03	한반도 분단과정, 남북관계 발전현황, 통일의 비전 등을 문답식으로 설명	공통	
한라에서 백두까지(플래시게임)	2008.12	문제를 풀면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가기	초/중	
새 The bird [동영상, 20분]	2006.05	남북의 조류학자 원홍구·원병오 부자의 사연을 각색 (아동·청소년용 애니메이션)	초/중	
가지미의 눈물 [동영상, 14분]	2007.07	이산가족 할아버지의 고통을 통해 나이 어린 손녀가 통일의 필요성을 깨닫게 됨(아동·청소년용 애니메이션)	초등	
가지미의 눈물 [동영상, 14분]	2007.07	가지미의 눈물 자막·수화 삽입본(청각장애인용)	초등	
가지미의 눈물(영어판·일어판) [동영상, 14분]	2008.12	가지미의 눈물 영어·일어 자막 삽입본(재외동포용)	초등	
북한의 교육제도 [동영상, 22분]	2002.11	북한의 학제, 교과목, 학교생활 등	공통	민족분단과 남북 사회문화 비교
김정일시대 북한교육의 변화	2006.03	북한의 교육정책, 학제, 김정일시대 교육의 특성	교사용	
북한 학생들의 학교 생활 [동영상, 21분]	2008.11	북한 학생의 일과, 교육과정, 조직생활, 방과 후 생활	공통	
북한 주민들의 하루 생활 [동영상, 20분]	2008.11	북한 주민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조직생활 등 하루일과	공통	
이슬이의 북한 방문기 [동영상, 23분]	2005.06	이슬이가 아버지와 함께 북한을 방문하여 겪는 이야기(아동·청소년용 플래시 애니메이션)	초등	
게임 소녀와 평양 소년(만화)	2007.12	남북의 소년소녀가 게임을 통해 만나고 친해지면서 통일을 염원하게 됨(아동·청소년용 만화)	초/중	
북한의 선거제도 [동영상, 31분]	2004.02	제11기 최고인민회의 선거과정을 통해 본 북한의 선거제도	공통	

제 목	발간년도	주 요 내 용	대상구분	고교 도덕 차시 구분
남북문화이해지 [동영상, 80분]	2002.12	문화이해지 기법을 이용한 통일교육 영상자료	공통	민족분단과 남북 사회문화 비교
북한드라마를 통해 본 북한 주민의 가치관 변화 [동영상, 33분]	2003.11	조선중앙TV 드라마를 통해 본 북한 주민의 가치관 변화상	공통	
북한 가요에 나타난 여성상 [동영상, 23분]	2002.11	북한 가요 7편을 통해 본 북한의 여성상, 북한 여성들의 삶을 규정하는 제도 및 실제 생활모습	공통	
북한만화영화의 이해 [동영상, 47분]	2004.02	북한 만화의 주제별 유형분류, 수업자료 활용경험 등	공통	
북한주민의 결혼과 가정생활 [동영상, 36분]	2004.02	북한 주민의 연애, 결혼, 육아, 가정생활 및 경제난 이후 변화	공통	
북한이탈주민의 언어생활에 나타나는 북한 언어정책의 영향	2003.12	북한이탈주민의 우리말 인식현황, 해방전후 한반도 언어생활환경, 로동신문 〈우리말다듬기지상토론〉 분석	교사용	
북한 농업개혁의 현황과 전망	2004.05	사회주의농업의 이론, 제도, 개혁사례, 북한의 농업 시스템 및 개혁의 조건과 과제 등	교사용	
먹거리를 통해 본 북한 현실	2005.02	북한의 식량난, 주식, 먹거리 문화	교사용	
남북한의 역사인식 비교	2005.09	북한 역사관의 특징, 남북한 역사인식 비교, 남북교류, 통일역사교육의 과제	교사용	
남북한 예술 어떻게 변화였나	2005.09	남북 예술의 특징, 분단 후 변화, 남북 교류현황	교사용	
북한경제 어디까지 왔나	2005.01	체제전환국의 경제개혁 사례, 북한의 경제개혁개방 정책 현황과 성과	교사용	
북한의 에너지 사정, 어제와 오늘	2007.02	북한의 에너지정책, 공급구조, 수급현황	교사용	
북·중 변경무역과 북한의 시장상태	2007.01	북중 변경무역, 북한의 시장	교사용	
정보화시대 북한의 정보화 수준	2006.09	북한의 IT중시정책, 정보화 현황 및 실제, 정보통신 부문 남북교류협력	교사용	
북한과학기술의 이해	2007.01	북한의 과학기술정책, 체제, 계획, 수준, 특징, 남북협력	교사용	
북한의 IT 현황과 전망 [동영상, 23분]	2002.11	북한의 정보산업 육성배경 및 현황	교사용	
남북한 IT 용어 비교	2005.09	북한의 IT 산업현황, 남북한 IT 용어 비교	교사용	
북한의 의료실태	2007.02	북한의 고려의학체제, 의료교육,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실태	교사용	
북한의 관광자원 실태와 전망	2007.12	북한의 관광환경, 정책, 기구, 금강산·개성·백두산 관광	교사용	
북한의 체육 실태	2008.07	북한의 체육정책, 체육교육 및 선수양성, 조직, 시설, 대회, 국제교류 및 남북교류	교사용	
북한의 문화재 실태	2008.12	북한의 문화재 정책·관리실태·현황, 남북교류 방안	교사용	
남북한 물류망 구축: 그 실상과 과제	2007.02	북한의 주요 운송수단, 남북 교통망 연결사업 현황, 과제와 전망	교사용	
북한의 환경정책과 실상	2007.01	북한의 환경관, 정책, 실태, 남북교류현황	교사용	
북한법을 보는 방법	2006.04	북한법에 나타난 북한체제 및 사회의 변화상, 북한법의 이질성 및 이중성과 올바른 법해석	교사용	

제 목	발간년도	주 요 내 용	대상구분	고교 도덕 차시 구분
북한의 법제 정비 동향과 특징	2007.12	북한의 법체계, 규범과 현실, 입법동향, 법제정비 평가와 전망	교사용	민족분단 극복 방향
북한의 대남전략	2009.12	북한의 대남전략 기초와 노선, 전개양상, 향후전망	교사용	
통일 이후 동서독 주민들의 갈등과 사회통합	2002.12	통일독일 주민 간 심리적 갈등 현실을 통해 제도적 동일을 넘어서 사회문화적 동일의 시사점 도출	교사용	
갈등을 넘어 통일로	2004.09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 독일통일 전후 갈등 및 통합 사례, 남북통합과정과 공동체의식 연구	교사용	
한반도 평화정착과 유럽연합의 교훈	2005.03	유럽통합 과정, EU 조직체계,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교사용	
독일통일 20년 : 현황과 교훈	2009.12	독일의 통일과정과 분야별 통합현황	교사용	
미래를 위해 남겨 놓은 과거, DMZ	2010.07	DMZ에 얽힌 과거와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교사용	
DMZ에서 바라본 분단과 통일 [동영상, 20분]	2010.10	6.25 전쟁의 교훈과 분단현실 이해, 통일의지 함양	공동	
21C 국제질서의 변화와 한반도	2005.05	국제질서의 변화와 동북아, 한반도와 국제정치, 주요 쟁점과 전략방향	교사용	우리의 대내외적 통일환경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동영상, 9분]	2008.11	상생공영정책의 비전, 추진원칙, 중점 추진과제 등	교사용	남북한 통일 정책 비교
상생공영 시행시 모음집	2008.12	「상생공영 4행시 짓기」 공모전 모음집 수상작 및 상생공영정책 10문 10답	중/고	
헤미의 행복통일한국 [동영상, 11분]	2007.12	헤미리는 고등학생이 꿈을 통해 통일한국의 미래를 상상하게 됨(청소년용 애니메이션)	중/고	통일한국의 미래상
헤미의 행복통일한국 [동영상, 11분]	2008.06	헤미의 행복통일한국 수화·자막 삽입본 (청각장애인용)	중/고	
헤미와 북한에서 온 친구 [동영상, 7분]	2009.12	헤미와 탈북청소년 승준의 이야기	중/고	
화해·협력시대의 여성 통일교육	2002.06	여성 통일교육의 필요성, 교육내용, 방법	교사용	기 타
통일·남북관계 사전	2004.07	통일, 남북관계 관련 주요용어 및 개념	교사용	
이론으로 보는 남북관계와 통일문제	2005.07	각종 정치경제학 이론으로 남북관계 분석	교사용	
대북협상 어떻게 볼 것인가	2003.12	대북협상에 대한 관점, 특수성과 어려움, 북한의 협상 행태, 남북 협상 문화 등	교사용	
남북관계발전의 법적 이해	2005.06	남북관계 변화에 대한 법해석학적/법사회학적 접근 및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법인식전환의 필요요소	교사용	
남북 인적교류 현황과 실상	2007.02	남북 인적교류 정책, 현황, 의의	교사용	
2008 통일교육 웹진(Unizine)	2008.12	2008년도 월간 통일교육 웹진(Unizine) 종합본	교사용	

